제주불교성지순례
성지순례전문 ㈜다도투어
www.dadoTour.co.kr
TEL 064)724-1185~6

현대불교

한국 한과
전통 사찰식으로 만든
주문전화 : 02)720-8829 / 홈페이지 : www.sanchon.com

news.buddhapia.com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6년(서기 2002년) 10월 23일 수요일(주간) 제392호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승가다운 선거' 기대

참여불교재가연대가 31일로 예정돼 있는 조계종 제13대 종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종회의원의 자격기준과 의정활동 방향에 대한 주문을 담은 발표문을 내놓았다.

발표문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청정하게 치러져야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도덕성과 청렴성, 공정성, 민주성, 성실성, 전문성 등을 종회의원이 갖춰야할 최소한의 자격요건으로 제시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13대 중앙종회의 의정활동 방향으로, 대의기능 및 감시기능 활성화, 자정능력 향상, 한국불교의 종합적 발전계획 수립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재가연대는 이같은 소견과 함께 12대 종회에 대한 평가도 곁들이고 있다. 평가에 따르면, 98, 99년 종단사태를 수습하고 불협화음없이 종단을 이끌었다는 점을 성과로 꼽고 있다. 그러나 교단의 인사 및 재정 투명성, 폭력적 문화풍토 개선과 교단의 도덕성을 제고하기 위한 활동은 미약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여기에는 종회의원들의 입법 및 정책 활동이 매우 저조했다는 비판도 포함돼 있다.

많은 불자들은 과거의 종회의원 선거에서 보았던 여러 가지 폐단을 떠올리며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재가연대의 요청은 바로 이런 재가불자들의 우려와 바람이 담겨 있다고 봐야 한다.

선거가 열흘 남짓 앞으로 다가오면서 상당수 교구본사의 후보자들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갈수록 혼탁해져가는 대선정국을 보며 불자들은 이번 종회의원 선거가 사회의 귀감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치르고, 선출된 종회의원들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입법활동을 벌이길 기대한다.

한명우(취재 1부 차장)

현대불교신문은 수행 · 포교지
다 읽으신 후 가까운 이웃에게

현대불교신문은 수행 · 포교지입니다. 다 보신 뒤에는 버리지 마시고 가까운 이웃에게 주십시오.
신문에 담긴 단 한줄의 말씀이 여러분의 이웃을 제도할 수도 있습니다.

⊙ 구독접수안내
수도권: 02)737-0090 부산 경남: 051)632-0064 대구 경북: 053)768-8008 광주 전남: 062)375-9986 전주 전북: 063)255-2274
청주 충북: 043)258-3282 인천 강화: 032)937-5679 강릉 강원: 033)643-5999
영주: 054)634-3429 일양: 055)353-1196

스님들 노후걱정 보험가입 급증

생보협 집계 2년전의 3배나… 50대 가장 많아

"종단차원 노후복지제도 시급"

스님들의 노후대비 보험가입이 올들어 눈에 띄게 증가하는 등 최근 2~3년새 연금보험 가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승려노후복지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이에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14일 생명보험협회가 밝힌 삼성생명의 '성직자 노후대비 보험가입 현황'에 따르면 올 4월부터 8월까지 성직자(스님, 목사, 신부)의 보험가입 건수는 모두 1만1천26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5천629건에 비해 두 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올 4월부터 8월까지 매달 성직자들의 가입건수가 2천 건을 넘어서, 지난해 월평균 1천 건 보다 크게 증가했다.

이 가운데 스님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0% 가량(3천3백여건)으로, 2년 전과 비교해 대략 3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생명보험협회는 또 보험에 가입한 스님의 연령대를 분석한 결과 50대가 45% 가량으로 가장 많고, 30대가 30%, 40대가 25% 정도라고 밝혔다.

스님의 보험 가입 증가는 동부생명, 대한생명 등 유명 보험사들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 이들 보험사에 따르면, 2~3년 전부터 스님들의 보험가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규모가 작은 종단과 사찰이 단체로 가입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교보생명은 최근 스님들 대상의 '연화연금보험'을 개발, 판매에 들어간다.

동부생명 유정헌 동서울지점장은 "연금보험에 대한 스님들의 문의전화가 심심치 않게 온다"며 "보험업계에서도 불교계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스님들의 연금보험 가입이 느는 것은 노후대비나 보건, 의료 등 종단차원의 노후복지 대책이 잔각종의 노후복지시설인 기로원을 제외하고는 전무하기 때문이다. 교구 본 · 말사 중심의 '승가연금제'나 노후복지원 및 스님 전용 병원 건립 등의 대안이 심심찮게 거론됐지만 지금까지는 말잔치에 불과한 실정이다.

중앙승가대 김응철 교수는 "스님들이 수행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종단차원에서 본격적인 노후복지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아름다움과 깨달음'전이 서울 평창동 가나아트센터에서 17일 시작돼 28일까지 계속된다. 이날 개막식에는 도후 불교문화산업기획단 이사장, 운산 태고종 총무원장, 광우 전국 비구니회장, 홍파 관음종 총무원장, 원택 조계종 총무부장, 서돈각 불교진흥원 이사장,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 박문석 문화부 차관 등 20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처음 일반에 공개된 의곡사 괘불(정종여 作, 1938년) 앞에서 참석자 대표들이 전시회 개막식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사진= 고영배 기자

"佛法 예술로 승화… 볼수록 환희심"

'아름다움과 깨달음展' 17일 가나아트서 개막

20세기 불교미술의 흐름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는 (사)불교문화산업기획단의 '아름다움과 깨달음전'이 17일 서울 평창동 가나아트센터에서 문을 열었다.

국내 최초로 다양한 기법의 근현대 불교미술품들을 한자리에 모은 이번 전시에는 한국 최초의 근대 조소 예술가인 김복진씨의 '정혜사 관음보살좌상(1939)'을 비롯해 정종여씨의 '의곡사 석가여래좌상 괘불(1938)', 근대 대표 유화가인 오지호씨의 '광주 무등산 아미타 후불탱화(1954)', 현대 채색화의 새 경지를 개척한 박생강씨의 '청담스님(1983)' 등 작고작가와 원로 · 중견 작가 41명의 작품 72점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불교문화산업기획단 이사장 도후스님은 인사말에서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불교문화가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 제 역할을 해 나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고미술 중심의 불교미술전시에서 탈피한 본격적인 근 · 현대불교미술전을 기획했다"면서 "서울에 이어 경주, 속초, 여수 등 지방 순회전으로 이어지는 이번 전시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과 아름다움의 향취를 만끽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3면으로 계속

구독료 자동이체 하세요

연말까지 사은행사… 관세음보살도 증정
10월부터 구독료 월 5천원… 기존독자 4천원



◇김의식 作 '관세음보살도'.

구독료를 내실 때 은행 지로 방식을 이용하시는 경우 매월 1회 지로용지를 보낼 때마다 용지값 우편요금 등 건당 210원이 듭니다. 게다가 연체로 인해 3~4회씩 지로용지를 보내야 하는 경우가 되면 가뜩이나 적자를 면치 못하는 구독계정의 비용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게 됩니다.

반면에 은행 자동이체를 이용하시면 건당 비용(은행 수수료)은 지로방식의 31%절감된 145원이 됩니다.

이에 새로 독자가 되시면서 구독료를 자동이체 방식으로 신청하시는 분에게는 사은의 뜻으로 미려한 색감의 16도 정밀 인쇄된 관세음보살도(김의식 作, 27cm×37cm, 시중판매가 2만원상당)를 드립니다. 이 보살도는 그대로 벽에 거시거나 액자에 넣고 보시면 수준 높은 예술품이 됩니다.

한편 구독료가 이달부터 신규독자에 한해 月 4천원에서 5천원으로 올랐습니다. 기존독자에게는 종전 구독료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이번 사은행사는 연말까지 계속되오니 적극 동참하셔서 뜻 깊은 인연 지으시기 바랍니다. 구독료 자동이체 문의 : 고객부 (02)737-0090

현대불교신문사

전계 대화상 새로 추천

조계 · 태고종 25 · 31일 원로회의

조계종과 태고종이 25일과 31일 각각 원로회의를 개최한다.

조계종은 25일 오후 2시 총무원 4층 회의실에서 원로회의를 열고 △현 전계대화상인 범룡스님의 임기 만료에 따른 새 전계대화상 추천의 건 △진제스님의 원로의원 선출의 건 △중앙종회의 원로의원 추천권한을 원로회의로 이관하는 안 등 지난 종회에서 상정됐던 종법안의 12대 종회 마감에 따른 자동폐기건 △광조스님(종회의원)에 대한 사무처장 임명동의건 등의 안건을 처리한다.

태고종은 31일 오전 11시 태고사에서 원로회의 발족이후 첫 회의를 열고 원로회의 운영방향 등을 논의한다.

한명우 · 김철우 기자

'직지' 가치 세계로

유네스코 홈페이지 등재

직지심체요절(直指心體要節, 이하 직지)의 문화재적 가치를 세계에 알리기 위한 사업이 전개된다.

청주시는 14일 1억5천만원을 들여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중인 '직지'를 촬영하고 국 · 영문 해설판을 만들어 청주고인쇄박물관과 유네스코본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리는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또 지난해 9월 직지의 세계기록 유산 등재를 기념하는 뜻에서 '직지상'을 제정, 기록 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공헌한 기관이나 단체에 대해 2년마다 시상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 9월부터 3개월간 청주고인쇄박물관, 독일 베를린, 프랑스 파리에서 지난해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된 '루텐베르크 성서'와 '직지'의 순회전시회를 개최한다.

청주고인쇄박물관 나경준 학예연구사는 "직지의 우수성과 함께 청주가 인쇄문화의 발상지임을 알리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불자 골퍼 박세리 만나다 11면

아름다움과 깨달음 - 한국 근현대미술에 나타난 불교사상

모십니다

귀의삼보하옵고,
사단법인 불교문화산업기획단은
「아름다움과 깨달음-한국 근현대미술에 나타난 불교사상」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이 전시는 근현대기의 불교문화를 기저로 한 유명 미술가의 주옥과 같은 작품을 한자리에 모은 최초의 전시회입니다.
40여 작가의 70여 작품이 진열되는 이번 전시에
많은 관람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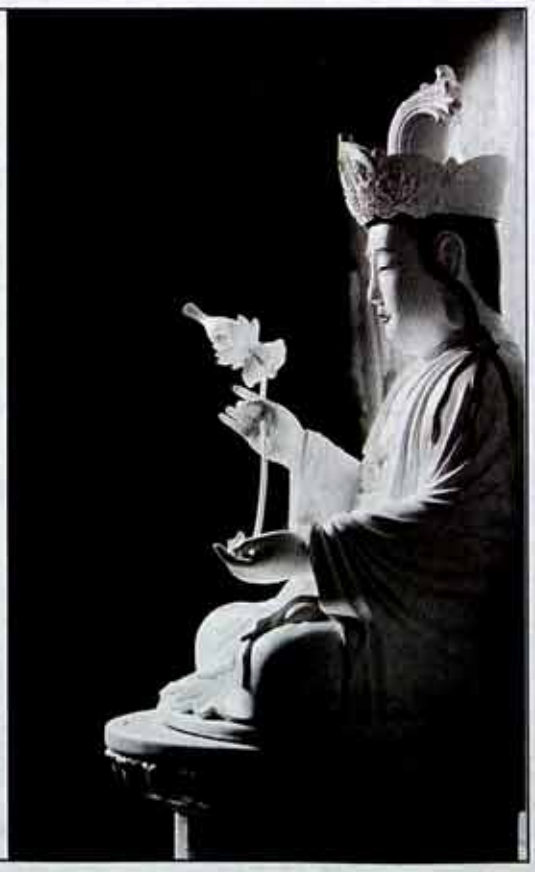
(사)불교문화산업기획단
이사장 김도후 합장

(사)불교문화산업기획단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53 신안빌딩 7층

전 시 일 정

■ 서울전 ● 일 시 : 2002년 10월 17일 - 10월 28일
● 장 소 : 가나아트센터(서울 평창동)
● 문 의 : 02-725-1132
■ 경주전 2002년 11월 2일 - 11월 19일(선재미술관)
■ 속초전 2002년 11월 22일 - 12월 1일(속초문화회관)
■ 여수전 2002년 12월 초 (여수문화회관)

특별강연회 「한국 근현대미술의 현황과 과제」
○ 장 소 : 가나아트센터 아카데미홀(서울 평창동)
○ 일 시 : 10. 26 (토) 오후 2시 - 5시
○ 내 용 : 한국불교미술의 특성/장충식(동국대학교 박물관장)
현대불교미술의 과제/최태만(서울산업대 교수, 미술평론가)
아름다움과 깨달음 展의 의의/윤범모(경원대 교수, 미술평론가)



사 설

스님들 노후대책 세워라

스님, 목사, 신부의 보험가입이 늘어나고 있다는 삼성생명의 발표다. 목사 다음으로 스님들의 보험 가입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불교는 원래 무소유의 삶을 소중하게 생각한다. 출가자들은 더더욱 무소유가 원칙이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원칙적으로 3의1발이면 족하다. 그 이상은 수행에 장애가 될 뿐이며, 출가정신을 저해한다고 가르친다. 개인 재산을 소유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재물을 획득하면 교단에 헌납하여 공유재산으로 만드는 것이 원칙이다. 수행과 전법을 통해 중생들에게 봉사하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은 필요하지 않다는 의지의 표현인 것이다.

그러나 현대자본주의 사회는 출가자들의 수행과 생활환경을 변화시키고 있다. 자본주의적 사고가 교단에도 파고들고 있으며, 출가자 개개인의 재산 소유가 일반화되고 있는 추세다. 승려 보험가입자의 증가 역시 이러한 사회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또한 조계종단의 현행제도 아래서는 노후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는 점도 반영되었다고 추정된다.

스님들의 노후복지에 대해 그동안 숱한 대안들이 제시되었지만 조계종단은 관심이 없었던 것 같다. 늘 관심권 밖에 있다. 그러다 보니 자력으로 노후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아무리 서구화를 지향하고 산업화된다 하더라도 수행자의 삶은 수행 그 자체로 사회적 의미가 크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수행과 전법 이외에 관심을 가진다면 출가생활의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종단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해 왔다는 점을 뼈저리게 되새겨야 한다.

불교문화의 미래 위한 제언

10월은 '문화의 달'이다. 전국적으로 다양한 문화 예술 행사가 열리고 있다. 문화관광부 소속 기관이나 지방자치체에서 준비한 것만 전국적으로 946개에 이른다.

불교계에서 펼치고 있는 행사도 이에 못지 않다. 산사 음악회는 이제 종교적 울타리를 넘어 많은 사람들에게 색다른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로 자리를 잡았고, 그 밖에도 다채로운 행사가 열리고 있다.

그 중에서도 (사)불교문화산업단이 발족 기념으로 마련한 '아름다움과 깨달음' 전은 단연 돋보일 뿐 아니라, 불교 문화의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기대를 갖게 한다.

이 전시회에서 특별히 주목할 바는, 불단 장엄이나 불교 교리의 미술적 형상화에 초점을 두지 않고 순수한 예술혼과 불교사상의 행복한 만남을 주선하고 있다는 점이다. 출품작의 완성도나 작가의 수준도 최고 급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1급 예술의 당의정으로 섭취하는 기회를 맞은 셈이다.

이로써 우리는 불교 문화가 가야할 대로를 만난다. 양과 질의 조화, 향유자의 감식안을 끌어올리는 상향식 '눈높이 맞추기', 창작자에 대한 신바람 나는 자극, 이런 것들이 그 길의 구성 요소일 것이다.

'문화가 경쟁력'이라는 말은 이제 일상어가 되었다. 불교 또한 예외가 아니다. 다양한 문화적 스펙트럼으로 대중을 맞아들임과 동시에 질적 향상을 꾀해야 한다. 섣부른 대중추수는 답보 아니면 퇴보를 부른다. 고급한 불교 문화를 일구지 않고는 불교의 미래를 말하기 어려운 때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 쇄 인 : 김규석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 : 1개월 5천원 영구 62만5천원

진각종 정체성 재정립한다

종조탄생 100주년기념 계기 교학·의식·수행법 점검



◇몽골 간단사 단장람 스님의 집전으로 식재호마의식이 봉행되고 있다.

진각종이 아시아 4개국의 밀교의식을 국내에 처음 선보이고, 이들 나라의 밀교사 특징을 살펴보는 국제규모의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종단 정체성 확립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진각종(통리원장 효암)은 종조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17일부터 19일까지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총인원에서 국제학술대회와 세계 밀교의식 시연법회를 잇따라 열었다.

이번에 열린 두 행사는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그동안 불교계 내외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밀교종단으로서의 정체성 문제, 교학·의식·수행법 등을 종단 차원에서 총체적 재정립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

특히 진각종은 세계 밀교의식 시연법회와 관련, 일반인들에게 공개하지 않았던 밀교 전통 의식인 호마(護摩:불을 이용한 의식) 및 관정(灌頂:물을 이용한 의식)을 선보임으로써, 밀교가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불교의 한 갈래임을 이해시키는 기회를 마련했다.

한국, 일본, 몽골, 티베트 등 4개국 30여명의 스님이 참가한 이번 시연법회에서는 18~19일 이틀 동안 진각종의 사자상승(師資相承:스승에서 제자로 법맥을 전수하는 의식) 관정의식을 비롯해 일본 진언종과 몽골 간단사, 티베트 닝마파 등의 식재호마의식(息災:재앙을 소멸시켜주는 의식), 일본 진언종의 증익호마의식(增益:이로움을 더해 주는 의식) 등이 각각 1시간씩 봉행됐다.

이에 앞서 진각종은 17~18일 양일간 국내학자 14명 해외학자 4명이 참가한 가운데 '회당사상과 밀교'를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가졌다. 이날 학술대회는 진각종 교육원장 혜정 정사의 기조강연에 이어 △회당사상과 종교적 실천 △밀교의 성립과 만다라 등 2개 분과별로 나눠 분과별 4~5개의 주제발표와 함께 논평이 각각 진행됐다.

일본·몽골 등 밀교의식 한자리 특징 고찰

'회당사상' 국제세미나서 宗學 보편성 확인

위덕대 김무생 교수는 '회당사상의 체계와 특성' 주제발표에서 "진각종의 기본 교학은 선택과 집중의 입장에서 수용됐기 때문에 시대를 뛰어넘어 적용될 수 있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하고 "기존의 불교 신앙 양식과 의례의식 형태에 비춰보면 이교처럼 보일 정도로 다른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진각종의 보편성은 불교 교리와 신앙의 방향에 지극히 충실히 적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네팔 트리브반대 나레쉬만 교수의 '비로자나불의 수인(手印)에 관한 연구'를 비롯해, 일본 오오타니대 휘팀게상 교수의 '티베트 밀교의 수행과 만다라', 일본학술진흥회 잠양카이쵸 연구원의 '몽골불교의 역사적 전개', 고야산대 나카무라 혼넨 교수의 '일본의 진언밀교와 만다라' 등이 발표됐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승려 특별분한신고 접수

조계종, 11월 한달동안

조계종이 11월1일부터 한 달간 승려 특별분한신고를 받는다.

신고대상은 1990년도 분한신고를 필한 승려 중 2000년 분한신고 미신고자로, 분한신고서 및 신상명세서, 호적등본 등을 갖추고 재적교구본사로 신고해야 한다.

이번 특별분한신고는 지난 2000년 정기분한신고기간 중 신고를 하지 않은 승려가 2000여명에 달해, 이에 대한 구제조치로 시행되는 것이다. 문의 (02)735-5862

한명우 기자

조계종 3급 승가고시산림 회향

합격자 290명 배출

지난 8일부터 해인사에서 시작된 조계종 제2회 3급 승가고시산림이 14일 회향하고 290명의 3급 승가고시 합격자를 배출했다.

조계종은 7일간 승가고시산림 교육과정을 마치고 3급 승가고시에 합격한 비구 135명, 비구니 155명 등 모두 290명에게 각각 중덕(비구)과 정덕(비구니) 법계를 수여했다.

이번 3급 승가고시에는 비구 156명, 비구니 178명 등 총 334명이 지원했으며, 이 가운데 비구 21명, 비구니 23명 등 44명이 서류심사 및 면접, 갈마, 승가고시 등에서 탈락했다.

특히 합격자 가운데 12명은 3급 승가고시의 마지막 관문인 논술고사에서 1차 불합격 판정을 받아 재시험을 치른 끝에 합격하는 등 지난해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됐다. 3급 승가고시산림은 '설법론' '계율강의' 등의 강의와 참선 등으로 전행됐다.

한명우 기자

'원효전서 5권' 영역사업 가속

11월13일 번역자 워크숍 마무리 검토

원효 스님의 현존 저술 22종을 영어로 번역하는 〈원효전서〉(전 5권) 영역사업이 회향을 앞두고 속도를 높이고 있다.

국제원효학회는 11월 12일 동국대에서 '원효전서 영역의 지구촌 시대적 의미와 번역상의 문제점'을 주제로 제2회 국제원효학회 학술회의를 여는 데 이어 13일에는 '원효전서 영역의 문제점'을 주제로 〈원효전서〉 번역자 워크숍을 연다. 이번 학술회의와 워크숍에는 지난 5년간 〈원효전서〉 영역 사업에 참여해온 국내외 학자들과 관련 학자들이 모여 그동안의 번역에 대한 최종 검토를 벌인다.

12일 학술회의에서는 '〈대승기신론소〉에 나타난 원효의 신앙 체계'(박성배 교수), '원효의 〈금강삼매경론〉을 통해본 한국불교문헌의 주석장르'(로버트 버스웰 교수) 등 2개의 주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지고, 13일 워크숍 후에는 '원효학 연구의 미래'로 종합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원효전서〉 번역사업에는 16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출간 예정이다.

권형진 기자

관음사 새주지 용주스님



조계종 제23교구 관음사는 11일 산중총회를 열고 단독 출마한 용주스님(사진)을 신임 주지로 선출했다. 주지였던 증원스님은 회주로 추대됐다.

용주스님은 지효스님은 은사로 출가해 1969년 서울 천축사에서 사미계를 수지하고, 1984년 부산 범어사에서 자운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용주스님은 이후 천축사 무문관에서 정진을 계속해 왔다.

한명우 기자

'현대' 만평

김 영 민



과학정보

36억년전 미생물
120살까지 장수

불 로 초

미국 NASA 우주국 건강센타 발견

『 병원을 찾는 사람들의 90%가 산성체질 ! 』

- 지구최초의 생명체이자 최초의 식품인 스피루리나는
- 36억년전 지구가 용암 분출로 이산화탄소와 탄산가스로 생명체 존재성장이 불가능 할때 태양과 광합성하여 이산화 탄소를 자양분으로 하여 스스로 성장하면서 지구에 산소를 만들어 생명의 성장을 도운 지구 최초의 생명체이자 최초의 식품이기도 한 신비의 천연물질이다.
- 세계 선진 20여개의 의과 대학 및 연구소에서 임상 실험한 결과 각종 성인병 불치병의 탁월한 효능을 입증하였습니다.
- 유엔 세계 보건기구(WHO)가 인정
- 필수 이미노산 소화 흡수율이 고기, 콩, 단백질의 5배 이상
- 하루 우유 5배의 칼슘 당근 10배의 베타카로틴 두부 8배의 단백질 시금치 50배의 철분을 한번에
- 우주 식품으로서의 개발 연구가 활발히 진행 미항공 우주국(NASA) 일본 과학 기술청 국제 항공 기술 연구소의 공동연구 및 러시아 케나다 프랑스 등의 선진 국가에서도 활발히 진행 되고있다.
- 당뇨, 골다공증, 위산과다, 위괘양, 변비, 중금속에 의한 신장독 감속
- 고혈압 억제 및 혈압 정상화(칼륨다량함유) 수험생 영양 공급 및 강장작용
- 면역 활성력 향상(항체를 만드는 역할을 함) 노인성 백내장 개선 고엽제 후유증 해독작용



※국내 유명 대학교 저명 교수들이 추천한 자료와 제품을 먼저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 문의처 : 055-247-0919 / 080-700-0881

전립선염 비대증

소변 줄기가 시원하게 나오며 천연 자연 생약이라 인체에 전혀 부작용이 없으며 힘, 자신감이 생깁니다.

※ 40세 이후 부터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는 잔뇨, 빈뇨, 야뇨, 소변후 불쾌감에서 해발될 수 있는 획기적인 천연자연생약

국제 전립선 비대증 자가 진단표

1. 평소 소변을 볼때 다 보았는데도 소변이 남아 있는것 같이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까
2. 평소 소변을 보고난 후 2시간 이내 다시 소변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까
3. 평소 소변을 볼때 소변 줄기가 끊어져서 다시 힘주어 소변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까
4. 평소 소변을 볼때 참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까
5. 평소 소변줄기가 약하거나 가늘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6. 평소 소변을 볼때 소변이 금방 나오지 않아서 아랫배에 힘을 주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7. 평소 잠을 자다가 (특히 야간에) 소변을 보는 경우가 하루 밤에 몇번 있습니까

● 문의처 : 055-247-0919 / 080-700-0881

관 절 염

북한산 범벼 약술

1년에 한번 소량의 생산만 되고 있는 범뼈 약술은 북한에서도 고위 감부들만 복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탁월한 효과 때문에 구할수 없었기에 먹지 못했습니다.
1주일만 복용하셔도 놀라울 정도 입니다.

효 능

류마치스 관절염, 팔다리 마비, 여러가지 신경통, 소화기능장애 약해진 생리적 기능, 소모성 질병에 씁니다.

중환자 부터 우선 순위를 드리고자 합니다.

● 문의처 : 055-247-0919 / 080-700-0881

그린벨트 전통사찰 건축규제 완화

국민고충처리위 건교부에 개선권고

개발훼손 부담금 감면대상 사찰 포함
종교시설 증개축 면적 대폭상향 필요

그동안 까다로운 법 적용을 받던 그린벨트 내 전통사찰의 원형복원을 위한 건축행위 및 사찰진입로 개설, 주차장 설치 등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심의결과가 나왔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지난 9일 조계종 총무원에 보낸 공문에서 "전통사찰보존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원형복원을 위한 건축행위 및 기타 행위제한 사항들을 완화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제도개선 권고안을 해당부처인 건설교통부에 통보했다.

이번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안은, 그린벨트 내 전통사찰이 행위제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조계종의 민원을 수용한 것이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결의한 내용은 크게 세 가지. 우선 '개발제한구역 내 전통사찰의 종교시설 신축 및 개발훼손부담금 문제'와 관련해,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 및 토지형질 변경이 가능한 대상을 주택, 근린생활시설, 공익시설 등으로 제한하고 있는 실정법에 사찰도 포함시켜야 하며, 개발훼손부담금의 감면대상이 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그 이유로 전통사찰의 경우 종교시설인 동시에 공익시설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명시했다.

'개발제한구역 내 전통사찰의 진입로 및 주차장 설치'와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전통사찰이 진입로를 별로도 마련하지 못해 신도들의 신행활동에 지장을 줄뿐만 아니라 내방객들에게도 큰 불편을 주고 있어 관련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내 종교시설의 증축면적 상향조정'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76년) '연면적이 150㎡ 미만인 경우 기존의 연면적을 포함해 300㎡까지 증축할 수 있다'는 건축법 시행령 조항을 '250㎡ 미만인 경우에는 기존의 연면적을 포함해 500㎡까지 증축할 수 있도록 한다'로 상향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개발제한구역 내 종교시설에 대한 증축 범위가 다른 시설과 비교할 때 현저히 낮아 적정한 수준으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건설교통부 정 상 담당관은 "권고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뒤 방침을 정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 1면에서 계속

또 문화관광부 박문석 차관은 축사에서 "이번 전시가 불교미술의 전통을 창조적으로 계승함과 동시에 부처님의 심오한 가르침을 예술의 세계로 승화시켜 나가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개막식 행사에는 윤산(태고종 총무원장), 홍파(관음종 총무원장), 법장(수덕사 주지), 광우(전국비구니회 회장), 김해근(월반종 총무원장), 동광(청담문화재단 이사장), 원택(조계종 총무부장), 고경(송광사성보박물관장)스님, 서돈각(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 이남기(공정거래위원장), 송석구(동국대 총장), 전성우(간송미술관장), 김종규(한국박물관협회장), 유준상(서울시립미술관장), 이태길(광주시립미술관장), 김복희(김복진 선생 조카딸), 정인악(동국대불교대학원 총동창회장), 이수덕(불교TV 사장), 김규창(불교방송 사장), 김광삼(현대불교신문사장) 등 불교계와 미술계 인사 200여명이 참석했다.

전시는 28일까지 계속되며, 경주(선재미술관, 11.2~11.9) 속초(속초문화회관, 11.22~12.1) 여수(여수문화회관, 12월초) 순회전시회도 열린다.

이은자 기자 eleel@buddhapia.com



◇북한산관통도로 반대 서명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불교 단체장들.

북한산 관통도로 반대 100만인 서명운동 돌입

불교계가 북한산 관통도로 반대를 위한 1백만인 서명운동을 벌인다.

전국강원연합회, 서울광역신도회, 대불청, 교수불자연합회 등 41개 불교 단체들은 17일 조계종 총무원 1층 불교회관에서 '북한산 관통도로 반대 1백만인 서명운동 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 출범식을 가졌다.

이날 출범식에서 추진본부는 "12월까지 불자와 일반인을 상대로 서명운동을 전개해 북한산 관통도로 건설의 부당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겠다"고 밝혔다.

추진본부는 앞으로 전국 사찰에서 북한산 관통도로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는 한편, 북한산 관통도로의 문제점을 알리는 현수막과 포스터를 부착하는 등 시민홍보에 적극 나선다. 또한 전국강원연합회 소속 스님들의 거리서명 운동, 사이버 서명운동도 전개한다.

한편 공구, 인원, 경비 문제 등으로 무산됐던 북한산 관통도로 노선조사위원회 첫 모임이 24일 오후 5시 서울 올림피아호텔에서 열린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 12월 말로 예정된 노선조사위 활동기간 연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조계종 공동대책위, 불교환경연대,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 건설교통부 관계자들은 14일 건교부회의실에서 모임을 갖고 △노선조사위원회 조사구간은 4공구를 대상으로 하고, 위원회 필요에 따라 연계구간의 답사 등을 실시 추진 △위원회에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합의된 사항에 대한 조사비 등은 사업시행자 측에서 부담하는 방안 검토 △사업시행자측 노선조사위 1인 배제 등에 대해 합의했다.

강유신 기자 sharmok@buddhapia.com

"가르침 되새겨 한국불교발전 매진"

청담스님 탄신 100주년 기념 도선사 대법회 3천 여명 참석



◇청담스님 탄신 100주년 기념대법회가 15일 도선사에서 3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청담 큰스님 가르침을 되새겨 한국불교 발전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조계종 총무원과 청담문화재단은 15일 도선사에서 조계종 원로의원 석주, 성수스님을 비롯, 총무원장 정대스님, 종회의장 지하스님과 김수환 추기경, 박문석 문화부 차관, 한화갑 민주당 대표, 이상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등 3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담대종사 탄신 100주년 기념대법회'를 봉행했다.

법어 경전강설 묶은 전집 6권 · 논총 봉정

이날 법회에서는 혜정스님과 현성스님이 〈청담 대종사와 현대 한국불교의 전개〉 기념 논총과 청담 대종사 법어와 경전 강설을 묶은 6권 전집을 청담스님 영전에 봉정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은 법어를 통해 "청담스님은 1600년 한국불교를 새로 세우시고 오늘의 조계종 출범과 기틀을 만드신 분이다"며 "부처님 법대로만 살자고 하시던 청담스님의 가르침을 다시한번 되새기며 한국불교의 나아갈 길과 마음을 밝히는 일에 더욱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도선사 주지 혜자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추화돌은 대종사님 탄신 100주년을 맞아 그 사상과 행적을 반추하고 정화이념을 되새기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며 "스님께서 남겨주신 인욕과 참회의 가르침을 더욱 굳건히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종교협의회 창립에 함께했던 김수환 추기경은 축사를 통해 "스님은 항상 자상하고 솔직하셨다"면서 "스님이 펴신 법은 불교정화 뿐 아니라 인간존재의 의미와 삶 그 자체였다"고 회고했다.

정부대표로 참석한 박문석 문화부차관은 "큰스님께서 펴셨던 호국참회불교사상은 오늘날 국민의 정부가 통일이념을 펴는데 도움이 됐다"며 "호국사상에 바탕한 스님의 불교이념은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법회에 이어 도선사는 청담기념관 개관식을 개최했다. 기념관에는 청담스님이 생전에 사용하던 수첩과 손가방, 벼루와 먹, 붓, 육환장 등 스님의 유품과 휘호, 편지 등이 전시됐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청담 큰스님은 영원한 구도자"

김수환 추기경 회고

청담스님은 분명 깨달음의 경지에 이른 큰스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결코 그것으로 만족하고 거기에 머무신 분이 아닙니다. 그 분은 영원한 구도자였습니다.

저는 청담스님을 1968년에서 1971년 열반하시기 전까지, 이른바 종교간의 대화 자리를 통해 여러차례 뵈올 수 있었습니다.

30여년이 흘렀지만 청담스님은 잊을 수 없는 깊은 인상을 저에게 남기셨습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진리를 탐구하고 깊을 찾는 인간의 진실된 모습입니다. 그분이 구한 진리를 찾는 길은 한국불교의 교단정화 이상의 그 무엇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한국인, 아니 인간이 마음속 깊이에서 찾고 있는 삶의 의미, 참사랑과 참생명, 바로 존재와 생명의 근원 그 자체였다고 생각합니다.

청담스님이 불교정화에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셨는지는 저를 찾아 오셔서 가톨릭에서는 수도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사제양성은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물으셨을 뿐 아니라 친히 수도원과 신학교를 찾아가시기까지 한데서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청담스님을 회고하는 김수환 추기경

불자의 생각

금주의 주제: **불교 왜곡 방송**

1. 불교교리나 스님을 왜곡 비하 하는 방송이 끊이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① 불교에 대한 몰이해 ② 흥미위주의 편성
③ 심의 절차의 부재 ④ 기타
2. 불교 왜곡 비하 방송을 줄이려면?
① 모니터 활동 ② 방송 관계자의 불교이해
③ 시법 대응 ④ 방송법 관련 조항 강화

설문 참여: 10월 24일까지 buddhanews.com에서 참가하세요. 푸짐한 경품이 기다립니다. 설문결과는 현대불교 393호 A판 8면에 싣습니다.

제보받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이 보다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제보창구를 상설하고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화할수록 좋겠다고 생각되는 사안이나 관련 사진, 비디오 사진 등에 대한 취재요청은 물론, 각종 불사나 모임에 관한 소식도 좋습니다. 제보 가운데 불교발전의 기사로서의 가치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02)732-4162 buddhanews.com



꿈을 ★ 이루십시요!

정신력을 키우고 기워 나간다면 귀하의 꿈도 현실이 됩니다.

진정한 부유함 / 건강 / 성취 그것은 이미 꿈이 아닙니다.

실지한 강력한 프로그램 아바타 체험해보십시요.

귀하의 소중한 꿈들을 이루십시요!

해산아바타 센터 011) 606-1976 www.haesanavatar.com
세이아바타 센터 02) 782-0022 www.sayavatar.com

봉 조국통일염원 아미타불 괘불점안 법회 행

우주법계와 삼라만상은 일체진여를 깨닿코져 대승종에 인연하여
나라의 염원인 남북화해와 조국통일을 위해 아미타불 괘불을 봉안하노라.
일천만 불자들이여~
무릇 때를 아는 자는 보살의 동체대비를 이루리라 하였노니
괘불점안 복전에 무루동참하시어 그 인연공덕으로 큰 복을 지으시고 세세생생토록 평안하시라.

■ 일 시 : 2002. 10. 25. 금요일 오전 11시 ■ 장 소 : 서울 강북구민회관 대공연장

■ 주 최 : 사단법인 대한불교 대승종 ■ 주 관 : 대한불교 대승종 총무원
■ 후 원 : 대승종 전국 지방종무원, 대승종 포교사단 방범기동순찰대, 대승종 전국 신도회 ■ 협 찬 : 현대불교신문사

대한불교 대승종 총무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1동 186-19 TEL : 031)448-8811



◇지율스님 등 내원사 선방 수좌들과 분도수녀회 소속 수녀들은 경부고속철 금정산 천성산 관통반대를 위해 14~18일 경부고속철 구간을 도보 순례했다. 사진은 억새로 뒤덮인 천성산 화엄벌을 지나는 순례단. 사진=천미희 기자

"자연보존은 우리모두의 사명"

비구니스님들과 수녀들, 금정·천성산 구간 도보순례

경부고속철관통반대 목소리 결집

부산시청앞서 18일 회향

내원사를 출발, 가파른 천성산 산길을 오른지 2시간여. 억새로 덮힌 화엄벌이 펼쳐지자 "와아"하는 외마디 탄성이 터져 나왔다.

17일 경부고속철 금정산 천성산 관통반대에 앞장서고 있는 지율스님등 수좌스님들과 함께 화엄벌에 오른 분도수녀회 8명의 수녀들은 억새로 뒤덮힌 능선을 따라 걸으며 천성산의 아름다움에 넋을 잃었다. 이들의 감탄은 밀밭늪, 법수(法水)계곡으로 이어진 0`날 산행 내내 그칠 줄을 몰랐다. 경부고속철 금정산 천성산 관통 반대를 위해 경부고속철 구간을 따라 걸어온지 4일째. 14일 범어사에서 발대식을 가진 이후 이틀 동안 금정산을 따라 걸었고, 16일에는 임기리 공사현장 방문, 울산시청앞에서 집회와 서명운동을 가진후 내원사에 도착했다.

17일 아침, 내원사를 출발하기전 주지 혜등스님에게 이해인 수녀의 시에 곡을 붙인 노래로 인사를 대신했던 수녀들은 원효대사가 1천명의 대중을 모아놓고 화엄경을 설했다는 화엄벌에서도 천성산의 아름다움을 찬탄하는 찬송가를 불렀다. 에녹스 유기서원 담당 수녀, 데오포로스, 베라, 돌로레스 수녀 등에 의해 화엄벌에 고요히 울려퍼진 노래는 원효스님이 89곳에 흩어진 대중들을 향해 울렸다는 금북(金鼓)의 장중한 소리가 되어 천혜의 자연을 파괴하려는 고속철도공단의 어리석음과 무모함을 꾸짖고 있었다.

천성산을 수백번 오르내린 지율스님의 알뜰한 설명과 함께 8시간 동안 이어진 산행에서 수녀들은 "아름다운 자연을 보존하는 일, 그것이 우리 모두의 사명임을 오늘 이 길을 걸으면서 생생하게 느끼고 체험하게 되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부산에서 왔다는 등산객은 스님과 수녀들이 함께 한 산행에 호기심을 보이며 "어떠한 이유든 이렇게 아름다운 산을 헤치면 안된다"며 스님과 수녀들을 향해 격려의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수녀, 내원사 선방스님 등이 함께 한걸음 한걸음은 경부고속철 금정산 천성산 관통 반대에 종교계와 시민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결집하는 값진 의미를 가지며 18일 회향됐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봉은사에 대형 시민선방

12월 개관 문화센터 8년만에 완공

강남 봉은사 '봉은문화센터'가 8년의 공사 끝에 준공식을 갖는다.

봉은사와 (주)대우건설은 11월 7일 오후 2시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 이명박 서울시장, 권문용 강남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봉은문화센터 준공법회를 갖는다.

12월경 개관예정인 봉은문화센터는 총공사비 306억9천만원을 들여 연면적 5,666평 규모(지하4층 지상3층)로 건립됐다. 지하1층은 전시실, 지하 2~4층은 주차장, 1층은 회의실 및 강당, 2층은 공연장 및 문화교실, 3층은 회의실 및 선방으로 사용된다.

특히 봉은사 경내와 직접 연결되는 3층 선방은 기존의 봉은선방이 이전돼 새벽4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불자 및 시민 수행공간으로 개방된다. 선방에서는 주1회 입문자 대상 기초참선교육 및 월1회 외국인대상 영어참선강좌, 월1회 선원장 법문 및 상담 등 열린 수행상담 프로그램이 실시될 계획이다.



◇11월7일 준공식을 갖는 봉은문화센터. 전시실, 시민선방, 공연장 등을 갖췄다.

또 불자교육을 위한 오계학교와 기초문화예절학교, 시민문화강좌 등이 다양하게 개설된다.

주지 원혜스님은 "봉은사가 원래 선도량인 만큼 문화센터 개관과 함께 시민선방을 열어 지역포교에 앞장설 계획"이라며 "사찰주변일대를 시민들의 쉼터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사찰토지개발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는 취지에서 출발한 봉은문화센터 건립은 1995년 8월 (주)대우건설이 착공했다. 문화센터는 봉은사가 직접 사용하는 3층 150평 선원과 200평 실외광장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은 대우건설이 10년간 직접 운영한 뒤 봉은사로 기부체납된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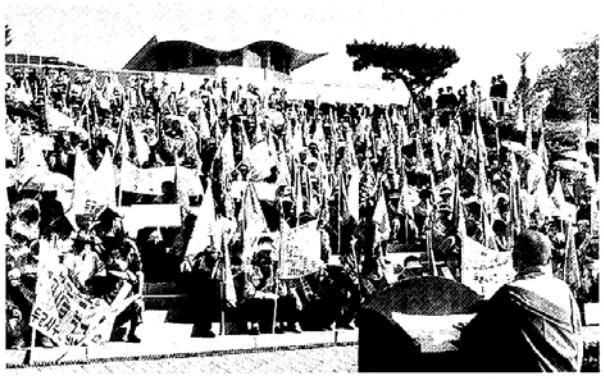
"고령화사회 진입대비 수발보험 운영 필요"

김근홍 교수 주장

한국사회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치매 등 만성적 노인질환 치료를 위한 '수발보험'을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근홍(강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4일 서울시립노인요양원이 개최한 학술세미나에서 "2020년 한국인 평균 수명이 80.8세를 넘을 전망이기 때문에 노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수발보험 등 장기요양 프로그램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수발보험은 독일에서 최초로 도입해 운영하는 제도로, 의료보험 등 공공급여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치매 등 만성적 노인질환 치료비용을 집중 지원하기 위한 것.

또한 김 교수는 "가정집에 거주하는 노인 수발을 위한 가정봉사원 파견, 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간호 사업 등 서비스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노인 요양 서비스를 담당할 보건의료 인력과 사회복지사, 전문간병인력, 사례관리자 등 복지인력의 안정적 수급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강유신 기자



◇무궁사 수호대책위원회는 16일 부산 기장군청 앞에서 무궁사 수호 부산불교도대회를 열고 부산~울산간 고속도로공사 중단을 촉구했다.

무궁사 수호 부산불교도 대회

"부산~울산 고속도 중지, 수행환경 보호를"

부산~울산간 고속도로 건설로 심각한 수행환경 파괴와 사찰 존립자체를 위협받고 있는 부산 기장 무궁사(주지 대한)가 16일 기장군청 앞에서 무궁사 수호 부산불교도대회를 개최했다.(본지 390호 4면 기사참조)

이날 법회에서 무궁사 주지 대한스님은 "40여년 동안 기장군 불자들의 정신적 귀의처가 되어온 무궁사를 지키기 위해 온 힘을 결집해 나가자"고 호소했다. 특히 이날 결의문을 통해 지역환경 파괴와 수행환경 파괴를 막기 위해 부산시와 기장군청이 나서줄 것과 자연을 훼손하고 불교의 수행환경을 파괴하는 도로공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통도사 총무과장 용운스님은 "도로공사측은 공사 중지 및 이전 비용 보상 등 합의를 통한 문제해결에 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철마선원 난입자 징역3년

북한산 철마선원에 난입해 농성자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법수호회측 전직 승려들과 경비용역회사 간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형사2단독 박인식 판사는 11일 정법수호회 회장인 전직 승려 김모(50)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김 피고인과 함께 농성장 난입을 주도한 정법수호회 회원 유모(69), 추모(46) 피고인과 경비용역회사 임직원 4명 등 나머지 6명 모두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남동우 기자

교통안전 표어·수기 동화사, 입상자 발표

동화사는 10일 교통안전 표어 및 수기 입상자를 발표했다.

최고상인 건설교통부장관상에 최규하(포항중앙고등학교 2년)군과 장다정(대구불로초등학교 4년)양을 비롯 총 82명이 조계종 총무원장상, 대구 교육감상을 받았다.

시상식은 동화사 개산기념일인 27일 오후 2시 30분 동화사 봉서루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원구 기자

대구 경찰포교 활성화 추진

대구경승지단 "태고·천태종 스님 경승추천"

대구경승지단(총재 지성, 동화사 주지)은 16일 경승간담회를 갖고 침체된 대구지역 경찰포교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동화사 포교국장 진오스님은 "천태종 태고종 스님들도 경승으로 추천, 대구경승단 조직을 새롭게 정비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망월사 주지 동진스님은 "앞으로는 대구경찰청의 경승실은 동화사, 사원련, 진각종 등에서 각 1인씩 추대하자"는 의견을 개진했다.

지정심인당 상원정사는 "각 경찰서에 진각종 정사를 1인 이상씩 파견하는 등 경승업무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대구경승지단 총재 지성스님은 "경찰포교를 위해 동화사에서 다양한 목적사업 진행을 위한 기금마련에 나서고 있으며 포교기금이 확충되는 대로 경승단에 대한 지원을 늘려 여러 경승활동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원구 기자

남북청년·여성 통일대회 불교계서 모두 14명 참가

6.15 남북 공동선언 실천과 평화를 위한 남북청년학생통일대회와 남북여성통일대회가 각각 13~14일, 16~17일 금강산에서 열렸다.

불교계에서는 대한불교청년회 김규범 회장을 비롯한 9명, 대학생불교연합 박문수 회장 등 4명, 한국여성불교연합 김묘주 회장 등 모두 14명이 참가했다.

'남과 북 해외 청년학생 통일대회'에서 대한불교청년회 김규범 회장은 개막연설을 통해 "6.15 공동선언은 그 어떤 정치 협상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 민족 자주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이정표이며 통일강령"임을 강조했다.

분단 후 처음으로 남북의 각계 여성 대표들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모색하기 위해 열린 '6.15 공동선언 실천과 평화를 위한 남북 여성통일대회'에서 대표단은 공동결의문을 통해 '민족구성원의 절반인 여성이 통일과정에 함께 참여해 통일운동의 주체로 나서며 전쟁 방지와 평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펼칠 것'을 다짐했다.

여수령 기자

봉 대한불교조계종 삼화불교 창종법회 축

국가기관 등 고유번호 204-82-62512

第1章 宗名 및 宗旨

第 1條 本宗은大韓佛敎曹溪宗 三和佛敎이라 稱한다.
本宗은 新羅 道義國師가 創建한 迦智山門에서 起源하여 高麗普照國師의 重闡을 거쳐 太古普愚國師의 諸宗包攝으로서 曹溪宗이라 公稱하여 而後 그 宗脈이 綠綠不絶조계종 삼화불교한 것이다.

第 2條 本宗은 釋迦世尊의 自覺覺他 覺行圓滿한 根本敎理를 奉體하며 直指人心見性成佛 傳法度生함四分律을 宗旨로 한다.

◆일 시 : 불기 2546년 10월 25 금요일 (음력 : 9월 20일) 오후 2시
◆장 소 : 하림각 전화 (02)396-2442
[서울 종로구 부암동 188번지 청와대 세정검정로타리]
◆주 최 : 대한불교 종단진흥회, 대한불교 종정협의회
◆후 원 : 불교 TV, 불교방송, 교계 각 신문사,
대한불교조계종 삼화불교 전국신도협의회

◎장로원 : 법 종(法宗), 송 산(松山), 왕 천(王天), 혜 경(慧京)
송 파(松坡), 법 련(法蓮), 도 일(道日)

◎율원장 : 律 山
선원장 (방 장) : 월 하(月下) 일 허
역경원 (학림원장) : 법 종(法宗) (교육; 포교)

총무원장 혜 인(慧印) 기획실장 금 당
종회의장 송 산(松山)

총무부장	혜 만(慧卍)	총무국장	법 해
기획부장	동 산(東山)	국 장	혜 심
재무부장	혜 관(慧觀)	국 장	대 도
교무부장	법 정(法貞)	국 장	민 광
감찰원장	법 련(法蓮)	국 장	태 함
사 회 부	초 산(草山)	국 장	진 호
포교부장	정 산(正山)	국 장	인 해
교육부장	원 명(圓明)	묘 화, 혜 정	

서울종무원	동부 - 대 도(大道)
	서부 - 태 함
경 기 도	동부 - 성 관(成觀)
	서부 - 법 정(法貞)
강 원 도	성 인(性印)
충청남도	보 광(普光)
충청북도	동 산(東山) 혜 원
전라북도	정 산(正山) 법 성
전라남도	혜 월(慧月)
경상북도	혜 관
경상남도	무 원(無圓) 혜 명
제 주 도	효 문, 남 산

삼화불교대학 학 장	혜 인	한국종교신문 사 장	법 성
총무처장	혜 만	발 행 인	혜 인
교학처장		편 집	동 산, 정영석
학생처장	손영진	주 간	김점주
조 교	정금옥	교 정	조 일
	김점주	송 달	삼 주
총 무	조 일	기 자	현욱, 최훈, 성훈, 윤기순
전국신도회장	서진수		

종 회 의 원

법 종(法宗), 송 산(松山), 왕 천(王天), 혜 명(慧命), 송 파(松波), 법 련(法連), 혜 인(慧印), 태 함(太合), 무 원(無圓), 행 록(行綠), 도 성(道性), 혜 종(慧宗), 성 관(成觀), 현 성(現性), 봉 선(奉先), 법 정(法貞), 각 원(覺圓), 혜 은(慧恩), 혜 관(慧觀), 현 경(現京), 송 광(松光), 월 성(月性), 법 련(法連), 금 당(金堂), 남 산(南山), 보 광(普光), 무 광(無光), 혜 만(慧卍), 도 월(道月), 성 인(性仁), 도 운(道雲), 인 해(仁海), 명 광(明光), 혜 광(慧光), 혜 명(慧命), 혜 성(慧性), 삼 화(三和), 법 인, 성 담, 덕 산, 혜 각, 혜 원, 남 산, 중 산, 송 산, 중 비, 련 성, 인 공, 해 인, 지 산, 가 산, 일 광, 원 각, 일 화, 금 화, 혜 천, 각 원, 본 각, 동 산, 법 성

◆本 寺 : 서울특별시 삼각산 해인사 ◆총 무 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511-5 ◆대표전화 : 02)511-1080, 511-2026, 2027 팩스 : 02)511-2028


2003년 달력 주문 받습니다
미리 주문하세요! 불교사진작가의 작품으로
만든 달력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합니다.(32종)
마하몰 02)732-1520
http://www.mahamall.co.kr

71國서 온 1만 불자 세계평화 발원



◇13일 달라이라마가 '만다라의 집'을 향해 경전과 계송, 진언을 염송하면서 칼라차크라 준비의식을 집전하고 있다. 달라이 라마는 하루 3시간30분씩 설법하며 칼라차크라 입문에 필요한 참가자들의 덕성 함양을 위해 원력을 쏟았다.

칼라차크라 대법회 오스트리아서 열려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가 주재하는 '세계평화를 위한 칼라차크라 입문' 행사가 오스트리아 스타이리아주 그라즈(Graz)시에서 12일부터 22일까지 12일간 거행됐다.

71개국 1만여 불자와 평화주의자들이 참석한 이번 '칼라차크라 입문(Kala chakra Initiation: 時輪密 入門)' 행사는 티베트 밀교 최고의 법회로서, 세상의 갈등을 줄이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려는 불자들의 정신적인 에너지를 모으기 위해 열렸다.

달라이 라마에 의해 매년 개최되는 세계 최대 불교 의식의 하나인 칼라차크라는 범어로 시간(Kala)과 바퀴(Cakr)의 합성어, '영원한 시간의 수레 바퀴'라는 뜻으로, 전 세계 티베트 불교 신도의 기도와 염원이 실려 있다.



◇그라즈시 시립회관에 마련된 대회장에서 불자들이 달라이 라마의 설법을 경청하고 있다.

달라이라마 "전쟁은 시대착오적 발상"

만다라 친견·장수관정 의식으로 회향

미국의 뉴욕, 로스앤젤레스, 시드니에서 개최된 후 유럽에서는 리몬과 바르셀로나에 이어 3번째로 열린 이번 행사를 위해 오스트리아 스타이리아주 왈프라우드 크라스닉 지사와 그라즈시의 알프레드 스팅글 시장은 1만2,000㎡ 규모의 새로운 시립회관을 건립하는 등 적극적인 후원에 나서 대회가 원만히 봉행됐다.

11일 대법회에 앞서 기자회견을 가진 달라이 라마는 미국 의회에서 이라크와의 전쟁을 지지하는 입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 조지 부시 미 대통령에게 장기적으로 전쟁은 더 많은 폭력을 초래한다는 것을 경고하고 대화를 통해 이라크와 분쟁의 해결점을 찾을 것을 제안했다.

달라이 라마는 "다른 사람들을 살상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과 같다. 전쟁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현대 국가들의 정치와 경제는 대단히 상호 의존적이며, 전세계를 지배하는 정복자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달라이 라마는 이어 14일 그라즈대학이 수여하는 2002년 인권상을 받았으며, 16일 그라즈시 의회에서 베스트 셀러 〈티베트에서의 7년〉(1997년 브래드 피트 주연으로 영화화)의 저자 하인리히 하러에게 공로상을 수여했다.

그라즈대 인권상 수상식에서 달라이 라마는 "그라즈대학 인권 상은 인권의 향상을 위해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격려"라며, "인간의 가치 증진과 종교간의 화합을 위해 모두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12일부터 준비의식과 설법이 시작된 칼라차크라 대법회는 달라이 라마의 법문이 하루 3시간 30분씩 3일간, 티베트 불교 5대 종파 대표들의 설법이 6일간 계속됐다. 13일 티베트 토속종교인 본(Bonpo)교의 텐진 남닥 린포체에 이어 14일 닝마(Nyingma)파의 서첸 라브잠 린포체, 15일 사캬(Sakya)파의 사캬 트리진 린포체, 16일 카규(Kagyu)파의 드리룽 첫상 린포체, 17일 달라이 라마가 속한 최대 종파인 겔룩(Gelug)파의 리종 린포체가 잇달아 설법에 나서 종파간의 화합을 과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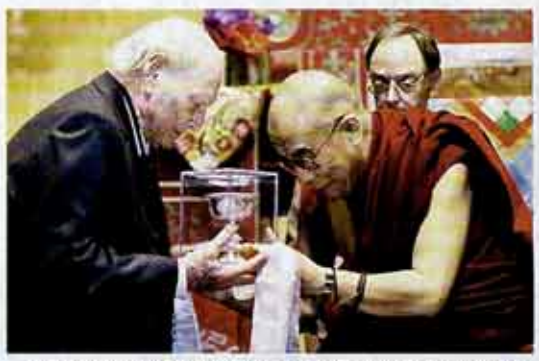
준비의식과 고승들의 강연회에 이어 마지막 3일간 달라이 라마의 칼라차크라 입문행사가 하루 4시간씩 진행됐다.

22일 모래로 조성한 칼라차크라 만다라의 천견및 해체의식에 이어 달라이 라마의 장수관정(長壽灌頂)과 장수기원 법회를 통해 참가자들은, 우주와 인간을 관통하는 자비심을 체험하고 이를 지구촌에 회향할 것을 발원했다.

글=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사진= 'Kalachakra Graz 2002 조직위' 제공



◇달라이 라마는 14일 그라즈대학이 수여하는 2002년 인권상을 수상했다.



◇달라이 라마가 16일 그라즈시 의회에서 등반가이자 베스트셀러 〈티베트에서의 7년〉의 저자인 하인리히 하러(90세)에게 공로상을 수여하며 50년만의 재회를 기뻐하고 있다.

◇'칼라차크라 그라즈 2002' 로고.



◇칼라차크라 불상.



◇칼라차크라 만다라.



◇가는 모래로 만다라를 조성하는 스님들.

이준 교수 참관기



지난 1월 인도 보드가야에서 열린 칼라차크라 입문 행사에 참석한 바 있는 필자는 당시 달라이 라마의 갑작스런 병환으로 법회가 중단됐지만, 불교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여는 계기가 되었다. 12일 오스트리아 현지에 도착해 참가한 이번 '2002 그라즈 칼라차크라(時輪密) 입문(入門) 행사'는 보다 가까이서 달라이라마의 법문과 원력을 듣고 보게 돼 생동하는 티베트 불교의 힘을 느낄 수 있었다.

입재식부터 7일간은 '입문'을 위한 준비단계였다. 달라이 라마 성하와 다람살라 남걀사원 의식팀이 준비의례를 계속하는 한편, 참가자들을 칼라차크라 밀교에 입문할 수 있도록 덕성을 길러 근기를 고양시키기 위해 티베트 불교 5대 종파 고승들의 설법과 달라이 라마의 법문이 계속됐다.

12일엔 하루 종일 준비 의례가 봉행됐다. 만다라를 조성할 '만다라 하우스' 안 바닥에 달라이 라마가 직접 앉아 공성(空性)의 지혜와 관련된 반야부 8000송(頌)을 낭송하며 지방정부에 그 땅의 사용을 고하고, 그 땅의 호법신장들께 허락을 구하는 의식은 보기만 해도 거룩했다. 이어 호법륜(護法輪)을 지어 사악한 기운을 몰아내고 공성에 의한 명상의 힘으로 불보살을 모셔와, 축복을 받는 의식을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조용히 앉아 의례를 참관하며 명상과 기도에 들었다.

13일에는 칼라차크라 만다라 즉, 칼라차크라 본존과 722존상이 주석하는 궁전을 세우는 작업이 계속됐으며, 14일에는 만다라 제작팀이 가는 모래로 칼라차크라 본존이 계실 중앙부분부터 만다라를 조성하기 시작했다. 아침부터 종일 열정적으로 의례를 주관하는 달라이 라마를 옆에서 지켜보니, 마치 금강신(金剛身)을 지닌 듯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이 열정적인 면이 인상적이었다. 성하께서는 15~17일 하루 3시간30분씩 크고 낭낭한 목소리와 특유의 설득력있는 어조로 시종일관 진지하게 강의했다. 18일에는 티베트 불교의 춤 공양이 있었으며, 19일부터 3일간 입문 행사가 하루에 4시간씩 달라이 라마에 의해 진행됐다. 22일 회향일에는 만다라를 친견하고 해체하며, 밤에 장수관정(長壽灌頂)과 장수기원 행사로써 인류평화를 발원하는 대법회의 막을 내렸다.

외형의 칼라차크라인 우주와 내면의 칼라차크라인 육신을 정화하는 방편인 칼라차크라 법회는 공(空)과 보리심, 자비심을 바탕으로 한 거룩한 서원의 현장이었다. 깊은 명상 속에서 만다라를 조성하며 우주적인 에너지를 형상화하는 의식을 통해 세계 평화를 발원하는 이러한 법회를 보면서 전세계가 전쟁과 갈등, 불화가 없는 평화롭고 자비심이 가득한 정토가 되기를 함께 기원했다.

<교수불자연합회 명예회장>

7일간 入門준비 티베트불교 5종파 대표 설법

空·자비심 바탕 거룩한 서원 현장에 환희심

현 시대의 병은 어디에서 왔느냐?



천지기운이 돌아가는 법칙을 알아야 세상의 시대 변화를 알겠으니...
오랜세월 산사에서 토굴을 짓고 살면서 동양철학, 운기학(運氣學), 민간 약초만 연구하여온 삼정스님 시대가 변하면 병도 변하고 그시대에 따라 먹는 음식도 약도 변해야 된다고 한다. 현대의 병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공기, 수질, 농약, 중금속오염 등 각가지 공해와 오염의 독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온 일류가 자연의 법칙을 거역한 죄로 예전에 없던 각가지 중병을 앓으며 죽어가고 있다. 이 가공할 죽음의 질병들 앞에 우리인간은 완전 무력하다. 옛날 의서에도 세상이 변하는데로 약을 쓰라고 했다. 지금은 화(火)의 기운이 성한 시기다. 〈음양오행의 화(火)〉
모든게 불 세상이다. 신경성 질환, 당뇨, 혈압, 암등 각종 장기의 염증등 전체가 화에서 일어난 병이니 불을 끄려면 자연의 이치상 물을 부어 불을 끄는 이치와 같으니 오염의 독을 해독하고 나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켜 스스로 병을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정스님은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 기혈(氣血)이 원만이 행기(行氣), 활혈(活血)하고 정심(正心), 삼합일이 되어야 건강한 정신, 건강한육체를 가지게 된다하여 삼정단이라 이름을 붙여 각가지 병들로 인하여 체질이 허약하고 신체의 리듬이 깨져 온갖 성인병으로 몸이 쇠약하여 고생하시는 분을위해 삼정스님은 우리 나라 깊은 산속에서 자생하는 석남엽, 구지뽕나무 등 각가지 열매나 뿌리를 어렵게 법제과정을 거친 그 결실을 불자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인병의 신효한 三淨丹(삼정단)

"특히"
- 가슴 위가 답답하고 머리가 자주 어지러운 분, 빈혈, 저혈압, 뇌기능강화
- 얼굴에 핏기가 없고 이유없이 항상 피곤한 분
- 신허로오는 요통, 신장기능 저하증, 소변이 잦으면서 시원하지 않는 분
- 각종 부인병, 손발이 저리고, 냉한 분, 불임증, 산후병, 갱년기 장애
- 뼈가 약하며 각종 신경통, 요통, 골다공증, 관절염, 디스크
- 각종 신경성질환, 간기능저하증, 간염, 간경화

※ 편두통, 기관지천식, 중풍, 당뇨, 암 등 각종 성인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은 개별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문의 : 053-652-3300

일주문



대원정사서 법문

월운 봉선사 조실은 2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한국불교대원회 초청으로 대원정사 법회에서 법문한다.(02)773-9171



선서화 특별 초대전

성각 남해 망운암 주지는 25~11월 3일 부산 국제신문 문화센터 제1전시실에서 소년소녀 가장돕기 선서화 특별초대전을 갖는다.



간병인 대학 개설 · 교육 착수

우학 영남불교대학장은 제1기 간병인대학을 개설하고 28일부터 적십자사와 곽병원에서 이론 및 실습 교육을 시작했다.



용학사 목련관 준공법회

혜봉 이천사암연합회장은 23일 오전 10시 이천 용학사에서 목련관 준공법회를 봉행한다.(031)632-4885



보우국사 탄신 701돌 다례제

회암 경기도 용평 사나사 주지는 26일 오전 10시 30분 보우국사 탄신 701주년 기념 다례제를 봉행한다.(031)772-5182



담양서 '선시명상곡' 공연

지범 제주 불광사 주지는 11월 3일 오후 2시 담양문화회관에서 담양 용화사 초청으로 '선시명상곡' 공연을 한다.



법흥사 일주문 기공식

도완 영월 법흥사 주지는 17일 법흥사 중흥불사를 위한 2차 천일기도, 십만등 불사 및 일주문 기공식을 봉행했다.



올바르게 절하는 법 지도

청견 양평 법왕정사 주지는 23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인사동 마야문화원에서 올바르게 절하는 법을 지도한다. (02)722-1050



천수경CD 5천개 무료 보급

금봉 대구 해인선원 주지는 14일 직접 녹음한 예불과 관음정근, 천수경 CD 5천여 개를 제작, 무료 보급에 나섰다.(053)741-8788



국제 보살계 · 마정수기 대법회

현장 대구 보현사 주지는 28일 오후 2시 보현사 경내에서 세계고승 초청 국제보살계 및 마정수기 대법회를 봉행한다.



화랑부대에 초전법륜상 봉안

혜해 은해사 포교국장은 8일 영천 화랑부대에서 석가모니 부처님과 다섯 제자의 초전법륜상을 조성하고 점안 및 봉안법회를 가졌다.



순국선열 한일 합동위령재

설산 한국불교사회봉사회 이사장은 12일 서울 독립공원 내 독립관에서 순국선열 한일합동 위령재를 봉행했다.



삼존불 개금불사 · 점안식

해원 선교종 해원사 주지는 29일 용인 해원사에서 삼존불 개금불사 및 점안식을 봉행한다.



창립 16돌 기념 연꽃엽서展

정여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회장은 12일 창립 16주년 기념법회와 제1회 연꽃 엽서 시상 및 전시회를 가졌다.



매주 토요일 잠간선방 열어

자우 서울 금강사 주지는 11월 16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금강사 제불보전에서 시민대상 잠간선방을 연다. (02)993-3744



'고은전집' 간행 기념식

고은 시인은 30일 오후 6시 30분 서울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고은전집〉 간행기념식을 연다.(02)745-4823



'자녀교육과 불교' 강연

김종서 서울대 명예교수는 27일 오전 11시 서울 방배동 청룡사에서 '가정에서의 자녀교육과 불교' 주제로 강연을 한다.



'김종직 학술회의'에 참석

조영록 동국대 사학과 명예교수는 15일 밀양시청 대강당에서 밀양문화원 주최로 열린 '김종직 학술회의'에 참석했다.



베를린서 '조각과 드로잉전'

한기늠 조각가는 29일부터 11월 11일까지 베를린 주독일 한국대사관에서 '조각과 드로잉' 초대전을 갖는다.



자제정사 양로원 의료봉사

김주효 전국병원불자연합회장은 46명 회원들과 함께 13일 화성 자제정사 양로원으로 의료봉사를 다녀왔다.

연중캠페인 - 나눔의 손잡기 운동

'후원합시다'

허리 부상… 거동 못하는 가장 엄마

훌훌털고 장사 나서야 할텐데…

내달 28일, 남편의 열일곱 번째 기일이다. 딸 하늘이(17 · 동서울상고 2)를 뱃속에 남겨둔 채 무심하게 세상을 떠나버린 날. 매년 어김없이 돌아오는 날이건만, 아직까지도 아내(최갑원 · 49)는 응어리진 마음을 풀 수 없다.

스무 살 전, 전라도 광주에서 올라와 건설현장에서 심부름을 하다 남편을 만났다. 1년 연애 끝에 혼인신고도 하지 않고 무작정 서울 관악구 봉천동 판자촌에 둥지를 틀었다. 그리고 가졌던 딸 하늘이. 그러나 임신 8개월 째이던 그해 늦가을 남편은 오토바이 사고를 내고 갑자기 세상을 떠나 버렸다.

남편이 떠난 빈자리에 핏덩이 딸아이 하늘이만 바라보며 살겠다고 모두 마다했다. 그러던 가운데, 최 씨에게 뜻하지 않는 불행이 불어닥쳤다. 2000년 겨울, 새벽에 파출부 일을 나가다가 빙판길에 발을 잘못 디뎌 넘어지는 바람에 허리를 크게 다쳤다.

"다치자마자 병원에 곧바로 가야 했어요. 하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하늘이도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하면서 용돈을 벌어 쓰고 있는데, 어떻게 나만 살자고 수술을 받을 수 있겠겠어요?"

최 씨의 요통은 심해져만 갔다. 결국 참다못해 최 씨는 지난해 5월 동사무소의 도움으로 적십자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았다. 허리에 쇠기둥을 4개나 집어넣는 큰 수술이었다. 하지만 수술 결과가 좋지 않았다. 재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게 됐다. 정부에서 받는 40만원 보조금으로 연명을 하고 있는 처지에 엄청난 재수술비는 엄두도 못 낼 부담이었다. 그래서 아예 수술을 포기하고 산다.

파출부 일 나가다 빙판길 낙상… 수술도 허사

정부 보조금으로 연명, 재수술 엄두도 못내



◇"보살님 힘내세요! 하늘이가 있잖아요." 최갑원 씨의 집을 찾은 일광사 청정심 보살이 손을 잡아 주고 있다.

상황이 이러다보니 딸 하늘이에 대한 최 씨의 걱정은 늘어만 간다. 학교가 멀어 통학시간이 많이 걸리는 데다가 밤 12시까지 하는 아르바이트로 비쩍 마른 하늘이를 볼 때마다 마음이 무겁다.

"수술 후에는 건강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대학에 가려고 아등바등 공부하는 하늘이를 보면 빨리 일어나 일해야 한다는 생각만 굴뚝같은데…, 하늘이에게 무슨 죄가 있겠어요. 부모 잘 못 만난 것이 죄라면 죄죠. 남들처럼 그 흔한 학원도 제대로 못 보내고…."

농 위에 놓여있는 저울. 최 씨가 힘겹게 눈짓으로 가리킨다 리어카 행상할 때 썼던 거란다. 최씨는 자리를 훌훌 털고 다시 장사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주소 : 서울 중랑구 신내동 신내임대아파트 1002동 109호

전화번호 : (02)3421-3870

후원계좌 : 새마을금고 0537-09-000164-1(예금주 최갑원)

김철우 기자

"산하학교 교직원 네트워크 구성"

회당학원 신임 이사장 진당 대정사



"회당학원은 앞으로 산하 학교 5백여 교직원들을 한데 묶는 네트워크를 구축, 모든 인적 · 물적 자원을 투명 · 개선 · 생산이라는 경영 원칙에 입각해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14일 경주 위덕대학교 대회의실에서 제18대 회당학원 이사장 취임법회를 가진 진당 정사(사진)는 이렇게 운영 방침을 밝혔다.

진당 정사는 "위덕대학교가 개교 7년만에 명실공히 지역의 중견대학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그동안 회당학원이 벌인 사업들을 평가한 뒤 "법인 조직의 생산 지향적 체질 개선 및 수익창출 모델 개발 등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설립종단과 학교법인 회당학원, 산하 학교가 긴밀하게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법인이 솔선해서 종단과 법인이 하나가 되는 '종학일체(宗學一體) 네트워크' 구성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진당 정사는 △학교 발전기금 조성 △정부 지원금 확보 △우수 교원 선발 및 포상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진각종의 투명한 종무행정 전통에 발맞춰 회당학원 역시 공명정대한 예산집행, 열린 학사행정, 청사입정의 자세 등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한 진당정사는 "앞으로 더욱 견실한 학교법인 회당학원이 될 수 있도록 법인운영의 모든 역량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회당학원은 현재 전국 24개 유치원을 비롯해 4개의 중 · 고등학교, 종합대인 위덕대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열린 학사행정으로 수익 창출 사업 개발

"방송 · 언론인 불자 역량 결집"

언론사불자연합회 정종철 초대 회장



"미창립 언론사의 불자회 창립을 도와 모든 방송 · 언론계에 근무하는 불자들의 역량을 결집시켜 나갈 것입니다."

17일 창립한 언론사불자연합회 초대회장에 선임된 정종철(47 · KBS 인천사업국장 · 사진) 회장은 언론인불자들이 하나된 모습으로 용맹정진하는 모범을 보이겠다고 말했다.

방송사 불자회간 협의체 구성을 시도하다가 실패한 바 있는 전례를 상기시킨 정 회장은 "회원사인 KBS, MBC, SBS, 경향신문 불자회의 활동이 제각각인 현실을 감안하면 방송 · 언론인불자들의 화합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며 "이의 개선을 위해서는 끈끈한 정으로 뭉칠 수 있는 도반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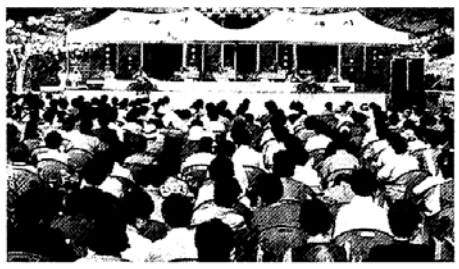
정 회장은 각 언론사내 젊은 불자들의 가입, 타 직장직능 단체와의 교류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미륵종 중앙교육원 개원법회

한국불교미륵종은 15일 경남 언양에서 중앙교육원 개원법회를 봉행했다. 총무원장 송정스님을 비롯 1천여 종도들이 참석한 이날 법회에서 송정스님은 "중앙교육원은 승가와 재가 교육의 장이 될 것"이라며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정법을 펴는 종단으로 발전하겠다"고 말했다.



은해사 1193주년 개산대재

조계종 제10교구 본사 은해사(주지 법타)는 16일 개산 1193주년을 기념하는 보살계 및 만등불사 등을 봉행했다. 5천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개산대재에서 법타스님은 "은해사를 국민들에게 밝음과 희망을 주는 도량으로, 더욱 정진하는 수행처로 키워가겠다"고 말했다.



광주어머니사랑회 10돌 강연회

광주불교어머니사랑회(회장 최순자)는 창립 10주년을 맞아 9일 광주은행 본사 회의실에서 일본 고마자와대학 타카미 타이슈우 교수 초청 강연회를 열었다. '부처님도 본래는 중생이었다'를 주제로 열린 강연회에는 대둔사 조실 천운스님 등 5백여명이 동참했다. 주용직 광주지사장

경명주사로 직접 제작한 불서화의 대가

태광 선사의 행운의 달마 길상도



▷백팔달마 팔문 재수부



▷12띠 수복 달마



▷달마 백복도



▷금본 불자 달마(색상지)



▷불자 반야 심경

* 각종 대한민국 미술대전 공모전, 한국예술상. 대상 및 수상다수. 추천작가 및 초대작가.
* 현, UN IAEWP 한국대표부 문화예술 전문위원.
* 현, 사단법인 대한불교 선각종 문화국장.
* 현, 한국어린이 보호재단 득심사 후원회장

불사 주문 신청 : 국민은행 075-01-0349-506 득심사

전 화 : 02)839-7829

판매금액의 일부는 사회복지법인 한국어린이보호재단 심장병 어린이 돕기에 기증합니다.

환경·승진축하·생일·참선 등 테마법회 인기

"법회 참석이 즐거워요"

직장불교회, 딱딱한 정형의식 탈피
신행활동·회원확대에 긍정적 효과

직장단체들이 틀에 박힌 정기법회 형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형식의 법회를 선보이고 있다.

의식과 찬불가로 구성된 정기법회 보다는 환경, 승진축하, 송별, 생일, 108참회, 정진, 찬불가, 윷놀이, 차량안전기원, 참선 등 테마가 있는 '이벤트' 성 법회들이 자리잡아가고 있다. 기존의 딱딱하고 무거운 분위기에 식상한 직장불자들이 많아, 테마법회는 신행활동의 폭을 넓히고 회원 확대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조폐공사 경산조폐창 금강회는 시기에 맞는 테마법회를 열어 회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정해진 식순에 주제에 맞는 프로그램을 삽입하는 형식으로, 설날과 추석을 전후한 윷놀이법회와 차량안전기원법회, 출가절과 열반절 기간의 '출가에서 열반까지' 정진법회를 열어 큰 호응을 얻었다.

성북승무사무소 법우회가 열고 있는 환경법회는 참회와 '만생명을 위한 불자들의 서원'이 주요 골자가 된다. 법회가 끝나면 사찰 주변의 쓰레기와 잡초를 제거하는 실천까지 곁들여 법회 후 '심청정 국토청정'의 뿌듯함까지 얻을 수 있다.

서울도시철도공사와 서울지하철공사 법우회도 철도청불교단체협의회와 함께 환경을 테마로 걷기대회를 열어 철도불자들의 환경의식 개선을 돕고 있다.

경찰청 불교회는 대한불자가수회 고문 남강수 씨를 초청해 찬불가를 배우며 즐거운 분위기를 이끌어낸다. 찬불가법회를 처음 열었을때는 쑥스러워하던 회원들이 이제는 손꼽아 기다린다.



◇직장단체들이 다양한 테마법회를 열어 회원들을 끌고 있다. 사진은 불자가수 남강수 씨의 지도로 열리는 경찰청불교회의 찬불가 법회.

유명한 서울은행 불교행우회는 정기법회 외에도 매월 한차례 씩 가족이 참여하는 정진법회를 열어, 540배와 천수다라니 49독 등 밤을 새워가며 정진하는 가운데 진한 법우애를 쌓아가고 있다.

국토연구원 불교회는 소모임인 참선반의 지도로 참선을 주제로 한 법회를 연다. 또 산사에서 새벽 별빛 감상을 곁들인 철야정진과 별빛 아래에서 참선으로 자신의 내면을 관조하는 이벤트성 특별법회를 열기도 했다. 국회정각회 직원불교신도회는 회원 중 승진자가 생길 때마다 승진축하법회를 열어 축하하는 기쁜 마음으로 부처님께 예불을 올리고 있다.

소비자보호원 법우회와 행정자치부 불자회, 현대석유화학 불자회 등은 법회 때마다 참회문을 읽으며 108배를 하는 108참회법회를 열고 있다. 108 참회법회는 그동안의 자신의 생활을 돌아보고 참회하며 새롭게 발심하는 시간이 되기에 회원들의 동참이 꾸준하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우리불자회는요

대한중석초경 석불회

94년에 창립해 이듬해 3월 첫 법회를 시작으로 석불회는 대한중석초경(대구시 달성군 가창면 용계리) 불자모임 신고식을 치렀습니다. 올해로 8년째를 맞았으니까 사람으로 치자면 초등학교 1학년 짜리 꼬마지요. 그동안 지도법사도 없이 모임을 운영해 온 현실을 비추어보면 회원들이 대견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3교대로 근무하는 직장생활 때문에 법회에도 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변변치 않은 여건에서도 회원들의 불심은 오히려 깊어지고 있거든요.



◇13일 열린 운문사 순례법회에 동참한 석불회원들이 운문승가대학 강사 일진스님의 법문을 듣고 있다.

매월 최정사서 법회 … 수련회·이웃돕기
IMF때 회원 반감, 똘똘 뭉쳐 위기 극복

스스로 공부하려는 회원들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2명의 법우들이 불교대학을 졸업해 회원들의 기초교리 공부를 돕고 있고, 또 2명의 회원은 동화사 대구포교원 보현사에서 운영하는 대구불교대학에서 열심히 불교를 배우고 있지요.

요즘은 매월 첫째주 화요일을 정기법회일로 정하고 대구 최정사에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매년 두차례의 성지순례와 수련회, 결식아동을 위한 급식비 지원도 하고 있죠. 창립 당시 선배님들과 그동안 꾸준히 활동해 온 법우들에게는 부족함이 많아 부끄럽기만 합니다. 회원이 80명을 넘고 지역 어르신을 초청해 경로잔치를 열었던 당시에 비하면 현재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에는 흥망성쇠가 있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시기가 있었지요. IMF사태를 겪었을 때 회사 운영권이 이스라엘계 기업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회원이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등 위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회원들이 하나로 뭉쳐 더 열심히 법회에 참가하고 회원들이 서로 끌고 밀어주며 이 위기를 벗어났지요. 가끔 그 때를 회상해보면 회원들간 신행생활의 상승효과를 얻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회원 확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회원이 다시 증가해 현재는 60여명이 됐습니다.

솔직히 저는 3년째 회장직을 수행해 오면서 실망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이름만 걸어놓고 활동하지 않는 회원들을 볼 때, 임원진이 열심히 준비한 행사에 회원들의 참여가 저조할 때,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 전 우리석불회를 좀 더 활성화시키고 싶은데 뜻대로 되지 않아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제 공부가 부족해서일까요?

기복불교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해 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데 너무나 힘이 듭니다. 종단에서 형식에 치우친 포교나 교육 보다는 실제로 불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임갑수 회장(Roll과)

경찰불교회 조직활성화 모색

11월 3일 전국 지부총무단 회의

전국경찰불교회(회장 김중겸)는 11월 3일 대전시 중동 대전역 인근 식당에서 전국 지부 총무단회의을 열고 조직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중앙 임원과 부산·대구·광주 등 11개 지부 총무 등 20여명의 실무진이 참가하는 이날 이날 회의에서는 경찰불자 교육과 신행활동의 방향을 설정하고 불교회 활동을 통한 경찰이미지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사이버동호회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눈다.

뿐만 아니라 지부와 지회 구성 유무를 비롯해 임원진 현황, 지부·지회별 경승현황 등 경찰포교 현황을 파악, 전국 지부·지회 총무단이 참가하는 연수회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박봉영 기자

우리은행 서울·부산불자 대구 동화사서 합동법회

우리은행 서울지역 불자들과 부산지역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합을 도모한다.

우리은행 서울불자회(회장 정진호)와 부산불자회(회장 하명찬)는 25~26일 대구 동화사에서 합동법회를 갖는다. 우리은행 서울·부산불자회는 신행활동의 경험을 나누는 한편 팔공산 갓바위에서 1080배, 동화사에서 108배 정진을 벌인다. 지난해 부산불자회가 주관한데 이어 이번에는 서울불자회가 주관한다.

서울불자회 현동관 부회장은 "불교를 통해 만난 법우로서 용맹정진을 통해 진한 도반애를 느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언론사 불자연합회 창립

방송·신문사 불자들의 연합체인 언론사불자연합회가 17일 서울 여의도포교원에서 창립됐다. 연합회는 미창립 언론사의 불자회 창립 지원, 언론사내 불교의 저변확대 등과 언론인불자들의 우의를 다지는 구심체 역할을 담당하며 연합법회도 가질 예정이다.

연합회에는 KBS, MBC, SBS, 경향신문 불자회와 중앙일보 등에 근무하는 언론인 불자 600여명이 가입했으며, 초대회장에 정종철 KBS 불교연구회장(인터뷰 6면)을 선출했다.



◇17일 서울 여의도포교원에서 열린 언론사불자연합회 창립법회 모습.

우리 모임에선

부산불교운전기사회 14돌 법회

부산불교운전기사회(회장 김택주)는 24일 오전 11시 부산코모도호텔 충무홀에서 창립 14주년 기념법회를 갖는다. 부산불교사암연합회장 성오스님을 비롯해 400여명이 동참하는 이날 법회에서는 소년소녀가장 15명에게 장학금도 전달한다.

운불련 차량에 포교용 테이프

조계종 포교원은 한국운전기사불자연합회 소속 1500여대 차량에 포교용 테이프를 보급한다. 11월 1일 보급 예정인 테이프에는 '불교란 무엇인가'라는 주제의 포교원장 도영스님 법문과 법구경을 발췌한 명상의 말씀이 담긴다. 포교원은 내년 중 경전문구와 명상음악 등 좀 더 다양한 내용을 담은 테이프를 추가로 배포할 예정이다.

서울병원 불자회 10돌 기념법회

국립서울병원 불자회(회장 김주호)는 창립 10주년을 맞아 28일 강당에서 박완일 한국사회교육연구회장을 초청해 기념법회를 갖는다. 10여명의 회원으로 92년 10월 창립한 서울병원불자회는 이날 법회를 계기로 10년의 활동을 평가하고 향후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단체장 동정



봉화 청량사서 순례법회

박우락 성북승무사무소 법우회장은 24~25일 회원 및 가족 40여명과 함께 봉화 청량사로 가을맞이 순례를 떠난다.



매주 금 기초교리 강좌

박재순 전남도청 공무원불자회장은 18일부터 11월 22일까지 매주 금요일 도청 회의실에서 기초교리강좌를 실시한다.



회원들에 금강경CD 배포

이인규 전력인불자연합회장은 이순형 구도부장과 박경수 사무국장이 제작한 금강경 시디 50개를 회원들에게 12일 배포했다.



순천 송광사 선암사 참배

이선희 한국세무사불자회장은 11월 1~2일 회원 및 가족 40여명과 함께 순천 송광사와 선암사를 순례한다.

인터넷 화상 무료 법률 상담
law.buddhapia.com
■전화상담 : 매주 월~금 (오전 11시~오후 4시)
☎ 02)596-7231
■방문상담 :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오후 4시)
☎ 02)722-4162

직원채용(운전)

모집부문 및 응모자격

직 종	캠퍼스 및 모집인원	응 시 자 격
기능직(운전)	서울 0명	고졸 이상 학력자로서 만35세이상 45세미만의 신체건강한 자
		병역필 또는 면제자
		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1종 대형면허 소지자로서 버스운전경력 5년 이상인 자
		본교 건학이념인 불교정신을 이해하고 그 신앙생활에 동참하는 자

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보훈대상자 가산점 부여)

제출서류
■ 이력서(최근 3개월내에 촬영한 반명함판 칼라사진 부착) 1부
■ 자기소개서(A4지 1장 분량) 1부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자격증 사본 1부
■ 경력증명서 1부(운수회사 버스운전경력 5년 이상을 상세히 기록할 것)
■ 주민등록등본 1부
■ 불교도신행증(소정양식 조계종 산하 사찰 신도증명) 1통(본교 각 수위실서 배부함)
■ 보훈증명서(해당자) 1통

접수기간 및 접수처
2002. 10. 23(수) ~ 10. 28(월) *26일(토)은 접수불가
서울캠퍼스 본관 총무팀
※방문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문의처
서울캠퍼스 본관 총무팀 TEL. 02) 2260-3854~5 / FAX : 02) 2277-1274
홈페이지 : http://www.dongguk.edu

동국대학교 DONGGUK UNIVERSITY · SINCE 1906

대구 해인선원 주지 금봉스님의
예불독경 CD를 무료로 보시합니다.



대구해인선원을
방문하시어
칠보 삼존불도 친견하시고
무료CD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법 회 안 내
▷ 매월 음력 18일 – 지장재일법회
▷ 화요일 오후 2시, 7시 – 기초교리반
▷ 목요일 오전 10시, 오후 7시 – 참선반
▷ 일요일 오전 10시 – 금강경반

찾아오시는 길 ▶


해인선원은 불교종합복지연수원 건립을 위해 한불자 한 평 불사 운동을 전개하고 있사오니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바랍니다.
(국민은행 : 682-0251-628 / 예금주 : 해인선원)
대구시 동구 신천 4동 352-9 ☎ 053)741-8788
해인사 말사 대구 해인선원 주지 금봉 합장

태극전사들이 먹는 수신토종오가피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주)수신오가피 대표 / 성 광 수氏

월드컵 축구국가대표선수들과 이번 국가대표선수들이 먹는 오가피는 '수신토종오가피' 입니다. 꼭 국내최대오가피재배자 성광수씨의 사진을 확인하십시오. 품질에 대한 자부심으로 한봉지 한봉지마다 인쇄되어 있는 이 사진이 없다면 국가대표선수들이 먹는 '수신토종오가피'가 아닙니다.

우리 선수들이 자랑스럽습니다!!
37억 아시아의 축제, 또 한번 대한민국의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자랑스러운 우리선수들 곁에는 수신토종오가피가 있었습니다. (주)수신오가피는 대한체육회를 통해 한국선수단의 체력증진을 위해 토종오가피 2000상자를 기증했다. 이번에 기증한 토종오가피는 6월 2002 한일월드컵 축구대회에서도 태극전사들이 복용했었다. -동아일보 9월 25일자 보도-
월드컵 축구국가대표선수들과 아시안게임 국가대표선수들이 먹은 오가피는 '수신토종오가피입니다'

오가피를 심으시려면 서두르십시오!
국내최대오가피재배자 성광수씨가 매주 수요일과 일요일 오후2시에 직접 농장견학회를 열고 있습니다.
한번 심어놓으면 수십년 수확이 가능한 토종오가피! 직접 오셔서 눈으로 확인하시고 서두르십시오.

자료무료신청 (02)2201-3333

목어

침묵의 지혜



침묵이 필요한 시대다.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치인들의 말 바꾸기 솜씨가 날로 현란해 지는 요즘, 옳은 것과 그른 것에 대한 가치판단이 모호해 질 정도라는 사람이 적지 않다. 정권 말기의 혼란과 그칠 날이 없는 시시비비는 이제 일상이 되었을 정도다. 그래서 침묵이 금이 되는 시절이다.

옛 선사들은 누누이 "말에 떨어지지 말라"고 경계했다. 말에 집착하고 말에 속으면 진리와 그만큼 멀어지기 때문이다. 세 치 혀로 드러나는 말 보다는 마음 깊은 곳에 담겨진 진실을 갈파하라는 가르침은 언제나 유효하다. 달마 스님이 숭산의 소림굴에서 9년간 입 다물고 면벽을 한 것은 진리의 심인(心印)이 제대로 전파될 시절인연을 기다린 것이다. 말 보다는 마음으로 전할 인연을 익히기 위한 침묵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다.

유마거사가 침묵하지 않았다면 하늘에서 꽃비도 내리지 않았을 것이다. '불이(不二)'의 장광설이 오히려 침묵으로 하늘을 진동시킨 것을 상기해 보면 침묵이야 말로 우렁찬 웅변이 아니겠는가?

대선정국이 굳어지면서 불교계를 향한 정치인들의 발길도 분주하고 말도 푸짐하다. 속이 얼마나 찬 말인지 검증할 시간도 없이 새로운 말들이 난무한다. 불교계의 지도자들은 정치인들의 말에 떨어지지 말아야 한다. 그들의 휘황찬란한 말에 맞장구치기 보다는 그 말의 무게를 가늠하고 책임있는 말을 하도록 준엄한 자세를 지켜야 한다. 종단이나 단체의 지도자가 대선공약이라는 명분으로 그럴 듯하게 포장된 말에 떨어지고 집착해 버리면 불교계의 위상을 실추시키고 진짜 들어야 할 말을 못 듣게 된다.

그래서 침묵의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 누가 와서 무슨 말을 하건 입을 꾹 다물고 그 내면을 들여다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찬찬히 속을 들여다보는 눈길을 의식할 때 그들의 말은 보다 신중해지고 거짓이 줄어들지 않겠는가.

임연태(뉴미디어부 부장)

불자 세상보기



윤원철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

과연 테러로 '팔' 문제 해결될까

작년 9월 11일 뉴욕시의 세계무역센터와 워싱턴의 미 국방성이 테러 공격을 받을 때 마침 미국에 가있었다. 뉴욕시에서 100킬로미터쯤 떨어진 곳이어서 직접 위험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세계무역센터에서 일하는 이들의 가족, 친지가 많은 동네여서 그네들의 비탄과 분노를 생생하게 접하였다. 테러범들이 인간으로서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분위기였는데, 하긴 그랬다. 인간으로서 차마 못할 짓이라는 데에 누구도 이견을 달 수 없을 것이다.

한편, 함께 분노하면서도 직접 당한 당사자가 아니어서 그런지 몰라도 다른 생각도 들었다. 인간으로서 차마 하지 못할 짓을 저질렀다면, 그것도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 아니라 그토록 치밀하게 계획해서 저질렀다면, 그런 막가는 짓까지도 감행하게 한 어떤 절실한 배경이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하긴 미국이 하는 짓이 오죽한가. 이슬람권의 입장에서는 몰리고 몰리다 못해 그런 참혹한 방법을 동원하게 되었다는 점을 동의는 아니지만 이해하지 못할 것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성의 전당이라는 대학교에서조차 그런 식의 이야기는 입도 뻥긋하기 어려운 험악한 분위기였다. 다만 가까이 지내는 미국인들에게 좀 다른 식으로 이야기를 건네 보았다. 다름 아니라, 미국이 보복 공격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렇게 폭력으로 폭력을 응징하는 것은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대신에 정말 좋은 방법이 있다는 얘기였다. 당시 이슬람권 각국의 정부들도 매우 당황해하고 있었다. 자칫하면 이슬람이 몽땅 몹쓸 종교, 몹쓸 문화로 낙인찍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미국의 막강한 외교력을 동원하여 이슬람 국가들의 연합회의에서 알카에다를 비롯, 테러 단체들에 대해 이를테면 이슬람의 이단으로 규정하는 선언이 나오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이야기를 하였다. 그렇게 하면 이후 이슬람 과격 단체들의 테러 문제에 대처하는 데 예전에 없던 막강하고 효과적인 무기, 즉 전세계적인 지지를 확보하는 셈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한방 맞고서도 주먹으로 되돌려주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다. 때린 놈은 꼬부리고 자고 맞은 놈은 발뺀고 잔다는 지혜가 그네들의 심정에는 들어갈 자리가 없었다. 막강한 주먹이 있는데 왜 안 쓰냐는 것이다. 그렇게 한방 크게 맞고 난 뒤에 특별히 격앙되어 있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네들의 문화가 워낙 그런 것 같았다. 마구 크게 얘기하자면, 동서양의 차이를 실감하는 대목 가운데 하나였다.

아무튼, 아프가니스탄을 신나게 두들겨 팼지만 그 뒤로 미국인들은 자기네들도 말하듯이 생활방식에 큰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테러 단체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워낙 그랬으니 손해볼 것이 없다. 그들이 노린 것이 바로 그 점이니 그만큼 성공한 셈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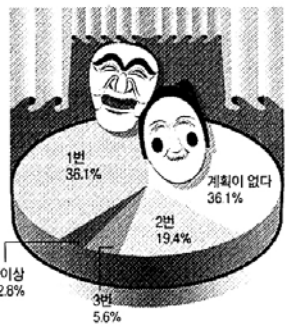
과연 테러리스트 사냥을 통해 테러가 지구상에서 없애버릴 수 있을까? 과연 테러를 통해서 미국이 망가지거나 수그러질까? 과연 테러를 통해서 팔레스타인 문제가 해결될까? 우리 누구나 그 답을 분명하게 알고 있다. 그런데도 저네들은 서로 갈수록 인간 말종이 되는 길을 치달려가고 있다. 지옥에서 또 만나 계속 싸울 것이니 지옥도 계속 시끄러울 터이다.

'원한은 원한으로 갚을 수 없다'는 〈법구경〉의 구절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때이다.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불자의 생각

문화행사 참가



올가을 "한번은 문화공연 관람" 36%

불자들은 올 가을 평균 1회정도 연극, 뮤지컬 등 문화공연을 관람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붓다뉴스 네티즌 설문조사 결과 총 응답자 36명 가운데 13명(36%)이 1번, 7명(19%)이 2번, 2명(6%), 1명(3%)이 4번 이상 문화공연을 관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계획이 없다는 의견도 13명(36%)이나 됐다. 문화공연을 선택할때의 가장 큰 기준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28명(78%)이 작품성, 4명(11%)이 각각 대중적 인지도, 종교라고 답변했다. 김두식 기자

열린마당

조계사 주변 역사문화벨트

조계사(주지 지홍)와 조계사포럼은 24일 오후 2시 문화교육관에서 '서울도심의 역사성 회복-조계사 주변 역사문화벨트 조성을 중심으로' 주제로 창건 92주년 기념 세미나를 연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나각순(서울시사편찬위원회 연구위원), 이희정(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원) 홍성태(상지대 교양과, 사회학)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조계사가 시민과 함께하는 도심 속 열린 사찰,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미리 배포된 세미나 자료 중 조계사 주변 도시계획과 전통과 문화가 조화된 공간모색 부분을 간추려 정리한다.

국민정신생활 중심지 되도록

이희정(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원)

조계사 인근지역은 우정총국, 조계사 등 독특한 문화적 요소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그 가치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인근의 인사동과는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조계사 일대는 현재 역사 문화적 특성보다는 다분히 개발유도위주의 도시계획 방향으로 돼 있다. 이에 따라 향후에도 지금과 같이 계속적으로 개발과 보전이라는 사찰과 지역주민의 갈등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소중한 역사문화환경과 국민의 정신적 생활중심으로서 조계사 인근지역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 나갈 수 있도록

도시계획 관리문제 심도있게 검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에 바탕 한 도시계획의 세부적인 관리방향도 개선되어야 한다.

하지만 조계사일대의 도시계획적 관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조계사를 위시한 지역전체의 적극적인 문제제기와 개선요구가 있어야 가능하다.

또 조계사일대의 꾸준히 역사 문화적 가치를 발굴해 내고, 지역에서의 도시계획적 관리 문제에 다한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보다 적극적으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지역주민들과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개선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전통·문화 조화된 공간으로

홍성태(상지대 교양과 교수)

조계사가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것은 불교라는 전통 종교문화의 차원에서도 그렇겠지만, '문화도시 서울'이라는 차원에서 더욱 더 큰 의미를 지닌다.

조계사가 역사의 전통을 살릴 경우 서울은 그 역사에 걸맞게 다양한 종교문화의 공간을 갖게 될 것이다. 서울의 공간문화가 더욱 다양해진다. 더 중요한 것은 경제적 논리에 휘둘리는 삭막한 도심에 더 많은 문화적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게 된다. 경제적 논리에 휘둘리지 않는 공간이 도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문화도시 서울'을 위해서는 이런

자비정신·공사상 원용 해야

공간이 더욱 더 늘어나야 한다.

조계사가 도심의 역사문화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첫째, '열린 공간'이 되어야 한다. 시민들이 아무런 위축감도 느끼지 않고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휴식의 공간'이어야 한다. 둘째, '생태 공간'이 되어야 한다. 불교의 자비 정신과 공의 사상은 이런 서울의 도심을 '살림의 공간'으로 만드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

조계사가 산사의 정신과 정취를 구현할 수 있게 된다면, 서울의 도심은 지금과는 사뭇 다른 전통과 문화가 조화된 공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들었다

성실한 대다수에 허탈감 줘

한탕주의

탐욕에 빠져 해외에 기술을 넘겨버린 전문연구원들의 '한탕주의'가 위험수위에 달했다. 휴대단말기(PDA) 생산기술 및 무선 모뎀 관련 정보를 중국에 넘긴 혐의로 모 통신기술연구원 대표 등 2명과 신종 휴대전화기의 기술을 빼내 해외업체와 기술개발 계약을 한 전직 전자업체 연구원과 벤처 회사 대표 등 10명이 12일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직업윤리는 간 데 없고 오직 '크게 한 건 해 보겠다'는 사람들의 소행이었다.

대검찰청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한해 동안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491명으로 전년(297명)에 비해 크게 늘었다. 적발하지 못한 경우를 감안한다면 실제 기술유출 건수는 이보다 많을 수밖에 없다.

'한탕주의'는 성실하게 사는 대다수 국민들을 허탈감에 빠지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질서를 어지럽힌다. 또한 부패와 권력의 유착이 심화되어 '한탕주의'가 만연하는 악순환을 낳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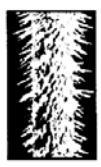
▨탐욕은 온갖 괴로움의 근본이요 육바라밀의 큰 장애여서, 능히 보리심을 태워 없앤다. <육바라밀경>

▨탐욕스런 사람은 재물을 많이 쌓아 놓고도 만족할 줄 몰라서, 무명의 전도심(顚倒心)으로 늘 남의 것을 빼앗을 것만 생각한다. 지혜있는 사람이라면 응당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 <니건자경>

▨탐욕이 걱정을 낳고 두려움을 낳나니, 탐욕이 없다면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두려워할까. <법구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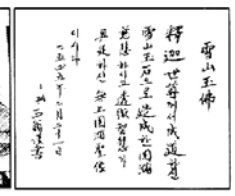
▨욕심 있는 사람에겐 세상의 빈궁이 큰 고통이다. 다른 이에게 재물을 빌리고 재물을 빌린 뒤에는 남의 구박받아 고뇌가 된다. 빚 주인은 찾아와 독촉을 하고 그 때문에 끝내는 결박되나니 그 결박 무겁고 괴롭다. <중아함경>

한국산 가시오가피의 대명사
함박재 토종 가시오가피
■ 세계 최초 기업농으로 성공시킨 함박재 농장!
함박재농장은 멸종위기에 처해 보호야생식물(자연환경보전법 제2조)로지정되어 있을 만큼 희귀한 가시오가피 대량재배(10만평, 50만주)에 성공하였습니다.
-KBS, MBC뉴스에 보도 됨-

세계 최초 기업농으로 성공한 강 훈 구 대표
■ KSA(한국표준협회)로부터 으뜸상품으로 선정!
함박재 가시오가피는 상품력과 기술력, 그리고 QM시스템 구축도 및 활용도를 심사받아 KSA(한국표준협회)로부터 으뜸상품 제 2076호로 선정 되었습니다.
■ 충청남도 "향토지적재산"으로 선정!
함박재 가시오가피는 20여년간 가시오가피 살리기에 노력해 온 점을 인정받아 충청남도 "향토지적재산"으로 선정되었습니다.
※ 제품구입시 가시오가피와 일반오가피를 꼭 확인하세요.
※ 100%국내산 가시오가피를 "꼭" 확인하세요.

가시오가피

일반오가피
▣ 지금 전화주시면 가시오가피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주)한국자연과학
www.ogapiland.co.kr
전화상담 및 구입문의
TEL : (02)2272-4900

우리부처님 코리아붓다 KOREA BUDDHA
http www.korea buddha co.kr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 8동 1663-6 세한빌딩 401호
TEL 서울 (02) 864-8834 부산 (051) 637-2333
FAX 서울 (02) 839-2185 부산 (051) 637-6868
조각작품으로 한불 한불 정성껏 조각하여 모십니다
雪山白玉佛


고불총림방장 서옹 큰 스님 / 추천서
野外法壇 16羅漢像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전화 : 02)732-1522 (直) 02) 737-8881 (代)
· FAX : 02) 737-0697

謝 過 文

社團法人 : 龍華法印會
大韓佛教 法印宗 總務院長 晩悟 큰스님 法下

俗名 田鉉奎 法名 一翁 本人의 本意 아닌 生角과 錯覺로
日本 (大阪)오오사까에서 護摩行事를 業으로 하는 吉田碧峰(요시다세이호)
을 大韓佛教法印宗總務院長의하 諒解 없이 지난달 13일 포항도선사 行事를
조치한 過誤를 自認하고 公開謝過 드립니다.

2002年 10月 17日
田鉉奎 法名 : 一翁 合掌

제의식, 불공 등 임시로
스님 필요한곳
은 **연락** 바랍니다
055) 387-0361
016) 428-6665

구 함
사찰 및 사찰부지
스님의 수행 정진을
사부대중의 신행 터전을 위한
불사를 하고자
서울 근교나 경기수도권
사찰 및 사찰부지 구합니다.
02)3445-0643
법진 합장

연꽃 그림에 부처님 말씀을 담아드립니다.
한지에 수묵담채화(미표구)
크기 : 소 · 중 · 대 · 특대 병풍 부채
각종 보시용 · 선물용 · 봉안식용
전화주문후 계좌송금 확인 즉시
작업착수 등기 송달
● 입금계좌 : 우체국 703496-02-083632
● 견본참조 : www.jeongpung.co.kr
연꽃 053)381-5698
화가 018)588-5698

사찰안내
● 위치 : 전주시내 전통한옥사찰 최고요지
● 대지 : 75평, 건평 60평 중 대웅전 23평
석자 삼신불 후불육금탱화 100평
칠성목금탱화 60평 신중목금탱화 60평
● 홍송 삼단 법단 특금시설입체
● 큰방 2개 별채 방 2개
● 즉시법회 창건을 원하시는 스님 비구니
스님 보살님께서는 연락바람 답사 후 결정
011)650-8481
063)285-6464

심야전기 온돌
▸전기온돌은 우리전통의 온돌방식을 심야전기를 이용하여 현대화한 바닥 난방방식으로 따끈하게 데운 방바닥의 열을 24시간 지속적으로 유지합니다.
▸보일러실이 필요없고, 난방비는 기름값의 30%

● 축열식 전기 온수기
● 축열식 전기 보일러
● 축열식 전기 온풍기
● 원적외선 전기 온풍기
● 온수식 온돌 판넬
설계시공 A/S 상담

한전승인업체
남강기전 02) 338-0400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	• 위치 : 경북성주	• 위치 : 경기 가평
• 법당 : 45평	• 법당 : 10평	• 법당 : 15평
• 요사 : 50평	• 요사 : 20평	• 요사 : 40평
• 부지 : 129평	• 부지 : 18,000평	• 부지 : 2,000평
• 가액 : 5억	• 가액 : 2억 8천	• 가액 : 13억

※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 바랍니다.
※ 부전스님 및 공양주 보살님 연결하여 드립니다.
청송기획 02) 998-1994/011) 713-5634

사찰안내
● 위치 : 서울 성북구 성북동
● 대지 : 51평
● 건평 : 50평
● 법당, 요사채, 공양간
● 조용하고 전망이 기가막힘
● 가액 : 3억(절충가능함)
011)732-6933

사찰부지안내
● 서울 관악산 10,000평
● 용도 : 사찰 및 복지시설
● 평당 : 25만원
● 경기도 이천 땅 5천평
● 평당 2만원
011)241-0408

사찰안내
●위치 : 경남 함양군 안의면 부근
●건물 : 최신건물로 대지 100평
건물 30평 뒷밭 500평 임법당
법당 방 2개 욕실 2 주방 1
난방심야전기
●가액 : 1억 2천(절충가능)
011)429-6059
032)876-2248

49재 천도재 시다림
봉불 점안 안택 각종
의식에 청하시면 전국
어디든 가겠습니다.
영산재 이수 **스님 입니다**
상주할 인연 사찰을 찾습니다.
011)9859-7425

◇ 구운 마늘환 ◇
- 100% 토종 육쪽 마늘 -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마늘의 효능
> 심한피로 / 정력강화
> 간기능 획기적 개선
> 혈압/혈당치■ 낮추고 장 변비 개선
> 손발냉증, 피부 고와짐
> 감기에 강한 체질로
동양물산 080-375-7575

사찰 안내
● 위치 : 밀양 수산
● 부지 : 170평
● 법당 : 23평(인법당)
● 요사채 : 20평(목조 황토방)
● 매도가 : 1억 2천
※ 진영에서 10분, 부산에서 1시간
※ 뒤는 산 앞은 마을(시골촌집 가격)
● 위치 : 큰섬
● 부지 : 1,000평
● 법당 : 20평
● 요사채 2동 35평
● 매도가 4억
※인구 5천의 어업 전진기지
※ 앞은 바다 뒤는 병풍같은 절벽
부산 영남지방 풍수전문 사찰 컨설팅(양도, 인수하실 스님 상담환영, 절대 보안유지)
佛國물사 018-563-9575 (홈페이지 www.pungsu-serve.com)

사찰 안내
●위치 : 노원구 수락산 부근
전철역에서 3분거리
●부지 : 약 320평
●평수 : 건물 45평 법당 20평
방 3개 차량 주차 10대
●가액 : 2억 5천만원
011)9756-4845

사찰 안내
● 위치 : 동작구 상도2동 201-60호
백운사
● 대지 : 66평
● 건평 56평(1, 2층, 지하)
● 삼존불
● 가액 : 5억 2천(절충가능)
02)815-0302
011)722-0302

사찰안내
●위치 : 충남 덕산 옆
●평수 : 법당 관음전 7평
임법당 30평 목조 새건축 단청완료
●대지 : 640평
●70년 전통의 불좋고 산세수려,
포장도로 완료, 최신식 시설 완비
●가액 : 1억 8천만원
011)401-5206
041)337-1206

포교당안내
● 위치 : 서울
● 평수 : 23평
● 보증금 4,000만원
● 시설비 : 약간
● 전철역 버스정류장 옆
※ 전국 사찰 임자 양도 양수 하실 분 전화상담 환영
부전스님 공양주 보살님 연결하여 드립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역학 수강생모집
■ 과목 : 사주, 작명, 신수, 궁합, 택일, 육효,
대정작괘법 관상, 풍수지리
■ 기간 : 수시모집
■ 강사 : 30년간 청운역학원을 경영하고 있는
청운 엄윤문선생이 직접 강의합니다.
※ 교재는 이석영선생저서 사주첩경으로 강의합니다.
저서 명학비해격국용신론을 위시로 30여권을 저술 하였음
한국동 한국임보원
청운역학원 02)723-7449/011)9638-8229

포교당 안 내
● 위치 : 인천 부평 소사역 200M
● 법당 : 50평, 방 2개
● 보증금 : 1500만원, 월 80만원
● 시설비 : 답사 후 결정
● 역사깊은 도심 포교당임
● 위치 : 인천시 서구 소재
● 법당 : 40평 요사 방 2개
● 보증금 : 1000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 답사 후 결정
● 최고 시설임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국불사** 02) 561-7791/011)530-1975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사찰 안내
● 위치 : 전북 남원시
● 법당 : 30평, 요사채 2동(방 6칸)
● 대지 120평
교통편리하며 포교 최적지
● 가액 : 6000만원(전세가능)
063)634-8733
016)441-0097

포교당안내
● 서울 서초구 방배동 교통요지
아파트 밀집지역 전철역 입구
● 법당 : 18평
● 요사채 : 80평이상 건축가능
● 가액 : 보증금 800만원
월 80만원 합 3500만원
011)9634-7851

포교당안내
● 삼존불 후불 신중 지장 산신
칠성탱화
● 3층건물에 2층 20평 법당15평
스님방 5평 주방시설완비
● 수원역5분거리 수원도청입구 대로변
● 가액 : 보증금 500만원 월 35만원
시설비 1000만원
019)319-5954
02)833-3597

사찰안내
● 위치 : 전남 광양읍 위치
서산사
● 법당 : 30평
● 요사채 : 25평(2동)
● 대지, 임야 : 5000평
● 가액 : 1억9천(가액조정가능)
● 만약 증축시 70평 가능함
011)9457-6954

♣ 보 리 수 ♣
취급 품목 | 각종 수입향 염주 불교악세사리 광약 | 일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 80호
전화 : 778-5345
팩 스 : 777-1917
핸드폰 : 017-231-5345

건물 및 부지 안내
● 위치 : 도봉산 19번 종점에서 도보로 25분거리, 차량 운행시 5분거리
● 대지 : 임야포함 1502평(개인사유지)
● 건물 : 건축물대장 2필지(1필지 28평, 1필지 17평)
- 현재 식당 25년 운영중임(영업하가증, 사업자등록증 보유)
- 사찰로 운영할 경우는 재건축 요망
- 식당으로 운영하실 경우 인수 후 즉시 영업가능
● 가액 : 상담 후 가격 후 절충
연락처 02)955-4785 / 011)399-4785

사찰 터 안내
●위치 : 충남 금산 진산면
(대전에 20분거리)
●대지 : 전, 밭, 임야 합 8746평
도로 전기 공사 완료
●육각정(목조) 한동
주거용 컨테이너 1동
●약수터(옹달샘) 및 연못
●가액 : 평당 3만오천원
011)826-6888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도 화성
● 대지 : 220평
● 요사채 : 30평 이상
● 법당 : 23평
● 산신각 : 5평
● 공양간 25평, 주차장완비
● 가액 : 2억 8천(절충가능)
011)226-2880

사찰(급)안내
● 위치 : 단양읍 수촌리 540평
● 가액 : 1500만원
● 위치 : 제천시 영천동 대지 55평
● 건물 : 25평
● 가액 : 6500만원
043)423-9907
011)748-7604
※ 약사여래불, 촛대, 인등, 법당등
인연있는 분 찾습니다

易 수강생 모집
무료공개강좌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듣기만 해도 암기 됨, 감명비법공개
◆ 주야, 주말반 : 초보에서 전문까지
◆ 특강반 (법당 · 포교원운영 · 스님 · 법사)
◆ 사주로 영가찾는 법 등
◆ 개운법, 영가 · 조상천도 상담환영
☎ 02)2236-2284 (2, 6호선 신당역)

포교당, 선방, 암자 - 가장 싼 가격에 매각
● 양평 지게 대지 : 330평 건물 : 90평
● 용인 백암 대지 : 180평 건물 : 60평
● 가평 외서 대지 : 100평 건물 : 48평
● 안양시안양동 18층건물내 2층 40평
● 고양 성사동 7층건물내 5층 430평
● 대지 120평 대지 : 120평 건물 : 30평
여직원 구함, 부동산 경험有, 연령제한 없음
大田이북에 같치 옮건을 다량 확보 하였으며 철저한 비밀보장으로 스님의 소원을 이루겠습니다
대교물산 050)2224-3333

사찰안내
● 경남 함안근교 국도에서 300m에
위치한 사찰로 주지 노병으로 부득이
인수자 구합니다
● 대지 : 200평법당 : 20평, 요사채 : 20평
● 주지실 : 4평, 주차시설완비
● 가액 : 8000만원
※성실한 30~40대 보살 가운데
철학을 배워 제자가 될분 구합니다
011)553-3758

태백산 기도도량
사찰안내
● 좌우백호가 두렷하고 연꽃안에
봉황이알을품고있는 형국이며 산세,
암석, 계곡, 절경이 아주 좋을
사찰 100m 앞에는 춘양봉화로 가는
길이 잘되어 있고 큰계곡 유원지가
있음. 사찰부지 1850평 자연돌로 조
경이 잘되어있으며 기와건물 50평
지어있고 전기, 전화, 수도 시설도 잘
되어있음 ● 가액, 답사후 절충
018-223-2101

암자안내
● 위치 : 전남 보성군 득량면
송곡리 21번지 용운암
● 평수 : 180평, 건물 2동
● 신신각 1채, 요사채(방3개)
● 매매, 전세 가능
011)368-2324

포교당안내
● 부산 구포 덕천 트타리에서 걸어서
5분거리
● 시설 건평 60평 방 4개로 내부 삼존불
지장보살, 지장탱화 신신탱화 있습니다
● 보증금 1500만원
● 월세 50만원 시설비 2500만원
055)386-7463
016)355-4264
※공양주 구합니다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합천 소재 국도변 ● 부지 : 대지 350평
● 건평 : 법당 27평(기와, 단청), 보일러실
● 주지실 및 요사채 : 8평(스라브, 방3개 거실, 주방, 욕실, 보일러실)
● 요사채 : 25평(스라브,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화장실 2개
● 신신각 및 용왕당 천연자연수
● 사찰내 차량진입 가능하며, 사찰 뒷편 자연림 고목으로 산세수려함
● 요사채 위 2층으로 필요시 건물 증축가능
※부신 경남권에 위치하고 있어 포교와 기도도량으로 최적지 임
● 매가 : 2억5천만원 감정가 1억 8천만원에 급 양도하고자 함
011)9017-5445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도 안성시 고삼면 소재
● 부지 : 800평
● 법당 : 30평(목조)
● 요사 : 30평(신축)
● 가액 : 4억 4천만원
● 특징 : 천년고찰터에 신축으로 조성된 사찰로
포교와 기도도량으로 좋습니다.
● 위치 : 충북 괴산군 청안면 소재
● 부지 : 약 500평(종교용지)
● 법당 : 30평(목조, 단청)
● 요사 : 2동 60평
● 가액 : 3억원
● 특징 : 신라시대동불(보물급)이 있는 사찰로
포교와 기도도량으로 좋습니다.
> 사찰, 절터, 양도, 양수 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좋은 인연합시다 -
동진불사
서울 ☎ 02)326-1060
대구 ☎ 053)754-0454
H·P 018)689-0455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마산시 내서읍
● 대지 약 100평
● 법당, 요사채, 주방
● 가액 답사후 결정
055)232-2304
011)9534-2555

포교당안내
● 위치 : 울산 동구 화정동
● 건물 2층 건물에 2층 50평
● 미타삼존불 500나한 지장
신중탱화
● 보증금 2000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상담 후 결정
011)599-9978

사찰 안내
● 위치 : 충남 예산군 덕산온천 근처
● 대지 : 약 600평
● 법당 : 25평(임법당)
● 요사채 : 1층 70평, 2층 30평
● 특징 : 교통요지 운영양호
● 가액 : 2억 5천만원(절충가능)
041)337-6348

포교당(급)안내
● 위치 : 김해 최고 요지
● 법당 삼존불 지장 산신 용왕 지장소불
108불 영가단 후불 흙탱화 신중탱화
지장탱화 산신탱화 용왕탱화
● 평수 : 3층 50평 방 3개
● 주방 샤워실 주차장 완비
● 가액 : 전세 3000만원에 월 45만원
시설비 2000만원 절충가능
017)556-5691

사찰터안내
● 위치 : 하동군 청양면 맹호리
지리산 칠성봉 청학골 자락
● 임야 10정보 (3만평)
● 절터로 명당자리
● 가액 : 평당 3천원(절충가능)
011)9550-7088

포교당 안내
● 위치 : 종로구 종로 5가
182-7번지
● 평수 : 45평,
● 삼존불, 방2개, 법당,
주방
016)207-5610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기도 일산 신도시 중심가
(주엽 전철역 200m)
● 건물 : 3층 건물중 3층(20평)
앞뒤로 아파트 단지로
포교원이나 철학관으로 적합
● 가액 : 보증금 2천만원 월 70만원
● 시설비 : 2천 7백만원
031)919-0306
011-9701-0603

도심 수행처 안내
● 위치 : 해운대 달맞이고개
● 시설 : 고급빌라 93평형
법당(방음) 15평
기도방, 대중방, 접견실 등
● 특징 : 바다조망, 경관수려
● 가액 : 국세청 기준시가 2억8천만원
단, 2002년 10월 25일한정 절충가능
051)743-5114,
019)9255-0036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고성읍 소재
● 부지 : 500평(완전평지)
● 대웅전 25평(삼포목조단청)
● 요사체 45평(방6개)
● 기타 : 산신각 용왕각 노천석불
● 가액: 1억 9천만원
055)673-6996
011)833-0374

포교당안내
● 위치 : 구리 남양주
● 건평 60평
● 보증금 3천만원
(월세 80만원)
● 시설비 5500만원(조절가능)
● 시설물 : 도시가스, 방2개,
● 사무실1개, 욕실,
공양간, 화장실2개
031)555-4062

사찰안내
● 위치 : 울산시 울주군 웅촌
● 대지 300평 법당 40평
● 요사채 20평
● 주차공간 넓고 조경수
심어져 있음, 텃밭도 있음
● 가액: 3억 (조정가능)
052)269-4952

사찰부지안내
● 위치 : 지리산 청학동
지내 3000평
잡종지 350평, 나머지 전, 답
계곡을 약 500미터 접하고 있음
● 용도 : 사찰, 연수원, 관광능원
토굴, 기타 등등
도로, 전기, 상수도, 시설완비
● 가액 : 평당 25만원, 분할판매 가능
055)884-1789

포교당(급)안내
● 위치 :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갈담리
● 법당 : 40평, 3존불(3.5자)
후불 탱화, 신중, 산신, 칠성,
독성탱화, 다다미 마루, 방2칸,
부엌 1칸
● 가액 : 5천만원(상담절충가능)
011)735-9178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 부지 : 2000평,
● 법당 가건물 : 20평
● 요사 : 45평
● 가액 : 2억
016)868-5517

남 활법사 · 지부장모집 여
교육기간
● 정규반 - 16주(1주 3시간)총 48시간 ● 속성반 - 4박 5일(1일 8시간) 총40시간
교육후 필기와 실기시험을 통과하여 협회의 자격증을 부여합니다 숙식제공(단 1명이라도 교육함)
교육내용
1. 활법기초이론(해부학, 생리학) 2. 활법교정술(경추, 흉추, 요추) 3. 스포츠 마사지교육
4. 기공술 5. 운동회복법(저항운동법) 9. 내장부활운동법 10. 발관리교육
※ 한번회원이 되면 평생회원이 되며 3개월에 한번씩 세미나를 개최함.
※ 중국안마(추나)자격 취득 : 12월 10일 출발 7박 8일간. (현재 접수 중)
※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서 우송해드립니다.
세계건강활법협회 본부연수원 054)855-6461 02)2212-8815 011)522-1122
http://www.hwalbup.or.kr E-mail:wooh57kr@yahoo.co.kr

포교당안내
● 위치 : 강남구 논현동
논현초등학교 후문
● 가액 보증금 1000만원
권리금 3200만원, 월148만원
02)543-7557
011)344-2429

사찰안내
● 경남 밀양
● 대지 210평 임야 300평
● 신축법당 21평 단청완료
● 호신불1500위중 800위 남아있음
● 요사채 26평
● 사정상급해서 가액 1억 5천만원
꼭하실분만 연락요망
011)597-1668

사찰 안내
● 위치 : 고성 삼천포 사천
15분거리
● 법당 : 20평
● 요사채 : 40평
● 부지 : 650평
● 가액 : 1억 5천만원
011)9528-1686

사찰 안내
● 위치 : 부산
● 대지 : 400평
● 임야(시설 녹지) 2500평
● 가건물 3동
● 신도가구수 5천세대
● 가액 : 10억
011)597-4453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시 동래구 사직1동
● 건평 32평, 4층 건물의 4층
● 전세 3500만원
● 입주후 즉시 법회 가능
051)501-0038
011)9548-8667

포교당안내
● 위치: 강남구 역삼동
(선릉역 5번출구 3분거리)
● 약 20평 거실, 욕실, 주방, 법당
● 가액: 보증금 1000만원에 74만원
시설 권리금 답사후 결정
019)9138-4879

불교용품 전문 쇼핑몰
maham@ll.co.kr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생활불자정보



1. 법회기도 – 지장기도, 관음기도, 정기법회, 기념법회 등
2. 구인/구직정보 – 공양주 행자모집, 운전기사모집, 사찰종무원 모집, 일반사원모집 등
3. 알림정보 – 개업, 이전, 각종전시, 불교등우회 행사, 각종불교강좌, 수련회, 동창회, 부음 등
4. 불교용품정보 – 각종불교용품 불교용품업체, 탱화 업체 등
5. 알뜰정보 – 팝고/사고/대행/대여/재활용/인테리어
6. 생활장터 – 가구, 도서, 음반 컴퓨터, 통신기기, 비디오, 가전, 사무용품, 비품, 정수기 등
   – 사보편집대행, 음반대행, 꽃집, 떡집, 승복집 등
7. 여행정보 – 성지순례, 사찰순례

▷광고문의
TEL 02)732-1522 , 737-8881
FAX 02)737-0697
▷광고가격 : 1Box(4.5×3) 3만원



금화사 법회안내
약사재일 매월(음) 8일 오전 10시
지장재일 매월(음) 18일 오전 10시
관음재일 매월(음) 24일 오전 10시
경남 진주시 금곡면 석계리
055)753-9826, 754-2997
휴대폰 016-546-9826

향용사 법회안내
매월(음)초하루 오전10시
전북 완주군 소양면 신원리
반곡 767-5
063)243-9152
017-658-9152

덕춘사 법회안내
약사재일 매월(음) 8일 오전 10시
지장재일 매월(음) 18일 오전 10시
관음재일 매월(음) 24일 오전 10시
전북 군산시 송창동 3-68(7/2)
063)463-5907 / 011-684-1408

염창사 법회안내
매월(음)초삼일
전북 부안군 계화면 궁안리 214-5
(창북초등학교 뒤 염창산 용정마을)
063)584-6571
011-659-6571

여래사 법회안내
약사재일 매월(음) 8일 오전 10시 30분
지장재일 매월(음) 18일 오전 10시 30분
일요법회 매주 오전 10시 30분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168-100
02)3673-3886 / 011-732-6933

만장사 정기법회
매월(음)초하루 법회
매월(음)18일 지장재일
매월셋째 일요일 일요법회
경기 안양시 동안구 비산1동
031-448-8005 / 448-1144

보현정사
도심속의 기도 사찰
매월 초하루 기도
02)583-1080

수도사 법회안내
매월 초하루 정기 법회
요가선체조 수지침 강의
달마대사 부처佛자 그림 무료배포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2동 675
051)512-4008

법 회 안 내
여래사 약사만다라 대법회
일시 : 2002년 11월 2일(土)
오전 10시30분
서울 성북 성북동 168-100
02)3673-3881

소요산 중화사
인등법회기도 매월 첫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신신기도 매월 음력 초아흐레 오전 11시
지장기도 매월 음력 열여드레 오전 11시
경기도 동두천시 보산동 30
031)865-5520

북한산 노적사
회엄신중기도법회 (음)매월초 1일~3일
철야정진기도 (음)매월 7일(약사재일전야)
약사재일 지장불공 천도법회 (음)매월 18일
관음재일 관음불공법회 (음) 매월 24일
참립 정각회(거사회)법회 (양)매월 둘째주 일요일
02)353-5016, 354-79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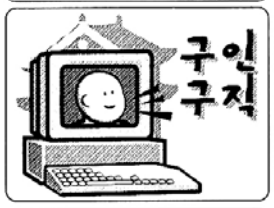
북한 형제봉 심곡암 관음굴 산신각 천일기도
2차백일기도 입제
매일 오전 11시
서울 성북구 정릉 3동 산 1번지 1호
02)914-8860

開山 2주년 기념 후불탱화 점안법회
때 2546년 10월27일(日)오후 2시 곳 죽림산 마음의 쉼터 대웅전
아침 9시 서울 잠실롯데월드 앞 너구리상에서 현대관광버스가 출발합니다
왕복교통비 10,000원 입니다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상대리 593
033)3456-008

복지도량 건립 사찰 불 은 사
매월 초하루 법회
복된장, 고추장 판매 수익금은 전액 복지도량 건립에 쓰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현내동 445
053)581-0770

재단법인 성운사
소원성취기도도량
정기법회 매월 첫째, 셋째 일요일 오전 10시
철야기도 매월 초하루 보름 오후 9시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742-1
031)314-7577

김포큰절 무량사
지장기도도량
매월(음) 초하루, 보름 오전 10시 30분
매월(음) 18일 지장재이럽회
매주 토요일 밤 11시 철야정진 법회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갈산리 산269-16
031)989-7515



의식스님이 필요하신 분
전통의식이 신심이 돈독해지며 영산작법과 우리말이라야 회회심과 경건, 엄숙의 극대화가 있지 않겠는가!
49재 및 천도재 등 각종 의식에 바라춤과 나비춤을 겹들여 작은 부담으로 보시하오니 연락바랍니다
041)571-1112~3
016)9414-1525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경기도 이천
031)641-6311 www.wonkyungsa.com

영 가 천 도
영가천도 말이 필요없습니다. 양평 정토사로 오세요.
http://myhome.naver.com/jto3390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전수 1리 대한불교조계종 정토사
031)771-0227

모십니다
산세 좋은 조용한 암자에서 평생을 함께 하실 흰아버지 할머니를 모십니다
041)952-4197
016)9311-4103
02)996-3813

부전스님 모십니다
▷ 65세 이상
011)376-3012
02)2254-2198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서울 봉천동
011-9545-2690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 서울 우이동
02)992-7064

사찰운영하실 스님 구함
▷ 경남 창령군 남지읍
011-9801-3431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 30~45세
011-558-6221

부전스님 · 어린이 법회선생님 모십니다
031)266-6526
018)357-6526

사찰 사무원(女) 구합니다
▷ 충남 서해 바닷가 사찰
041)673-3222

공양주 보살 모십니다
▷ 50세 이상
02)3216-7141
017-206-0789

부전스님 모십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송림사
경북 칠곡군 동명면 구덕리 91-6
054)976-8116

신심있는 공양주 구함
▷ 대한불교조계종 송림사
054)976-8116

부전 비구니 스님 모십니다
▷ 40~50세 금호동 관음사
02)2234-3310/017)260-3310

조용한 곳에서 공부기도할 비구니 스님 모십니다
054)733-7881
016-540-0027

산세 수려한 조용한 사찰입니다.
같이 기도 하면서 지낼 보살님이나 거사님들은 연락바랍니다.
052)254-2427 / 254-5125
011-565-5556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60세이상 노보살님
02)917-3363(정릉)

대한불교조계종 구 담 사
조상 태아 영가 천도지장도량
경기도 포천군 이동면 연곡리 595
031)533-2855



출판기념 법회
원공박사스님의 저서 「운문선연구」가 출간되어 아래와 같이 출판기념법회를 봉행하는 바입니다.
일 시 : 불기 2546년 10월 25일(음 9월 20일) 금요일 오후 5시
장 소 : 소피텔앰버서더호텔 4층 도라지룸 02-2270-3123
보경사 신도회 02)917-3363

북한산 심곡암 제 5차 단풍문화축제
일시 : 2002. 10. 19 ~ 27일
서울 성북구 정릉 3동 산 1번지 1호
02)914-8860

참마음 수련 심전 대광사
체험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033)435-3166

노인요양원 자광원
행복하고 편안한 노후를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031)759-5320

회당대종사 탄생100주년 기념
다큐멘터리 보급
해인서림
www.hoedang.or.kr
02)942-0127

대한불교조계종 도솔산 도피안사
도피안사 파라미타수행원 (하계, 동계수련원)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용설리 1178-1
031)676-8700~2

정토수련원 '일상에서 깨어있기'
10월 19일
오후 2시~20일 오후 9시
서울 정토회관
02)587-8994

한국불교범음회 학인모집
초급,중급,고급
매주 수,목
(오후 5시-7시)
051)554-1518

국제포교사고시 11월 10일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 서류전형, 필기고사와 면접, 종합 연수
접수기한은 11월 1일까지.
02)720-7060

남양주 보광사 태극권 주말수련
매월 넷째 주 금요일 저녁 8시~일요일 (1박2일 또는 2박3일)
모집인원 25명 내외.
031)594-1316

국청회 '천수경 강좌'
동국대 불교대학원교수 정각스님 초청강좌 - 매주 수요일
서울 수송동 원당빌딩 3층 국청회 법당
02)730-1249

전국비구니회관 '한지공예'
중앙승가대 법연스님 초청강좌
매주 수요일 1시~4시
장소 서울 수서동 회관
02)733-5467

태고탄신 701주년 기념 태고보우 국사 사상연구 제5차 학술 발표회
대회일자 : 불기 2546년 10월 25일 13시
대회장소 : 마포 불교방송국 3층 공개홀
02)904-0081,0016/011-750-0016



기와지붕시공전문
신형기술로 시공한 후 청소까지 완벽하게
덕신기와
011-302-7802

화엄기도도량 해원사
원인 모를 병고 마음 병(정신)
031)336-3734
011-9711-3734

당뇨 걱정 끝
"메디풀"의 경이적인 효과
한달 내로 확인할 수 있음.
주저없이 문의 하세요
02)402-2388/017-287-9667

삼 의 한 의 원
불심으로 약방문을 지어 올립니다
인술의 기본 처방에 불교인 등도르서불심을 담아 모시고 있는 역사본의 기관은 도반입니다
침구과(보약, 침약), 내과, 부인과, 소아과, 피부과
원장 엄원섭
02)966-5725, 968-7777
(제기동 미도파 옆 약전골목 입구)

상표등록 0472818호 415465호
팔공 갓바위 엿
대 표 양재영
053)851-7467/011-805-6577
712-841 경북 경산시 와촌면 신한리 476

불교서적 불교용품 전문점
부 용 당
대 표 김호준
053)321-4612/011-820-4615
702-849 대구광역시 북구 옵내동 1332-2

청동불상 제작 전문
성화불교전시관
02)2209-0080-1



윤진공예
대 표 최윤구
053)954-2410
011-504-8845
701-806 대구광역시 동구 불로동 496-1

조양향단
대 표 박규점
031)571-3091
017-226-6462
471-080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382-6

성일양초
대 표 박정하
053)851-7024
016-568-8000
성일양초는 정성을 다하여 최고의 초를 만듭니다.

한국목탄연구소
기(氣) 에너지의 증폭됨을 알 수 있는 고강도 숯으로 만든 숯 목걸이
전신의 노폐물과 수독을 배출하는 대나무수액시트
02)325-0300

삼환식물성양초
특 징
그을음이 없이 실내공기정화에 도움
양초연소시 발생하는 냄새가 없다
031)766-0242~3391

송강기획(주)
불교음반전문유통업체
02)745-6015



신비한 운석 염주, 단주
전신의 오오라와 경맥 유통 및 잠재능력 개발에 큰힘이 됨
www.mindforce.co.kr
02)735-6575

목초수액시트
잠자는동안 발바닥에 붙어 온몸을 상쾌하게!!
판매원 : 가자라이프
02)5454-010

쑥담배 BULE(블루)
쑥은 사람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식물입니다. 발명:대한불교 건강복지회
대 표 청청 고운맘
(주)황금산트레이드
02)663-9229

낙 화 (민속촌 내)
세계 유일의 향나무 명함 제작 기업
주문 수량에 맞게 제작해 드립니다. 서슴없이 연락주십시오
011-262-4371

생활불자정보

24시간 광고접수 받습니다

"한밤중이나 휴일에 광고 접수가 가능할까? 시간이 없는데.."
바쁜 일상 속에서 광고접수 시간을 놓치셨던 분들!
이젠 고민하지 마세요~
생활불자정보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붓다뉴스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광고접수가 가능해 집니다.

www.buddhanews.com



승복 · 한복
유 마
서울 종로구 수송동 25-2
02)730-99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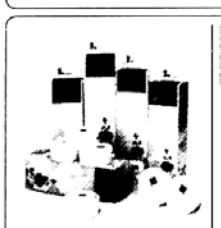
출판, 불교기획
연 중
불서기획, 출판 정성껏 대행해 드립니다
019-696-0701

전국 관광버스 정기운행에 관한 자세한 문의
053)851-7044

나우하우징
사찰건축, 실내인테리어, 전원주택, 리모델링 등 종합건축 전문 기업
02)596-3232

불자님께 최신형 핸드폰을 최고 25%까지 할인해 드립니다
016-838-1787

현 대 자 동 차
자동차의 모든것을 상담해 드립니다
011)284-3361



특별합니다!! 울 과 소
baby wash cream
신락및소금(100)℃ 약용소금(+키토산(고분자) + α = 한상르림
강력한 살균작용(해로 옥소제거, 노폐물제거, 피부세포작성)

이런분께 권합니다
★각질제거, 미백효과
★여드름이나 피부트러블로 고통받는 분
★주부습진, 무좀, 아토피성피부염
★출산후(부기)나 부인병으로 고민하시는 분 (탁월한 효과)
★부부가 같이 쓰시면 특별합니다.
★건성, 중성, 지성피부에 다 좋습니다

바이오
50g 6개(1set)=25,000원
(고가의 외제품과 비교해 주십시오)

(주)울파소 특판사업부 02)942-5470~1 소장 : 임현택
사업자등록번호 209-05-88613 서울시 성북구 길음동 1249 벤처라인B/D 202호

Mo Mo
토탈 인테리어 디자인
1544-1088

연지플라우어
각종 꽃 주문 배달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02-399-7781

동성불교사
개금 · 천불 · 범종 · 동불전문
代表 李相萬 법명:보환
TEL : 031)575-2532
FAX : 031)575-2647
자택 : 031)563-8733
031)563-8771
H · P : 011)255-3286

신간 四 柱
格局用神 격국용신
總說捷徑 총설첩경
通變話術 통변화술
(前編, 後編) 전편, 후편
사주의 격국용신과 통변술은 초보자라도 알수 있도록 총정리하여 역학계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저술하였다
著者 李恩周
靑雲易學院
02)723-7449

벼 락 맞 은 벽 조 목 염 주
스님께 염주를 보시하면 수명장수하고 좋은 업보를 받아 소원이 이루어진다하여 옛부터 벼락맞은 대추나무를 몸에 지니거나 염주, 단주 인감도장을 만들어 사용하면 한가지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학업성취, 시험합격, 결혼성혼, 부부화합, 사업번창 건강재차, 매매, 사고예방, 취업, 신규사업등 신비한 영험을 체험해 보십시요
주문전화 : 033)643-5599 / H.P 018-236-5589

"내 뒤엔 항상 부처님이…"

LPGA 우승 박세리양의 남다른 불심

"우승 뒤엔 항상 부처님과 부모님의 간절한 기도가 있어요."

14일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모바일토너먼트오브챔피언스 대회 최종 4라운드에서 화려한 역전승을 거둬 한국 골프 낭자군단의 최고봉임을 다시 한번 확인 시키고 15일 귀국한 박세리(25). 그녀는 불심도 챔피언급이다. 단주를 차고 필드에 나가는 것은 이미 익숙한 그녀의 이미지. 만(卍)자형 귀걸이를 줄기차게 달고 다닐 때는 "나치즘의 표식이냐"는 질문을 수 없이 받아야 했다. 그녀의 불심은 집안에 기도방을 두고 매일 기도하는 어머니(김정숙, 무심행)와 아버지(박준철)로부터 이어진 것이다. 박세리는 그 불심을 배경으로 세계적인 골퍼가 된 셈이다. 17일 저녁 부모님이 운영하는 식당 '이글 빌리지'(충남 유성)에서 만난 박세리는 마냥 밝았다.



◇불심으로 세계적 골퍼가 된 박세리. 매일 아침 저녁 참선을 하고 있다.

시합때 큰 敵은 나자신…참선으로 극복

"단주통해 기도하는 어머니 마음 느껴요"

다른 운동과는 달리 정신력과 체력을 바탕으로 기록과 싸우는 골프에 있어 가장 큰 적은 바로 자신. "나를 이기려는 노력이 투어에 함께 나선 모든 선수들을 이기는 비결"이라는 박세리는 "매일 잠들기 전과 잠에서 깬 직후 5-10분씩 하는 참선이 나를 지키는 힘"이라고 말했다.

-마지막 홀에서 우승이 확정되는 순간 무슨 생각을 하는가?

"행복해요. 많은 분들에게 고마운 생각이 들고 부처님의 가피라는 것도 믿어요. 그러나 그 우승의 기쁨을 오래 갖고 있을 순 없습니다. 다음 경기를 위해 다시 마음을 정돈해야 하거든요."

-단주를 차고 다니는 이유는?

"맘이 편해져요. 항상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어머니의 마음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참선이 어떤 도움을 주는지.

"경기에 임했을 때 마음이 산란하거나 흔들리는 것은 치명타입니다. 어떤 경기에서나 우승을 해야겠다는 욕심이 없을 순 없어요. 이기기 위해 경기를 하는 것이고 혼신의 힘으로 경기에 집중하는 것이 프로의 길이니까요. 그러나 라운딩을 할 때 우승에 대한 집착이 머릿속을 맴돌면 좋은 샷이 나오지 않아요. 참선은 바로 자신을 해치는 집착을 떨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늘 '마음을 비우라'고 하시는데 참선을 하면서 그 도리가 무엇인가를 느낄 수 있습니다."

-경기를 진행하면서 타수를 줄이려면 욕심을 내야 하지 않겠는가?

"경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잡념을 버리고 몰두하는 거예요. 욕심과는 다르죠. 그래서 오히려 마음을 비울 때 몰두할 수 있어요."

-25일부터 제주에서 CJ나인브릿지클래식 경기가 있는데…

"좋은 성적을 내야죠. 국내경기가 약간 더 부담스러운건 사실이지만…. (부처님이) 도와 주시겠죠? 제주도에 가서도 사찰을 찾아 기도할 생각입니다"

-결혼은 언제?

"글쎄요. 좋은 인연이…"

그녀에게 결혼 계획을 묻자 아버지 박준철씨는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는 것이 우선 목표"라고 했다. 그러자 박세리가 "그래도 약속을 지킨 셈이잖아. 6점밖에 안 남았으니까…."라며 어리광(?)을 부리는 걸로 봐서 결혼과 관련 부녀(父女)간에 모종의 약속이 있는 듯했다. 어머니는 "아직 언니도 안 갔는데…"라며 웃을 뿐이었다.

유성=임연태 기자
ytlim@buddhapia.com



외신기자 불교문화체험 와우정사서 육법공양 등

외신 기자를 위한 한국문화체험이 12일 경기도 용인 열반종(원장 해곡) 총본산 와우정사에서 개최됐다.

한국방송공사 주최로 열린 이날 한국불교문화체험에서 인도네시아, 네팔, 캐나다, 스리랑카 등 17개국 외신 기자 17명은 해곡 원장의 법어, 한국불교전통차인협회의 육법공양의식 관람 및 다도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가해 한국불교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철우 기자

대둔사서 초의茶축제

서적전시 · 전통차 시음도

'남도 끝자락 대둔사에서 가을과 초의선사의 차향을 느끼세요.'

선과 차를 통해 민족정신문화의 향기를 심어준 초의스님의 정신을 기리는 차문화축제가 26~27일 해남 대둔사와 일지암에서 열린다.

불교와 지역문화가 어우러지는 문화축제로 자리잡은 초의차문화축제는 '차와 선의 만남'을 주제로 차 관련 서적 전시, 비문 · 차 관련 문양 탁본 전시, 전통차 시음 등 풍성한 볼거리와 체험무대로 꾸며진다.

올해로 11회를 맞는 이번 행사는 육법공양, 화엄시식, 헌공다례 등 불교의식과 고려차 발표, 들차회, 천연염색 다포전, 차관련 도자기전 등 차문화가 한자리에 모이는 독특한 마당이다.

특히 한듬어린이집 어린이 15명이 시연하는 유치부 음다와 차문화협회 호남지부 다인들이 진행하는 품격 있는 고려차 시연은 차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유혹한다. 061)534-5502

박봉영기자

통도사 개산대재 법요식

괘불이운등 다양한 행사

조계종 제15교구 본사 통도사(주지 현문)는 14일 제 1357회 통도사 개산대재 법요식을 봉행했다.

통도사 부방장 초우스님, 주지 현문스님, 신도회 장복만 회장을 비롯 1천 5백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괘불이운, 헌공, 법요식 순으로 진행됐으며 이어 합창대제가 열렸다. 전날인 13일에는 부도헌다제와 통도사유치원 원생들의 재롱잔치, 백일장 등 다양한 행사로 개산조의 뜻을 기렸다.

천미희기자

인천불교회관 원만성취 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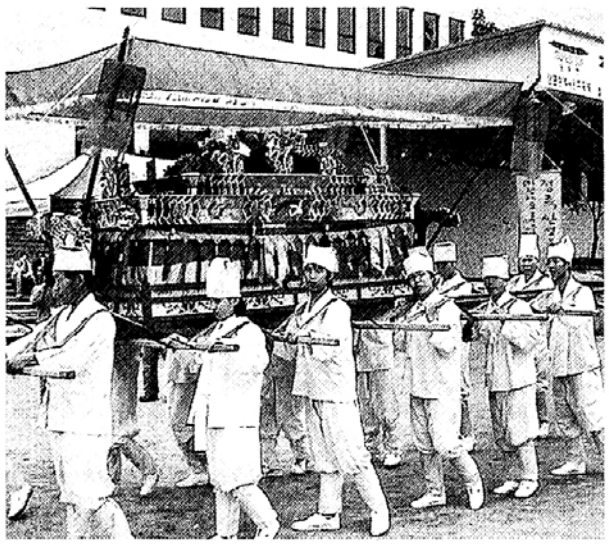
도영스님등 600명 참석 포교대법회

인천 전법도량(주지 일지)은 12일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 스님, 인천사암연합회장 지철 스님, 인천 보각선원 주지 송산 스님 등 사부대중 6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교대법회를 열고 인천불교회관 건립 원만 성취를 기원했다.

포교원장 도영 스님은 법문에서 "인천지역 불자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인천불교회관 건립을 원만하게 마무리하자"고 당부했다. 동자승으로 유명한 화가 원성 스님을 초청해 '작가와의 대화' 시간도 가졌다.

인천불교회관 관장 일지 스님은 "내년 6월 준공에 앞서 불교세가 취약한 인천지역의 포교와 문화 센터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 앞으로 매달 큰스님 초청 법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형진 기자



◇삼랑성 역사문화 축제에서 전통 상여놀이가 재연되고 있다.

한 · 불 발전관계 모색-삼랑성 역사 문화축제

'도서' 반환촉구 · 만등제 행사

외규장각 도서 반환을 촉구하고 사적 삼랑성의 역사적 의의를 조명하는 축제가 열렸다.

삼랑성 역사문화축제 조직위(공동위원장 계성스님 · 지용택)는 10월 18~20일까지 전등사 경내와 강화공설운동장 등 강화도 전역과 서울 마로니에공원에서 '삼랑성 역사문화축제'를 개최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삼랑성 역사문화축제는 병인양요(1866) 당시 프랑스군에 약탈된 외규장각 도서반환의 정당성을 지역사회는 물론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한국과 프랑스의 미래지향적 발전관계를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축제는 전통상여놀이, 풍물놀이, 민속깃발축제, 연날리기, 학술세미나, 차문화 한마당, 전통사찰학춤, 열린문화 공연 한마당 삼랑성 백일장 등 다채롭게 진행됐다.

특히 서울 마로니에공원 등 행사장 곳곳에서 열린 외규장각도서 반환촉구 서명운동과 삼랑성에 2만개의 등을 밝히는 만등제는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공동위원장 계성스님(전등사 주지)은 "전등사 스님들이 주축이 된 우리 선조들이 삼랑성에서 프랑스군을 물리쳤지만 외규장각 도서 297권은 당시 프랑스군에 의해 약탈, 현재 프랑스 루부르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며 "이번 축제가 외규장각 도서반환을 범 국민운동으로 승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화=김두식 기자

영규대사 추모법회

11월3일 공주 갑사서

임진왜란 당시 800여명의 승병과 함께 금산전투에서 장렬하게 전사한 기허당(騎虛堂) 영규(靈圭)대사 추모법회가 열린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추모법회는 11월 3일 공주 갑사(주지 장곡) 표충원에서 육해공 삼군 군승회의와 계룡산 보전 시민모임 주관으로 열린다.

1 부는 군악대취타대의장대의 위패봉안, 대중스님들의 화엄시식, 묵념, 장성화 군승회의의장의 봉행사, 심대평 충청남도지사의 추모사 순으로 열린다.

2 부에서는 산과 사람, 음악이 어우러지는 산중음악회를 통해 계룡산 국립공원과 자연환경의 소중함을 알리는 자리를 마련한다. 환경사진 및 그림전시, 불교무술시범 순으로 이어지는 2부행사는 여행스케치와 해바라기의 공연으로 끝을 맺는다.

남동우기자

어르신 2천여명 초청

범어사, 경로잔치 개최

사회복지법인 범어사(대표이사 성오)는 13일 금정중학교에서 금정구 관내와 부산시 일원의 어르신 2,000여명을 초청, 제2회 경로잔치를 봉행했다.

성오스님은 "모든 소외된 이들에게 불교계가 마음을 나누어 가는 것이야말로 불국토 실현의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천미희기자

"불교음악 '화청' 들어보셨나요?"

부산불교합창단련 '합창올림픽'서 공연

범패승이 재 끝에 엇모리장단에 맞추어 부르는 전통적인 불교음악 화청(和請)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불가에서 전해오는 불교음악을 아름다운 화음으로 들을 수 있는 공연이 25일 오전 10시 30분 부산금정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세계 39개국 4백여개팀의 1만 2천여명의 합창단원이 참가해 경합을 벌이는 2002년 부산합창올림픽 본선 무대에 오르는 부산불교합창단연합회(회장 백대일심)는 '화청'을 비롯 '오분향례' '예불' '청산을 나를 보고' '이때에 나투신 부처님' '청산을 나를 보고' 등의 불교전통음악과 현대불교음악을 선사한다.

이와 함께 범어사도 2002년 부산합창올림픽 조직위원회 24일 경내에서 2002년 부산합창올림픽 개최 기념 불교문화페스티발을 열어 세계 39개국에서 참가한 합창단원들에게 우리 전통불교문화를 알리는 자리를 마련한다. '전통등 만들기 및 연꽃 만들기, 전통다도 시연 및 시음, 영산재 시현, 불교무용, 찬불합창, 저녁예불 등 다양하고 풍요로운 불교문화의 세계를 참가국 음악인들에게 선사할 예정이다.

천미희기자

수재민희생자 추모법회

강원불교계 연합

태풍 루사로 인해 발생한 영동지역 수재민 희생자 위령 천혼 합동 추모법회가 봉행됐다.

18일 강릉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추모법회는 유족들과 현해스님(평창 월정사 주지), 마근스님(속초 신흥사 주지), 백운스님(춘천 석왕사 주지), 김진선 강원도지사, 심기섭 강릉시장 등이 참석, 청혼 착어 축원, 봉행사, 모두골의 천혼무, 성금전달, 유족대표 인사 순으로 이어졌다.

위령재 추진위원장 원행스님(원주 구룡사 주지)은 "이번 행사는 태풍 루사로 인해 영동 지역에 발생한 수재민 위로와 희생자 영가들의 49재를 맞이해 준비되었다"며 "부처님의 가피로 또다시 수재 화재 태풍등의 재앙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하는 기원도 함께 있다"고 밝혔다.

남동우기자



◇임정환 신도회장(앞줄 오른쪽)이 신도들과 육법공양의식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 절 우리 신도

온갖 역경딛고 신행활동 열심

성남 성보사 임정환 신도회장

결손가정 아이들에 남몰래 장학금

"그저 부처님을 생각하며 열심히 기도했을 뿐입니다. 그 이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서울에서 밀려난 강제 이주민의 설움과 눈물이 서려있는 성남. 지금은 분당과의 빈부 격차로 소외감과 이질감을 느끼는 성남. 그 성남 수정구 태평3동 고갯마루 위 성보사(구 수정사)에 다리에 철심을 박은 채 열심히 기도를 하는 한 노보살이 있다. 임정환(72 관음향) 신도회장.

임회장은 세속에 살면서 많은 시련을 겪었다. 94년 사고로 왼쪽 다리를 다친 것. 처음에는 다리가 삔 정도로 여겼으나 결국 대수술을 했다. 건강이 좋지 않아 마취도 하지 않은 상태로 진행된 수술 때문에 이가 다 상할 정도였다. 의식 없이 보름정도 있다 2개월 만에 퇴원을 했다. 종아리에 철심을 박고 허벅지 부분의 살을 떼어내 이식한 채로였다. 또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딸이 사고로 먼저 저 세상으로 가버렸다.

그런 만큼 임 회장에게 있어 이런 시련들은 더욱 간절하게 부처님을 찾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임 회장이 불교와 인연을 맺은 건 우연한 기회 남편 친구의 권유로 성보사 인근 만경암에 다니면서부터다. 하지만 그 때는 말 그대로 절을 찾는 수준이었다. 그러던 중 수정사 창건주 법응스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신도회장 일을 하며 열심히 부처님 법을 찾아다녔다.

지금으로부터 3년 전. 창건주 법응스님이 입적을 하자 신도들이 하나 둘 다른 절로 발을 돌렸다. 입적 당시 3년만이라도 절을 지켜달라는 유언을 남겼으나 이를 지키는 신도들을 몇 되지 않았다. 신도회장의 직함도 직함이지만 스님의 유언을 거스를 수 없었던 임 회장은 끝까지 이 절을 지켰다.

현 주지인 영인스님이 오기까지 숱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결국 영인스님이 주지취임 후 첫 법회 참석자는 임 회장을 비롯한 4명이었다. 하지만 낙담하지 않고 밤낮으로 새로운 신도 포교에 나섰다. 주지스님을 도와 신도관리에도 힘을 쏟았다.

임 회장은 남편과 두 딸, 손자 손녀와 함께 산다. 아들 내외가 용인에서 장사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키울 여력이 없다. 아이들 뒤치다거리 하다 보면 어느새 하루가 다 간다. 하지만 임 회장은 다리가 성치 않아도, 가사에 지쳐 전신이 아파도 이웃을 대하는 마음은 각별하다. 모두 인연으로 맺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임 회장 집에 들르는 이들은 찬물이라도 대접받아야 나갈 수 있다.

임 회장은 절을 찾는 것 뿐 아니라 남모르게 자비행을 행한다. 인근 성남 은행중학교 학생 중 학비에 어려움을 겪는 결손가정 아이들에게 몇 년 째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성남=남동우 기자

추천의 말

영인스님 성보사 주지



우리 절 신도회장인 임정환 신도회장은 72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의 대자대비하신 보살행을 실천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늘 얼굴에 관음의 미소를 머금은 채 불도량의 지킴이로 신도들의 귀감이 되고 있는 임 회장은 부처님이 계신 곳의 일이라면 한걸음에 달려와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간혹 탐심을 멸하지 못해 동체대비를 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 회장처럼 나를 버리고 남을 위할 줄 알 때 진정한 부처님의 제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팔만대장경의 고향 항몽의지 꽃핀 곳
(抗蒙)



제시카를 찾아서
장지현의
잊혀진가람 탐험



강화 선원사 터



국조 단군이 이 땅을 홍익성지로 골라 말뚝을 꽂고 새끼줄을 친 이래, 강화는 한라 백두의 중간인 국토의 중심이었고, 흰 옷 입은 선민들을 지키는 역사의 마지막 보루였다. 반도의 나룻목, 강화. 강화가 있었기에 쇠잔한 국운은 언제라도 불씨를 되살릴 수 있었고, 물의 일기가 불순해도 씩씩이며 반만년의 노를 저을 수 있었다. 사나운 무리들이 군침을 흘려 이 땅의 어린 권속들이 식은땀을 흘릴 때, 풀줌기 하나 돌멩이 하나까지 기꺼이 일어서 온 몸에 핏물 들이며 불심(佛心)으로 연꽃을 조각하던 호국의 땅 강화는 포구의 물봉선화 줄기조차도 저항과 긍지의 숨결을 머금고 있다.

10월의 강화는 해무(海霧)의 계절이다. 마식령 산맥의 살붙이인 김포반도가 침강하여 섬 아닌 섬이 된 강화는 서울의 문턱에 자리한 까닭에 늘 폭풍우 치는 역사의 바람받이가 되었다. 강화대교를 건너 곧장 갑곶돈대를 향해 방향을 정하면 해안도로의 코스모스, 갯벌의 물봉선화들이 해무 속에 화장을 지우고 있다. 먼 바다를 떠돌면 거뭇배는 지친 듯 돌아와 포구에 턱을 괴고, 갯벌의 풍성한 인심으로 배를 불린 철새 떠들은 삼삼오오 무리 지어 허공에 군무(群舞)를 그린다. 떠나는 자 떠나고 돌아오는 자 돌아 오라. 파도는 물으로 달리고 물은 희부듬한 안개가 되어 바다로 풀린다.

용진돈대, 오두돈대, 인진나루, 외포리 나루, 올해도 파도와 갯바람에 씻긴 강화도 왕골들은 튼실하게 종아리가 굵었다. 맑은 가을볕 아래 쟁쟁하게 말리면 십장생, 사군자로 되살아나 티 한 점 없는 화문석이 될 것 같다. 강화도의 추억은 개펄에 새긴 상형문자가 아니라 빳빳한 왕골에 칼과 끌로 새긴 화문석이다. 낮은 자리의 백성들이 왕조의 아픔, 백성의 아픔을 씨와 날로 엮어 만든 질기고 편안한 돗자리이다.

강화도는 수난과 질곡의 역사로 점철된 한반도의 축소판이다. 강화에 가면 거대한 고인돌 무덤이 섬의 중량감을 더해주고, 고려궁터, 강화산성, 용흥궁 등 옛 왕조 상흔들이 잃어버린 역사의 애증을 더해준다. 강화에 가면 무엇보다 만발한 연꽃 향기에 흠씬 취하게 된다. 정족산의 전등사, 석모도, 보문사, 마니산 정수사, 그리고 선원면 지산리의 선원사 터 등 모두가 한결같이 해풍 속에 피고 지는 맑고 부신 연꽃들이다.

강화도의 정서는 불교의 정서이고 강화도의 긍지는 불교의 긍지이다. 마니산의 '마니(摩尼)'는 악을 제거하고 탁한 것을 맑게 하며 화(禍)를 막아주는 보주(寶珠)이다. 도감마을의 '도감(都監)'은 대장도감이 설치됐던 고려대장경의 마을이니 섬 전체가 만다라요, 불법의 성지인 것이다.

세계적 문화유산인 팔만대장경을 탄생시켰던 선원사(禪源寺) 터. 간단치 않은 섬의 내력을 탐색하며 목적지인 선원사 터에 다가서면, 어느새 해무는 사라지고 어디선가 톱질소리, 대패질 소리가 들린다. 그 옛날 대몽항쟁의 원혼(冤魂)과 한(恨)이 서린 곳. 그 날의 함성이 물소리 바람소리가 되어 끝없이 섬 주변을 떠 돌고 있는 것이다. 제법이 무상하다하나 선원사터만큼 마음을 아리게 하는 것이 또 있을까. 눈 앞의 안개는 사라졌어도 지독한 세월의 안개는 지산리 일대를 덮은채 좀처럼 물러서지 않는 것이다.

선원사 터는 참으로 오랫동안 물안개 속에 가려져 있었다. 강화 섬 자체가 본토를 지척에 두고도 섬으로 남았듯이 대장경의 고향, 선원사 터는 오랜 세월동안 세월의 파도에 침강되어 섬 속의 섬이 되어 있었다. 선원사 터는 1976년 동국대학교 강화학술조사단에 의해 비로소 세상에 건져 올려졌다. 경판도, 경판을 깎던 쟁기도 어디론가 떠내려간 채 깨진 기왓장, 부서진 석축, 전돌과 치미 등 만이 가까스로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조선 태조 7년에 폐사되어 7백여년간 황량한 폐사지로 남아있던 선원사 터는 1977년에야 사적 제 259호로 지정되었다. 1993년 성원스님이 선원사지에 터를 잡고 민가를 헐어 대웅전을 지으면서 복원의 원력은 점차 파동을 치게 되었다. 4차례에 걸친 발굴조사 끝에, 금당터를 비롯 인공폭포 유적이 발굴되는 등 고려인의 불심과 구국의 얼도 조금씩 그 실체를 드러내게 된 것이다.

선원사는 고려가 몽고의 난을 피해 강화도로 도읍을 옮긴 후, 당시 집권세력이었던 무신정권의 최고 권력자 최우가 1245년(고종 32)에 창건한 절이다. 전국에 걸친 몽고족의 만행으로 국토가 유린되고, 특히 대구 부인사에 봉안되어 있던 초조대장경이 불타자 부처님의 가피로 몽고병을 물리치기 위해 민심 단결의 원력으로 구국의 원찰, 선원사를 조성하게 되었다. 선원사는 강도시대 최고의 국찰이었던 만큼 거대한 규모로 축조되었으며, 역대 주지에 진명국사 원오국사 자오국사 원명국사 광연선사 등 당대의 신망 두터운 고승들이 차례로 부임할 만큼 국난극복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리하여 순천 송광사와 함께 고려의 2대 선찰로 명성을 날리게 되었던 것이다.

현종 때 거란의 침입을 물리치기 위한 서원으로 만들었던 초조대장경을 잃은 고려는 대장도감을 선원사에 설치하고 팔만대장경 판각불사를 다시 시작하였다. 강화로 도읍을 옮기고 대몽항쟁 의지를 불사르던 1236년, 현도 4년 뒤의 일이었다. 고려 왕조의 저명한 문사 이규보는 〈대장각판군신기고문(大藏刻板君臣祈告文)〉을 지어 '임금이 문무 백관과 함께 크나큰 발원을 세워 이미 구당관사(句當官司)를 설치하고 대장경의 판각을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후대에 고하고 있다. 대장경 판각불사는 16년에 걸친 대역사 끝에 1251년 9월 완성되었다. 책의 날인 10월 11일은 바로 팔만대장경이 완간된 그 날을 기리기 위한 것이다.

1995년 경주 석굴암, 서울 종묘와 함께 유네스코 문화유산위원회에 등록된 우리나라 팔만대장경은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글씨가 정교하며 오자 탈자가 없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대장경 판각불사에 국력을 총동원하고 정성과 원력을 기울였던 고려인의 지극한 불심이 어느 정도였던가를 짐작케 한다. 고려대장경 그 자체만으로도 명실상부한 세계문화유산이며 이 나라 국보(제32호)이지만 그 정성과 기술 또한 세계적으로 보전되어야 할 한민족의 우수성이요, 한국 불교의 저력이 아닐 수 없다.

대장경은 판각된 이후, 147년 동안 선원사에 보관되었고, 조선 태조 7년(1398) 한양의 지천사로 이운되었다가 다시 합천 해인사로 옮겨져 봉안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총 1,516종의 경판과 8만 1,258매에 이르는 방대한 숫자의 장경은 그 글자 한자 한자가 창검보다 강인한 불심의 결정체이다. 왕실과 백성, 승과 속, 모두가 하나가 되었음은 물론, 산벚나무 돌배나무 자작나무 이 땅의 흔하디 흔한 초목들이 대장경 불사에 아낌없이 그 몸을 바쳤다. 만고의 성보를 만들기 위해 해풍과 눈보라도 불사를 거들고 바닷물도 그 염도(鹽度)를 더하였던 것이다.

선원사터는 팔만대장경이 용진돈대 · 용골돈대를 거쳐 강화를 떠난 후 고려말 신돈이 머물렀다는 이유만으로 불태워졌다는 쓸쓸한 뒷얘기를 남겼을뿐, 그 흔적조차 더듬기 어려운 폐허가 되어 운무 속을 떠돌고 있다. 폐사지의 풀들은 바람 보다 먼저 눕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서는가. 마른 강아지풀들이 주저앉아 넋을 놓고 있는 선원사 터에는 발굴을 위해 베어낸 해송들의 그루터기가 주초처럼 선명하게 금당터를 지키고 있다. 나무와 인연을 맺은 절터이니 만큼 망가진 뒤에도 뿌리깊은 우듬지들이 지키고 있는 것이다.

<시인 · 진각복지재단 사무처장>
사진 = 고영배 기자
다음은 충주 청룡사 터

◇선원사터에는 성원스님이 절을 짓고, 폐사지에서 발굴된 유물을 전시한 전시관도 마련해 놓았다. 참배객들이 전시 유물을 보고있다.



◇발굴을 위해 베어낸 해송들의 그루터기가 주초처럼 선명하게 선원사터를 지키고있다.
선원사터에서 발굴된 유물들. 오른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탄생불, 멧돌, 옴 마니반메훔이 새겨진 기와편, 옥(玉)등잔(시주한 연도가 적혀있다).

고려 2대 선찰…진명·원오국사등 주석
폐사 700년, 동국대 조사로 76년 알려져

생명의 소리

두드리는 소리와 돌아오는 소리가
하나로 혼융되어 삼매로 빠지나니,
이 어찌 부처님의 소리라 아니할가.
가슴에 품은 목탁의 소리,
비로소 내 마음의 소리가 되어 세상에 퍼져가나니
부처님의 소리 되어 중생을 구하리라.



축원의 목탁 / 소원성취
원아금차 지극정성 사업성취 학업성취
무병장수 발원재자 각각등보체앙몽
제불보살 가피지묘력 각기심중 소구소원
만사여의원만형통지대원



평강의 목탁 / 관음정근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멸업장진언 옴 아로특계
사바하 옴 아로특계 사바하 옴 아로특계 사바하



구원의 목탁 / 참회진언
옴 살바 못자 모지 사다야 옴 살바 못자 모지 사다야 사바하 옴 살바 못자 모지 사다야 사바하 옴 살바 못자 모지 사다야 사바하 옴 살바 못자 모지 사다야 사바하 옴 살바 못자 모지 사다야 사바하

▶ 목탁 사이즈
지름 6cm × 길이 7cm × 손잡이 2.4cm
▶ 중생불 : 고궁주버니

※목탁을 치면 축원 · 평강 · 구원의 소리가 들립니다. 늘 깨어있는 이 소리는 화암스님의 음성입니다.

얼쑤 사물놀이
(ULLSSU SAMULNOLI)
-미래문화 창달하는 우리 색과 가락-

장고, 징, 북, 꽹과리의 원형을 살린 캐릭터는
한민족 고유의 멋과 소리, 온을 녹여내는 형상이며,
원통의 띠는 고유의 단청 문양입니다.
'얼쑤 사물놀이 가락'에는 남북 통일과 국운의 융성함,
그리고 관광인 개인과 가족의 강녕을 염원하는
희망의 소리를 담았습니다.





'사물놀이 한울림'의 생생한 공연
음성 멜로디 장치를 내설하여 우면의 버튼을 누르면 울려퍼지는 본 제품의 소리는 한국의 전통문화공연의 대표적인 '사물놀이 한울림' 공연단이 직접 공연한 것으로, 늘 생생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주)P&Tech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9-5 서울 벤처타운 1702호 전화 : 02-555-1726 (代) / 팩스 : 02-555-1655

불교용품전문쇼핑몰 마 하 몰 - 특판기획상품



전통창호문양 차걸이 등(燈)
2002 서울 문화관광상품공모전 및 전국공예품대전 수상 작품
한국전통창호를 이용하여 만든 차걸이 등(燈)과 옛의고리가 출시되었다. 전통 창호의 형태를 그대로 본떠 만든 이 상품은 보는 이로 하여금 섬세한 가공형태에 만든이의 노력을 엿볼수 있다.
전통창호문양 차걸이 등 윗 꼭지를 올리면 불이 점화이게 되어 있어, 차걸이용은 물론 실내 인테리어 악세서리로도 아주 좋다.
문양종수 : 귀갑문, 띠살문, 복자문, 세살문, 아자문, 원육문, 꽃살문, 빗자문, 달마문, 근자문
· 가 격 : 차걸이등 1세트 (2개) 18,000원
· 규 격 : 32mm × 55mm · 재 질 : 장미목



반야심경 등(燈) - 황금 및 반야심경 글씨를 감상할 수 있다.
「반야심경 등(燈)은 심경의 내용을 사방에 배치하여 등에 불을 켰을 때 황금 및 반야심경의 글귀를 감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훌륭한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손색이 없는 전통 등입니다.」
반야심경은 심경이라고도 한다. 당나라 현장(三)이 번역하였고 관자재보살이 반야바라밀 행해 나타나는 법의 모습을 단적적으로 서술하고 있는데, 불교의 기초적인 법문인 오온(五蘊) · 12처(十二處) · 18계(十八界)가 모두 공(空)하며, 12연기 또한 공하며, 4가지 진리 또한 공하다고 하여 모든 법의 공한 이치를 나타내었다.
재 질 : 오동나무
· 규 격 : 12cm × 12cm × 22.5cm
정상가 ~~45,000원~~ → 특판가 35,000원 (전원 220V)

디지털 불경 룸비니 2000만 불자님의 필수품, 휴대용 디지털 불경 룸비니 시판
부처님은 내 마음 속에 있습니다. 불경 역시 내 마음 속에 있어야 합니다.
최초로 탄생한 디지털 불경 재생기는 언제 어디서나 불경을 들을 수가 있고 마음 속에 간직할 수가 있습니다. 국내최초로 천수경, 반야심경, 회엄경약찬게(독경시 스님의 음 고르는 부분을 깔끔히 없이 녹음하여 불자님 들이 따라 외기가 편합니다. (헤이즈와 CD재한됨)
· 사이즈가 작아 휴대하기 편리합니다.
· 경 선택 버튼을 누르면 안내멘트가 있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가 있고, 선택한 경을 반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 크 기 : 담배각 크기(8.6 × 5.2 × 2.0Cm)
· 이어폰 증정
· 경전종류
천수경, 신묘장구대다라니, 반야심경, 회엄경약찬게, 금강경, 법성게
· ~~정상가 55,000원~~ → 특별할인가 35,000원



아트 인테리어 용품
용무늬 풍경세트
침실출입문 천장에 달아 놓으면 풍경의 맑은 소리가 공간기운을 살리게 된다.



· 판매가 : 30,000원(2개 1set)
· 규 격 : 높이 83mm × 지름 57mm
· 재 질 : 황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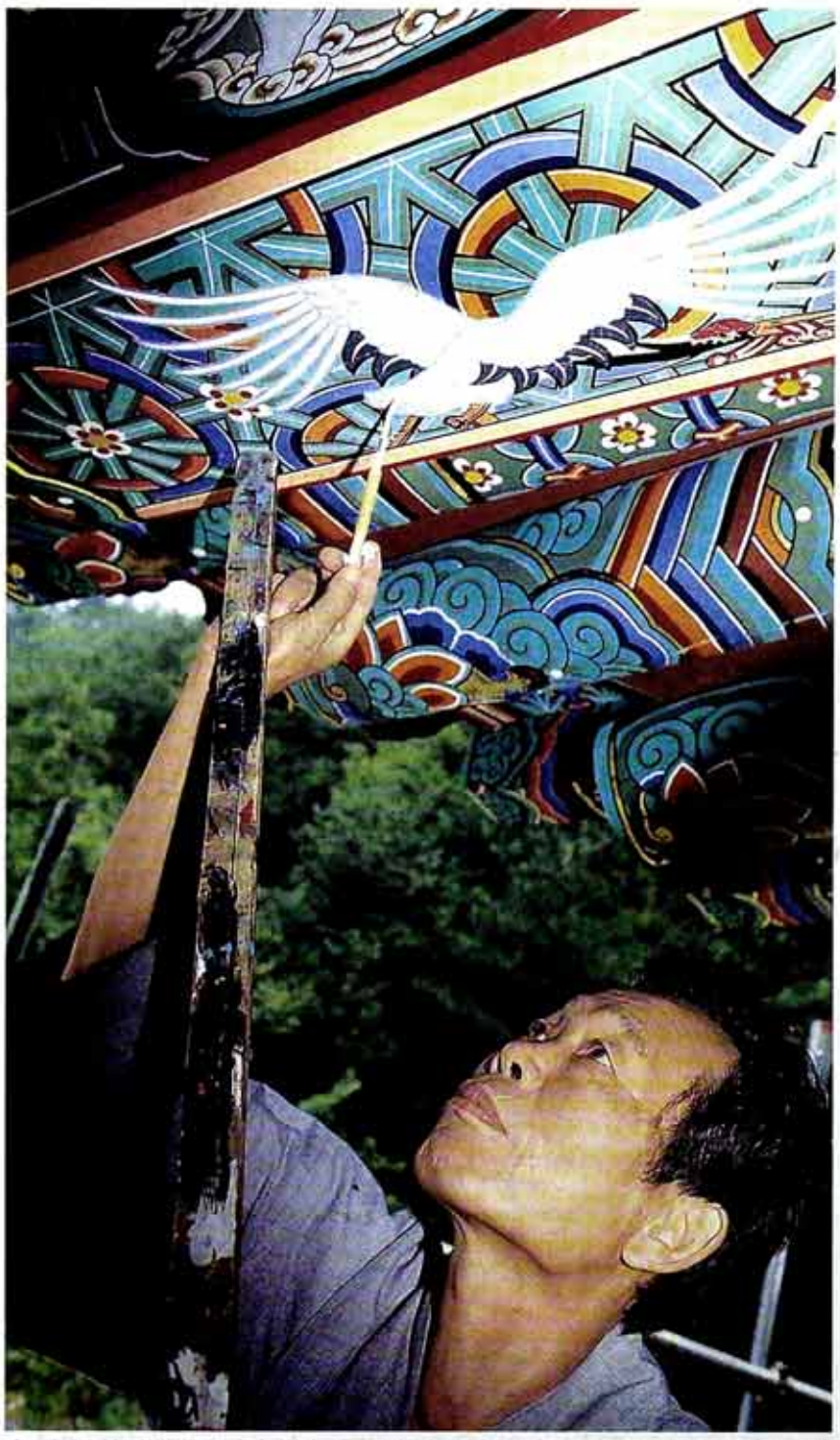
인터넷 마하몰(www.mahamall.co.kr)에 오시면 1,600여종의 불교용품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주문전화 : 02)732-1520

대전광역시 시범납골당
계룡산 구암사
극락처럼 편안하고 아름답습니다.
042)822-2377 홈페이지 www.guamsa.or.kr

산문밖의 禪

한붓 한붓 화엄세계 장엄

단청장 홍점석 옹



◇40년 가까이 불사의 현장에서 우리 단청의 전통을 지켜온 홍점석 옹은, 붓을 들고 현장에 섰을 때 살아있음을 느낀다.

40년 단청 외길

붉은빛 푸른빛이 서로 어우러지고, 기와 아래에서부터 분청살까지 이어지는 공간마다 아름다운 빛깔의 향연이 이어진다. 그 속에서 연꽃은 활짝 피어나고, 구름은 여유로이 떠다니며, 두 마리의 학까지 날아올라 화엄세계를 장엄한다.

한 붓 한 붓 빛깔을 입혀, 건물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 넣는 일 단청(丹靑).

단청은 건축물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시작되었지만, 그 본래의 목적보다는 예술적 아름다움으로 우리 감성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는 대표적인 불교 예술의 한 분야다.

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 홍점석 옹(63)은 40여년을 우리 단청의 아름다움을 오늘에 되살리는 데 전념해 온 장인이다.

그는 조선 중기부터 이어진 화사의 계보를 이은 故 원덕문 스님의 수제자이다.

맨 처음 홍씨가 단청을 접한 것은 개운사 지장전 불사를 하러온 김한수 씨를 만나면서이다. 얼떨결에 붓을 들었다가 김 씨를 따라 나선지 6년 뒤 덕문 스님을 만나 본격적인 공부를 하게 됐다. 이후 1969년 조계종 총무원에서 주최한 전국 10대 사찰 단청문양조사 사업 때, 통도사 단청문양 모사작업의 조원으로 참여한 것이 계기가 되어 당시 조사책임자였던 덕문 스님을 처음 만났다. 그때 뛰어난 미적 자질과 성실함을 인정받아 스님의 문하에 들어가 정식 금어(金魚, 단청 · 불화 · 불상에 조예가 있는 사람을 일컬음)수업을 받았다. 72년 덕문 스님과 함께 당시 조계종 총무원장이었던 월산 스님의 지원을 받아 우리나라 단청문양 연구보존을 위한 '단청문양보존연구회'를 발족하기도 했다. 92년 덕문 스님이 입적하자, 스승의 대를 이어 98년에 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으로 지정되었다.

원덕문 스님의 수제자

홍 옹은 설악산 봉정암, 오세암, 서울 도선사, 전북 금산사 등 국내 사찰과 일본 경도의 보현사 고려사, 미국 하와이 대원사 등의 단청 작업을 도맡아 했다. 지난해에는 울산 한마음선원 단청불사를 맡아 오채금장으로 현현한 화엄장엄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단청(丹靑)'이라는 것은 붉은 단(丹)이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오히려 주인은 무시하고, 청(靑)을 주로 한 '청단(靑丹)'이 되는 경향이 짙습니다. 제가 그린 단청을 모두 붉다고 하는데, 붉은 것이 주인이 되는 것. 그것이 조선 단청의 전통입니다."

'단청장'을 업으로 삼으면서 숱한 어려움에 처했지만, 홍 옹은 쉽사리 현실과 타협하지 않았다.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불제자답게 난관을 헤쳐 나갔다. 얼마든지 편법을 써서 물질적 어려움을 벗어날 수도 있었지만, 절대 양심에 꺼리는 일은 하지 않았다.

"새로운 기법을 응용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전통을 무시해서는 안 되지요. 좋은 쪽으로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수지타산이나 맞추려고 색과 문양수를 줄여 단청을 하는 요즘의 세태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단청에 사용되는 물감들은 대부분이 천연의 재료에서 추출한 것들이다. 단청의 맨 밑바탕이 되는 양록이라는 것도 원래는 조선시대에 놋쇠의 녹을 파내, 그 푸른빛을 추출해 만든 것인데, 얼마전까지 일본에서 수입해 썼으나 더이상 구할 수 없게 됐다. 그래서 홍 옹은 나름대로 양록색과 비슷한 물감 몇 가지를 섞어 이리 저리 비율을 맞추어가며 본래의 양록색과 가장 가까운 색을 만들어 낸다. 어떤 때에는 이 양록색 하나를 만드는 데에도 하루가 꼬박 걸린다. 그렇지만 이렇게 정성을 기울여도 제색이 나오지 않자, 천연물감을 구하기 위해 스리랑카, 인도, 이집트까지 발품을 팔고 다녔다. 그러나 기후를 비롯해, 여러 조건들이 다르다 보니 우리 전통의 단청과는 궁합이 맞지 않아, 제대로 된 작업을 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남은 과제 후진 양성

"정말 엄격하게 말해서 요즘 단청 가운데, 전통 단청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료 자체가 전통의 것들이 아니니까요. 색을 입히기 전에 밑그림을 건물에 새겨 넣을 때 사용하는 호분(조개껍질을 갈아 만든 하얀 가루)만 해도 그렇습니다. 돈 안되는 사업이라 더이상 만드는 곳이 없습니다. 아교도 공해 때문에 만들지 못하는 형편이고요. 답답한 노릇이지요. 이대로 가다가는 앞으로 모두 페인트로 단청을 해야 할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단청을 배우겠다고 홍 옹을 찾아온 이들 가운데 끝까지 단청장이의 길을 걷는 이들이 몇 되지 않는 것도 큰 문제다. 처음 10명이 찾아온 후 5-6년 지나면 그 중에 겨우 한명만이 남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홍 옹의 문하에는 윤길수, 김경남, 이욱, 허병길 등 4명의 전수생들이 우리 단청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제자가 주인이고, 저는 종이나 다름없어요. 제자들을 시봉하는 게 제 일인 듯 합니다. 이제 뒷방으로 물러나야 할 때이지만, 한 70까지는 제자들이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인연도 만들어 주고, 제가 가진 모든 것을 그들에게 전해줘야 할 텐데 생각만큼 실천에 옮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글= 이은자 기자 eje@buddhapia.com



"전통회화기법 모두 동원했어요"

'Tales from the Temples' 그림 작업 정경심 씨

젊은 화가 정경심 씨(28), 커뮤니케이션즈와우에서 최근 펴낸 사찰 창건설화 영역서인 〈Tales from the Temples〉에서 신선한 감각의 그림으로 책을 압도하고 있다. 강화 전등사, 예산 수덕사 등 고찰 10곳의 설화를 소개한 이 책에서 정씨는 때로는 탁본 느낌으로, 때로는 전통 불화 느낌으로, 그 외에도 민화 풍속화, 추상화 기법을 도입해 한국의 문화와 한국인의 마음을 보여주는 '절집 옛 이야기'에 예술적 향취를 불어넣고 있다. 현재 서울대 대학원 동양화과에 재학 중이며, '죽기 전에 정말 훌륭한 작품 2개만 남기자'는 것이 작은 목표라는 대단한 욕심(?)의 소유자다. ☞관련기사 18면

영감 넘치는 그림 책 압도

◆그림 그리기 위해 답사한 사찰은?

"전등사, 운주사, 내소사 등은 이번 작품을 위해 다시 가보았고, 나머지 사찰들은 그 전에 이번 작품들과 상관없이 가보았다."

◆사찰에 가서 눈여겨보는 것은?

"그 절이 주는 분위기, 편안함을 찾으려 노력한다. 전통이 사라지는 것이 안타깝다. 내가 가 본 절 가운데 부석사와 운주사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부석사는 자연과 어우러져 편안하면서도 웅대함이 느껴지는 절이고, 운주사는 내가 그림을 그려서인지 불상들의 조형적 아름다움에 매료되었다. 이번 작업에서도 가장 어려웠지만 작업 전체의 방향을 잡아준 그림이 운주사다."

◆어떤 방식으로 그렸고, 작업기간은 얼마나 가졌나?

"스케치북에 구상을 해본 다음, 원화는 스케치 없이 바로 그렸다. 내가 아는 많은 기법들을 모두 해봐서 즐거운 작업이었다. 여름 3개월 동안 다른 일 하지 않고 오로지 이 일에만 전념했다."

◆하나 하나를 회화로 봐도 좋을 것 같은데?

"우연히 일러스트 작업을 하게 됐다. 서양 일변도 기법으로 이뤄지는 것이 안타까웠고, 그래서 이번에 내가 평소 생각한 대로 하고 싶은 것을 모두 해봤다. 삽화를 그린다는 생각으로 하지 않고, 나만의 독창적인 작업이라는 생각으로 임했다. 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책인 만큼 한국적 아름다움을 살리려 애썼다. 그림만으로도 책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완성도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

◆종교는?

"지난해 결혼하면서 시댁의 영향으로 불교에 관심을 갖게 됐다. 아직 불자는 아니다. 다만 좋은 작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예술가의 몸도 최고의 경지에 이르러야 한다는 믿음을 가진 남편과 함께 매일 아침 참선 수련을 하고 있다." 이은자 기자

www.jawonet.co.kr
현대불교신문 창간 8주년을 축하합니다
희담석 稀潭石
"지병에서 벗어나 편안한 수면을 원하십니까?"

※ 다양한 디자인의 희담석 돌침대와 싱글사이즈의 돌토로도 구비하여 있습니다.
희담석 돌침대의 특징은 생명에너지 방사능력입니다.
희담원석 중에서 원적외선의 질과 양이 최고인 재료만을 엄선하였기에 침대 커버나 두꺼운 요를 깔아도 생명에너지가 그대로 투과되므로 침대에서 주무시는 것만으로도 세포의 활력을 높여주고 지병 등이 회복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제품문의
(02)3476-2335(代)
011-9230-2335
"정신집중이 잘 되는 편안한 방석을 원하십니까?"

※ 방석색상: 흑색, 연키키색, 살구색
희담 휴대용 방석은 수험생, 스님, 직장인, 운전자 등
주로 앉아서 생활하는분에게 원기와 활력을 증진시켜 주는 제품입니다.
희담석은 세포의 활성화, 노폐물 배출, 노화 억제, 항균 방어력 증강, 통증 완화, 기억력과
판단력 향상, 식품의 신선도 제고, 식물 성장 촉진 등에 효능이 있습니다.
생명의 돌, 생체활성 에키나좀 - 희담석이란?
희담석(稀潭石 / Batu Hitam)은 대구오의 최산 폭발로 인해 지구 깊숙이 묻혀 있던 무기물들이 용암과 함께 분출된 후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단단해진 화산석(현무암)의 일종으로 '생명의 돌'이라 부를 만큼 생명체에게 유익하며, 방출되는 원적외선의 질과 양은 여타의 제품보다 뛰어납니다. 이런 희담석을 성분 분석과 원적외선 파동검사를 통해 인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여 실용화한 것이 (주)자원넷의 희담석 제품입니다.
(주)자원넷
JAWONET CO., LTD.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718-4호 금구빌딩 502호
TEL:(02)3476-2335 FAX:(02)3476-2505

릴레이 수행일기 <下>



이금현
경불련 부회장
자비의집 운영

아침마다 자비의집 법당에서 분소의(糞掃衣)를 입고 계신 부처님께 한 줄기 향을 사르며 기도한다. 할머니, 할아버지들 배고프지 않고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는 분들, 봉사자 분들 항시 따뜻한 마음으로 댁내 모두 평안들 하게 해주십사고…

날마다 새로운 정진을 발원하며 '내 마음속 부처님'(自性佛)께 올리는 기도가 끝날 때쯤이면 아래층의 소란이 느껴진다. 그러나 잊지 않고 추신(追伸)처럼 나머지 마음을 자성보살님께 바쳐본다.

"중생을 어여삐 여기시는 관세음보살님처럼, 아이를 사랑하는 어머니처럼 제가 그분들을 항시 사랑하고 이해하게 해주십시오."

급식 준비에 바쁜 봉사자들의 종종걸음과 자리싸움으로 시끄러운 속에서도 밥 냄새, 국 냄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다시 화해시킨다. 항시 사람 사는 향기로움이 가득 차 오르는 자비의집, 이 곳이 바로 나의 수행이랄 것도 없는 수행의 현장이다.

오전 11시30분 시작되는 점심 급식임에도 아침 거른 어르신들의 뱃속에선 꼬르륵 소리가 흘러 나온다. 농삿일 하는 장정의 고봉밥을 드려도 배식대 앞엔 식판을 든 어르신들로 항시 소란스럽다. 식탁아래 비닐봉지에 싸 놓은 음식을 애써 감추며 적다고 떼쓰시는 분들, 통을 내민 채 끝까지 물러서지 않으며 까마귀 소리 내시는 뇌성마비 할머니 등… 모두가 우릴 슬프게 하는 분들이다.

쉼터 입소도 마다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속에서 눈칫껏 음식을 싸고도 큰소리 치는 젊은 노숙인들. 아침의 기도를 생각하며 애써 마음을 사랑으로 색칠해 본다. 아직도 나와 부딪치는 이들의 좋고 나쁜 인상을 따지는 분별망상들. 언제나 이런 상(相)조차 없는 보살행으로 내 마음을 살찌울 수 있을까.

며칠전부터 까마귀 할머니가 보이지 않는다. 모두들 궁금해하고 뒷소리가 많다. 싸간 음식을 며느리가 더럽다고 쏟아버린다느니, 잘 사시는데도 와서 잡숫고 싸 간다느니…

항상 함께 다니시던 다리 불편한 할머니에게서 눈물꽃이 피어난다. 어머니 부양도 못하던 변변치 못한 아들 내외가 할머니 방의 셋돈 600만원이 필요해서 강제로 모셔갔다고. 울며 따라간 할머니, 혹여 어디다 버렸는지도 모른다고…

남 걱정 할 처지가 아닌 분들이, 더욱 남의 아픔과 함께 하려는 그 마음이 내가 배워야할 동체대비심(同體大悲心)임을 절감한다. 무주상(無住相) 보시의 마음으로 정성껏 어르신들을 공양해도 언제나 부족한 마음이 드는 것은 아직도 '상이 없는 보시'를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이리라.

6바라밀을 모두 실천하지는 못하지만 보시, 인욕, 정진바라밀을 날마다 행하면서 조금씩 반야바라밀을 체득해 나가는 것. 이것이 내게는 생활속의 불교공부가 되고 있다.

※다음 회 필자는 차봉기 경주 몽산한의원장=바쁜 한의원 업무 가운데서도 틈틈이 금강경독송회 경주법당에서 수행하며, 의왕(醫王)이신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구현하고 있는 거사다

아직 좋고 나쁜 인상따라 분별망상
언제쯤 보살행으로 내 마음 살찌울지…



◇평일에도 매일 200여 신도들이 정진하는 서울 안국선원 큰선방. 저마다 본래면목을 회복하기 위해 치열한 자신과의 사투를 벌이고 있다.

주제가 있는 수행현장
안국선원의 간화선

대의심·대분심으로 공안 참구

의심 가장 간절할 때 '이 뭣고' 등 화두제시
신도 1000여명…날마다 200여 불자 정진

7일 오전 5시30분, 서울 종로구 가회동에 위치한 안국선원(www.ahnkookzen.org). 대부분의 사람들이 깊은 잠에 빠져든 시간임에도 큰선방에는 화두 삼매에 빠진 70여 불자들이 허리를 곧추 세우고 있다.

결제 때는 매일 600여명이 정진한다는 크고 작은 선방에는, 새벽반(4~6시)에만 60~80여명이 참석하는 등 매일 150~200여 불자들이 자리를 빠곡히 메운다. 새벽 3시30분부터 저녁 10시까지 개방된 선원에는 자율적으로 가부좌를 틀고 앉는 신도들이 끊이질 않는다.

"그 선원에 다녀보니 저절로 번뇌와 집착이 놓아지더라"는 도반의 말에 선원을 찾게 됐다는 불수광(50 서울 홍제동) 보살은 "처음엔 나도 화두를 들 수 있을까 의심했지만, 선원장 수불 스님의 자상한 지도로 이제는 흔들림 없이 정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한다.

2년전 대법당과 큰선방, 작은 선방 등으로 구성된 본관 4층 건물과 3동의 부속건물을 마련한 서울 안국선원의 재적 신도는 1000여명. 이 곳에서는 엄격한 교육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름뿐인 신도는 없다. 또한 안국선원은 늘 활기로 넘치는데, 참선 수행이 일상화돼 있고 그 수행 가풍이 철저한 '활구(活句) 참선'이기 때문이다. 사량 분별로 조사의 도리를 헤아리는 사구(死句) 참선은 엄밀한 의미에서 망상에 불과하다. 따라서 화두를 경전이나 조사어록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여 이론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려는 '죽은 참선'과는 달리, 활구 참선은 선지식으로부터 공안을 받아서 대의심, 대분심으로 참구(參究)해 나갈 뿐이다. 당장 처음 시작할 때부터 뒤를 돌아봐도, 왼쪽 오른쪽을 둘러봐도 꽉 막혀서 한 걸음도 나아갈래야 나아갈 수 없는 상태로, 한 걸음도 옮기지 아니하고 바로 참 나를 깨닫는 것이다.

신도들의 의문점을 꿰뚫어 그들에게 필요한 법문을 하며, 가장 의심이 간절해질 때 '이 뭣고' 등의 화두를 준다는 선원장 수불 스님. 스님의 법문은 〈육조단경〉 〈선요〉 〈몽산어록〉 〈마조어록〉 등 전통 조사선의 어록을 중심으로 알기 쉽게 설법하는 것이 특징. 선어록을 철저히 체화(體化)한 후 오늘의 목소리로 되살려내는 설법은 교(敎)를 통해 대신심을 내게 한 다음 대의심을 유발하고, 다시 대분심을 이끌어내 선(禪)에 이르도록 하는 체계적인 참선교육의 일환이다.

원래 부산의 태평산 안국사에 그 모체를 둔 안국선원은 서울에서 부산으로 오가는 신도의 수가 나날이 증가하자, 1996년 4월 서울 서초구 서초 1동에 선원을 개원했다. 이후 99년에 창원 안국선원과 미국의 Zen Center를 설립하고, 2001년 3월 서울 안국선원을 신축 개원하면서 살아있는 선풍진작에 나서고 있다.

"처음 수불 스님으로부터 지도를 받은 후에는 마치 용광로 속에서 푹 삶아진 뒤에 나온 것 같은 느낌이었다. 오랜 번뇌가 벗겨지면서 툭 밑이 쑥 빠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권석천(64 서울 대치동) 신도회 부회장처럼 안국선원에서 활구 참선을 닦은 이들은 한결같이 이같은 탄성을 자아내곤 한다.

서울=(02)732-0772, 부산=(051)892-9877, 창원=(055)281-0772

글=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사진=임민수 기자 yminsoo@buddhapia.com

"철저한 활구 참선 하려면 알고있는 모든것 놓아야"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



"활구 참선을 해야 합니다. 활구 참선을 하려면 그 동안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 불교에 관한 것이건, 부처님의 말씀이나 조사의 말씀까지도 전부를 다 놓아 버려야 합니다."

안국선원 원장 수불스님은 "선(禪)은 미혹의 세계를 일각에 쓸어내고 대광명의 본래면목을 곧바로 회복하게 하는 최상승의 방편"이라며, "화두는 '이것이 뭐냐'고 묻는 순간에 목에 걸려 활구가 돼야 한다"고 말한다.

스님은 '이 뭣고' 등의 화두를 한 명에게, 또는 동시에 여러 명에게 주지만, 언제나 살아있는 공안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인다. 화두를 들게 하는 근본 목적은 같지만, 그때그때의 인연과 근기에 맞게 화두를 들게 한다.

수불 스님이 조사 어록을 읽고 해석을 붙여 나가며 천년전의 선문답을 오늘날에 맞게 되살려내고 있는 것도 시대에 맞는 살아있는 방편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안국선원의 가풍은 과거형이 아닌 현재형이다. 산중에서만 닦던 화두선을 저잣거리에서 가르치는 자체가 화두선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인 것이다.

"화두가 잘 들리면 매사가 성성적적(惺惺寂寂)하게 깨어있어, 사고나 행동 모두 또렷해집니다. 사회에서 필요한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없지요."

수불 스님은 '일과 공부'가 여일하도록 생활선의 길을 안내하며, 현실에 적응하는 사회참여도 강조하고 있다.

수행 캘린더

■화두선 정진=광주 전남지역의 참선 모임인 광주선우도량(입승 정진만)은 매주 화·금요일 오후 8시 무등산 약사사(주지 범종)에서 화두선 수행에 동참할 재가 불자를 모집한다. (011)9620-0985

■정토선 염불정진=마야문화원 불교수행학교는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둘·넷째 수요일 오후 7시 능원 법사(마야문화원 부원장)의 지도로 정토선 염불정진을 갖는다. (02)722-1050

■김사철 박사 담마토크=연방죽선원은 10월 25~27일 오후 6시~9시 '불교 바로 알고 수행합시다'란 주제로 재미 과학자인 김사철 박사의 담마토크 시간을 갖는다. (02)334-1763

■참선과 태극권 수련=천마산 보광사는 '숲과 태극권 그리고 참나를 찾아서'란 주제로 10월 25~27일 참선 및 태극권 수련회를 연다. 모집인원 25명. (031)594-1316

■원로스님 친견순례=조계종 중앙신도회는 10월 22일 청주 관음사 주지 이두스님을 친견하는 '원로스님 친견순례'를 실시한다. 당일 오전 8시 30분 서울 양재역서 출발. (043)256-6254

■붓다 빠알라 스님 초청법회=보현불교대학은 10월 29일 큰법당에서 붓다 빠알라 스님을 초청법사로 '근본불교의 수행법'에 대해 강의한다. (042)624-6555

■성지순례 및 108배 정진=소리산참선캠프는 11월 9~10일(무박) 통도사 적멸보궁, 불국사 석굴암, 동화사 통일약사대불에서 성지순례 및 108정진법회를 연다. 11월 9일 오후 7시, 삼성역 출발. (011)222-3329

■우 만달라 스님 초청 수행=보리수선원은 11월 4~15일 열흘간 매일 오전 11시~오후 3시 우 만달라 스님(미얀마 마하시센터 수행 법사)의 지도로 위빠사나 집중수행 기간을 갖는다. (02)517-28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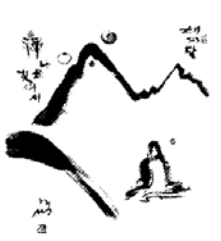
■근본불교 수행=부산 태종사는 매주 화요일 오후 7시와 매주 토요일 5시 30분 정기 법회를 열고 팔정도에 따른 근본불교 수행법을 지도한다. (051)403-1207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 좋은날 되소서

가을물 자비낙초(慈悲落草)에 담긴 무한창공의 희열.
우담바라의 선(禪)묵향이 피어낸 화엄의 바다.
청산과 녹수의 진여법계에 선 바라밀을 타고
흐르는 심공(心空).
그 염화시중의 미소가 던지는 큰 깨달음의 화두.
과연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그 진객인 성각스님의 선서화와 함께 만남의 감동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소년 소녀 가장돕기
성각스님 선서화 특별초대전

국제신문은 MBC부산문화방송과 공동으로「소년 소녀 가장돕기 2002 성각스님선서화(禪書畵)특별초대전」을
오는 10월 25일부터 11월 3일까지(10일간) 국제신문 문화센터 4층 제1전시실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초대전에는 남해 망운암 성각스님의 특유의 화법과 운필묘사, 절제의 미, 자유로운 붓놀림의 분출하는
힘이 빚어낸 달마테마전과 관음도, 산수화 등 총100여점이 전시됩니다.
새로운 미적 실험으로 또하나의 禪예술을 개척한「소년 소녀 가장돕기 2002 성각스님 선서화(禪書畵)특별초대전」에
시민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일시: 2002.10.25~11.3(오전 10시~오후 8시)
■장소: 국제신문 문화센터 제1전시실(4층)
■문의: 국제신문 문화사업국 051)500-5221~2
동아대학교 총동문회 사무국 051)243-4004

■주 최: 국제신문 MBC 부산문화방송
■후 원: 문화관광부,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 한국전통예술학회,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동아대학교 총동문회,
■협 찬: (주)동남기계, 성해참치, 불교TV염불공양회



바라밀현장

부산 맑고향기롭게 **목욕봉사팀**

목욕봉사 자체가 기도·수행

매주 수요일 8명이 2개팀으로 나눠 활동

중증 장애인과 함께 '마음의 때' 벗기기

부산 반여동 보경(17)이 집앞에 부산시장애인복지관에서 운행하는 이동 목욕봉사 차량이 서있다. 욕조가 없는 집안에 욕조가 설치되고, 이동 차량의 보일러에서는 물이 데워지고, 이동식 탕옆에는 비누, 샴푸, 수건 등이 놓여 있다. 30분이라는 짧지 않는 시간이 소요된 목욕준비가 끝나면 몸이 불편한 이를 탕까지 데려오는 일로부터 본격적인 목욕이 시작된다.

이때부터 이동 목욕봉사에 나선 맑고향기롭게 부산모임(본부장 박수관)의 이복림 보살을 비롯한 맹경숙, 신원조, 이연희 보살이 본격적으로 힘을 쓴다.

산소호흡기를 의지해 겨우 숨을 쉬는 보경이를 탕으로 옮기는 일은 네 사람이 힘을 합해도 쉬운 일이 아니다. 거동이 불편해 축 늘어진 보경이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거니와 호스가 연결된 상태로 목욕을 해야하는 상황이 행동을 제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동 목욕봉사에 앞서 받은 교육과 맑고향기롭게 노인건강센터에서의 목욕봉사 경험으로 축적된 이들의 능숙한 움직임은 보경이를 안심시키기에 충분했다.

목욕탕에 가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보경이가 따뜻한 물이 가득찬 탕에 들어가 목욕을 즐기는 동안, 때를 씻기는 봉사자들의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힌다. 한사람은 몸을 부축하고 한사람은 구석 구석 때를 씻기고, 또 한사람은 맑은 물로 헹구며 보경이의 불편한 몸과 마음을 씻어 내린다. 때를 밀때도 비누칠을 할때도 '장애인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해졌으면' 하는 봉사자들의 마음은 목욕 봉사 자체를 수행과 기도로 만들어버린다.

목욕이 끝나자 여기 저기 물이 튄 빙청소와 걸레 빨기 등 꼼꼼한 뒷정리를 마친 후에야 이들은 보경이 집을 나섰다.



◇맑고 향기롭게 목욕봉사팀은 매주 수요일 중증 장애인들을 찾아가 그들의 불편한 몸과 마음을 씻으며 '일상에 대한 감사함'을 배운다.

지난 달부터 시작해 매주 수요일마다 8명이 2팀으로 나눠 활동하는 맑고향기롭게 부산모임의 이동 목욕봉사는 오전 10시에 시작, 오후 4시가 넘어서야 끝이 난다. 반여동, 금곡동, 토성동 등 부산 전역에 흩어져 있는 장애인의 집으로 이동하는 시간과 건강한 사람보다 오래 걸리는 목욕시간 때문에 겨우 3명을 목욕시킬 수 있을 뿐이다.

이들이 직접 찾아가 목욕시키는 장애인들은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자신의 의사조차 분명히 표현할 수 없는 10대부터 60대까지의 중증장애인이 대부분.

봉사자들은 "내가 건강해서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절감하게 된다"고 입을 모은다. '일상에 대한 감사함'이라는 선물. 이것이 맑고향기롭게 부산모임 봉사자들이 일주일 내내 목욕봉사를 기다리게 하는 이유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자원봉사할수록 신심나요 내 몸이 몇개라도 됐으면…"

맑고향기롭게 **이복림** 보살



"목욕봉사 가는 날을 기다릴만큼 보람과 기쁨이 큽니다. 20년 넘도록 절에 다녀도 알지 못했던 더불어 살아가는 기쁨과 보람, 행복을 봉사현장에서 만끽하고 있지요."

맑고향기롭게 부산모임 목욕봉사팀의 최고 선배인 이복림(50. 부산 당리동) 보살은 "자원봉사를 하면 할수록 신심이 나고, 몸이 몇 개라면 더 좋겠다"는 말로 자원봉사의 즐거움을 전했다. 화요일엔 대학병원 암환자 간호, 수요일은 이동목욕봉사, 목요일은 노인건강센터 목욕봉사, 넷째주 수요일은 독거노인 밑반찬 제공 등 이보살이 하고 있는 봉사활동은 몸 한 개로는 벅차 보인다. 2001년 맑고 향기롭게 봉사자로 활동을 시작한 이보살의 봉사 이력은 처녀시절, 성애원에서의 1년 6개월 자원봉사에서 시작됐을 정도로 오래됐다. 그래서 '타고 났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곳이 너무 많다"는 이 보살은 "봉사현장의 체험을 통해 마음자리 바로 찾고 후회없이 사는 참다운 인간의 길을 배워가고 있다"며 '감사하다'는 말을 몇번이고 되풀이 했다.

신행 365일 이젠 실천이다

10월-참회의 달

- 참회는 신행의 좌표
- 포살법회 되살리자
- 참회를 통한 자기변화
- 참회의 방편
- 일상에서의 참회

참회의 방편

참회의 두 방법…이(理)참회·사(事)참회

절·독경·사경·경전공부도 참회 방편

정보명화(60 · 부산 거제동) 보살은 매년 한번씩 삼천배 참회기도를 하고 있다. 몇십년째 이어온 참회기도는 나이를 먹을수록 간절해지고 있다. 삼천배 참회는 몸은 고달프지만 지난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잘못을 짓지 않도록 하는 다짐의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삼천배 참회기도 도량인 감로사의 보명화 신도회장은 "참회를 통해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잘못을 뉘우치는 일은 밥먹은 후의 설거지와 같다"고 했다. 밥을 먹었으면 그릇을 정갈히 닦아 놓아야 다른 음식을 또 담을 수 있듯,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한순간도 멈출수 없는 것이 참회라는 말이다.

보명화 보살의 경우처럼, 가장 일반화되고 보편화된 참회법으로 절을 꼽을 수 있지만, 참회의 방법에는 크게 두가지가 있다. 예불(禮佛)이나 송경(誦經), 절 등의 작법을 통해 허물을 고백하여 참회하는 사참회(事懺悔)와 이치적으로 죄의 성품을 참구해서 지은 바 죄업을 일시에 소멸하는 이참회(理懺悔)가 그것이다. 사참회가 구체적인 죄업을 일일이 돌아보고 다시는 그 허물을 반복하지 않게 하는 다짐의 계기가 되는 반면, 실상의 도리를 관하여 죄를 소멸하는 이참회는 진리의 궁극에 이르는 방법이기도 하다.

"절을 하면서 잘못들을 하나 하나 들이키다 보니 그 잘못이 모두 내 마음의 작용임을 알게 되더군요. 그 이후 마음의 근본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참다운 불법 공부를 시작할 수 있었죠." 자비화(49 부산 금정구) 보살의 말은 사참과 이참이 결국 하나임을 잘 보여준다. 마음의 실체를 깨달아서 마음이 텅 비워지면 죄의 자성이 본래 없어 지난 날의 나쁜 습이 완전히 끊어지고 모든 죄업이 일시에 소멸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참된 참회며 육조 혜능 스님이 설한 일체 상이 끊어진 무상참회(無相懺悔)이다.



◇부산불교교육원 참선교실의 정진 모습. 참선을 통해 마음의 실체를 깨달으면 나쁜 습성을 일시에 녹이고 죄업 또한 마음의 그림자에 불과함을 알게 된다.

혜능스님은 "범부들은 어리석고 미혹하여 다만 앞전에 지은 허물만 뉘우칠 줄 알고 앞으로 일어날지 모를 허물은 조심할 줄 모른다"고 경책하며 "언제 어느 때나 생각 생각 그 마음을 맑혀 스스로 닦고 스스로 행한다면 자기의 법신을 볼 것이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부처를 보아서 스스로 제도하고 스스로 조심해야 이득이 있다"고 참회의 참 뜻을 일러 놓았다.

매일 자신의 참성품을 돌이켜 보는 절, 독경, 사경, 경전공부, 참선 등의 방편 수행을 통해 모든 악을 멀리하고(諸惡莫作), 모든 선을 행하는(衆善奉行) 일체 작용의 근본을 체득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참회임을 알 수 있다.

천미희 기자

마음비추기

'망설임의 병' 어떻게 다스릴까

사람은 나이가 어느 정도 들게 되면 지난날들을 돌아보는 일이 잦아진다. 현재의 자기모습을 보고 때로는 '만약 그때 그 일을 하지 않았거나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쯤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상념을 짓기도 한다.

이런 점에 있어서는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람도 예외는 아니다.

많지는 않지만 나이가 들면서 특히, 상상해 보는 것은 '내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지 않았다면 나의 인생은 어떻게 변해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아마도 무척 나약한 성격의 소유자로 향방 없는 삶을 살았으리라는 결론을 내릴 때가 많다.

지금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 이런 성격을 고쳤다고 여기지만, 부끄럽게도 나의 성격 가운데 못난 것이 하나가 있었다면 이럴까 저럴까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우유부단함이었다. 아마도 초등학교 3학년 때의 일로 기억된다.

어렸을 때 다니던 초등학교는 집과의 거리가 15리도 넘는 시골 학교였다. 큰 비가 오거나 많은 눈이 내리면 어린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이 힘들게 되어 부모님들이 학교에까지 마중 나오는 일이 많았다.

그날도 큰 비가 내려 어머니께서 다른 부모님들처럼 우산을 가지고 학교에까지 마중을 나오셨다. 문제는 학교가 있는 동네에 외갓집이었는데 그것도 바로 학교 담 옆이었다.

그 때 어머니는 우산을 받쳐 들고 친정집이 생각나셨는지 외갓집에 잠깐 들러 저녁이라도 얻어먹고 비가 그치면 집으로 가자고 하셨다. 나는 망설이다가 그러자고 했고 어머니는 기쁜 얼굴로 외갓집을 향해 걸어가셨다. 그런데 몇 발자국 좇아가기도 전에 나는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어머니는 좀 못마땅하신 듯하다가 다시 발길을 집 쪽으로 향했다.

나의 이런 변덕스러운 마음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나는 다시 외갓집으로 가자고 했고 어머니는 서너 차례를 따라서 응해주셨다. 그러기를 몇 번 되풀이 했을까, 드디어 어머니의 분노는 폭발하였다. 얼마나 화가 나셨던지 나의 비닐 우산대를 빼앗아 때리시는데 집에 올 때까지 그치질 않았다. 이 일로 영문을 모르는 아버지는 어머니를 크게 책망하셨고 급기야는 부부싸움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참으로 한심하다 못해 끔찍하다는 생각마저 드는 어릴 때의 성격 구조였다.

부처님 법을 만나 잘못된 성격을 단호하게 고쳐 왔기 때문에 이나마 방황이 그쳤지만, 현실 속에서 이런 과거의 내 모습 같은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된다.

사람이 무슨 일을 당해 결정을 내릴 때에는 과감하게 결정을 내리는 것이 현명하다. 망설임은 결국 나약한 성격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한 성격은 자신은 물론 주변 사람들을 똑같이 고통스럽게 한다. 그리고 그렇게 내린 결정이 잘못된 결과를 낳았다 할지라도 후회하고 연연해하는 마음을 끊는 것이 용기요, 지혜라 말할 수 있다.

寂然

결 의 문

하늘이 분노하고 산이 흐느낀다. 한국불교 16년의 역사 속에서 이토록 수행환경이 파괴된적이 있었던가!!

이땅의 개발주의자들은 자연과 인간이 둘이 아님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채 눈앞의 조그마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무차별적인 환경파괴가 수반되는 개발을 전국토에서 자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 국가의 안녕과 민족의 문화를 한몸에 지니고 있는 불교의 수행환경이 방방곡곡에서 침탈 파괴되고 있으며 급기야 우리 기장의 아니, 부산시민의 기도처인 청정도량 무궁사 마저 고속도로 건설이라는 미명아래 무차별 파괴하려한다.

이에 우리 대한불교조계종 무궁사 수호대책위원회와 부산 불교도들은 수행기도처인 무궁사를 목숨걸고 지키기 위하여 총궐기할 것을 선언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지역환경 파괴와 수행환경 파괴를 막기 위해 부산시와 기장군청이 자진하여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
- 정부는 전국토에서 이루어지는 무차별적인 개발은 필연적으로 환경을 파괴하고 그 결과 우리 후손들에게 엄청난 부채를 물려 준다는 것을 인식하고 모든 국토개발에 대하여 재 검토하라.
- 한국도로공사는 자연을 훼손하고 불교의 수행환경을 파괴하는 도로공사를 즉각 중단하라.
- 수행환경, 자연환경, 달음산을 지켜내자
- 대한불교조계종 무궁사를 지켜내자
- 기장군수 앞장서서 수행환경 보호하라
- 환경파괴, 불교침탈, 도로공사 중단하라
- 수행환경 파괴하는 도로공사 각성하라
- 불교도가 모두 뭉쳐 달음산을 지켜내자

달음산 무궁사 절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무궁사 주지 대 한

비상대책 위원장 김찬묵 무궁사 신도회장 이균호
비상대책 국 장 김 영 무궁사 부 회 장 최정봉
무궁사 부 회 장 보현행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월리 617번지(상리마을) ☎ 051)727-2877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봉 제3세 종정 봉암 대종사 및 제7대 총무원장 법철 종사 행

추대 및 취임식

만추지절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제3세 종정 봉암 대종사 추대와 제7대 총무원장 법철 종사 취임식을 아래와 같이 거행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부디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일 시 : 2002년 10월 25일(음 9. 20) 금요일 오후 2시
2. 장 소 : 일붕선원(신영동) 대법당
3. 연락처 : 총무원 ☎ 02-394~9468/9

추대 및 취임식 봉행위원회

대 법 주 : 현 붕해 대종사
지도위원 : 김 정각, 최 원정, 강 청곡
고 혜명, 정 동명, 주 대장 종사
위 원 장 : 오 현각
부위원장 : 김 일암, 김 혜묵, 김 법원

봉행위원
이 혜정, 박 갑수, 오 도일, 전 효봉, 전 해광, 이 송천
최 일선, 김 대성, 정 법보, 김 혜성, 서 철종, 오 청암
김 무정, 김 진소, 정 지연, 임 무원, 유 원승, 이 덕암
윤 정각, 신 종호, 황 공심, 장 종산, 박 청원, 김 월광
김 지관, 박 원경, 박 유송

혜경스님의

경전읽기



법화경 ⑱ 분별공덕품 제17

설법의 공덕

설법은 보살도 실천의 첫걸음

경전을 지식으로 받아들이지 말아야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거나 듣고 기억하여 마음으로부터 그것을 읽거나, 읽어주면서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 차츰 깊어지면 아무래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전해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우러나기 마련이다. 입으로 설하는 것만이 아니라 편지를 써서 전하기도 한다. 신문이나 잡지에 발표하거나 책으로 간행하는 경우도 있다. 말재주나 글재주가 없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행(行)을 통해 무언중에 부처님께서 설하신 가르침의 거룩함을 남에게 보여주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것은 아마도 진리의 속성이 외향적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것 모두를 '설법'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다.

'설법'이란 자신이 향상되고 자기를 구제하는 것(自利)에서부터, 나아가 남을 교화하고 남을 이롭게 하는 보살행(利他)의 첫걸음을 내딛기 시작하는 것이므로 그 공덕도 '독송'보다 한 단계 높은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꼭 말해두고자 하는 것은 앞에서 "부처님의 사리를 모시는 탑을 세워서 나를 공양하거나 승방(僧坊)를 만들어 스님들을 공양할 필요가 없다"라고 한 부분이다. 이 말은 "공양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 즉 정성을 다한 마음에 어린 무형의 공양이 유형의 공양보다 훨씬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부처님에 대한 최대의 공양은 그 가르침을 믿고 받아들여(信受) 실행하고 설해 넓히는 것에 의해, 자기 자신과 더불어 세상 사람들을 정화하고 향상시키는 것에 있음을 일깨워주는 말이다.

다음에 반드시 마음 속 깊이 새겨둘 것은 부처님께서 "가르침 속에는 나의 전신(全身)이 있기 때문에 나의 사리 등을 모실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다고 해서, 그렇다면 '절도 무엇도 모두 필요 없지 않는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경전을 지식으로만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칫 이런 생각을 하기 쉽다. 그런 사람은 모든 것을 왼쪽 뇌로만 생각하는 차가운 사람이며 감사라든가 공경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으로, 교리에만 사로잡혀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것이다. 즉 이미지의 뇌인 오른쪽 뇌를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 할 수 있다.

우리 신앙자들은 석존의 가르침 그 자체를 믿고 받아들여 실천에 옮기고 세상에 설해 넓히는 것에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들을 위 없는 깨달음으로 인도해 주시는 대은교주(大恩敎主)에 대해서, 또 부처님을 도와 오신 대보살들에게도 형태 있는 공양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마음이 깊어지면 그것을 형태로 나타내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으므로 우리들은 언제나 불전(佛前)을 장엄하고 조석으로 예불을 올리며 갖가지의 행으로 찬탄하고 공양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산스크리트어본 〈법화경〉 '16장 복덕의 구분'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아지타여, 그 선남자·선여인은 불멸 후의 법화경 창도자(唱導者)는 나를 위해 탑을 세우지 않아도 된다. 비구를 위해 승원을 세우지 않아도 된다. 치료를 위해 약이나 자구(資具)를 보시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아지타여, 그 선남자, 선여인은 이미 (전생에서) 나를 위해 사리공양을 마친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7보로 만든 탑을 세웠으며 그들(부처님)의 신체가 살아 계시는 탑에 천상계와 인간계의 갖가지 물건을 바쳤으니, 꽃·향나무·향료·화환·유고(油膏)·향분·의복·산개(傘蓋)·깃발 등을 공양하고 갖가지 작은 북·큰 북·아주 큰 북 등을 울리고 여러 가지 노래·취주음(吹奏音)·타음(打音) 음의 억양 등을 울려서 헤아릴 수 없는 종류의 노래와 춤으로 헤아릴 수 없는 겁 동안 공양을 마친 사람들이다. 또한 불멸 후 이 법문을 기억하고 말해 들려주고 해설하고 문자화한다면 그것에 의해 이미 전생에서 승원을 세웠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불멸 후에 이 법문을 기억하고 이야기해 들려주고 설시(說示)하고 문자화시킨다면, 아지타여, 나는 '나의 멸도 후에 그 사람은 유골탑을 세우지 않아도 되고, 승가에 공양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보통의 재가자라면 당연히 해야 할 사리공양, 불탑의 건립, 출가 교단에 대한 승원, 그 밖의 보시 등을 일반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불멸 후의 〈법화경〉 창도자는 이미 전생에서 그것들을 마쳤으며 더욱이 그것에 의해 얻은 선근 공덕에 의한 과보의 향수(享受)를 모두 보류하고 〈법화경〉 창도를 위해 이 사바세계에 다시 출생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금생에서 해야 할 일은 〈법화경〉 창도 이외는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禪과 21세기

'임제록' 통한 선 공부 ㉛

물결에서 판단하지 말라

번뇌·보리 분별할수록 '보리'는 멀어진다

스님들이여! 무엇을 찾는가? 지금 눈 앞에서 법을 듣는 의지함 없는 도인(道人)은 뚜렷하고도 분명하여 모자라거나 없었던 적이 없었다. 그대들이 조사나 부처와 다름없고자 한다면, 다만 이와 같이 알면 될 뿐, 잘못되지나 않을까 의심할 필요는 없다. 그대들 각자의 마음과 마음이 다르지 않음을 이름하여 살아있는 조사라 한다. 마음이 만약 다르다면 성품[性]과 모습[相]이 따로 있으나, 마음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성품과 모습이 따로 있지 않다.

번뇌를 어떻게 없앨 것이며, 보리를 어떻게 증득할 것인가? 번뇌를 번뇌로 여기고 보리를 보리로 여기는 한, 번뇌는 영원히 따라다니는 번뇌일 뿐이어서 없앨 수가 없고, 보리는 영원히 저 멀리에 있는 보리여서 증득할 수가 없다.

무엇이든 첫단추가 중요하다. 첫단추를 잘못 끼우면, 나머지 단추를 아무리 잘 끼워도 결국 어긋나게 되어 있다. 처음부터 분별심으로 이것과 저것을 나누고 옳고 그름을 헤아려서 도를 찾는다면, 이것은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찾는 짓이며, 물결을 헤아려 물을 찾으려는 짓이며, 꿈 속에서 꿈을 따져서 꿈을 깨어나려는 것과 같다.

이미 찾고 있는 이것이 마음인 바에야 아무리 찾아도 달리 마음을 찾을 수는 없으며, 물 아닌 물결이 없는데 이 물결 저 물결을 나누어서 어떻게 다시 물을 찾겠으며, 꿈 속에서 아무리 꿈을 깨어나는 이야기를 해봐야 그러한 짓이 바로 꿈일 뿐인 것이다.

함께 나타난다고 하였지만 사실은 어색한 표현이다. 마음은 생각이나 느낌이나 행위나 욕망이나 의식과 함께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그대로 마음이요 느낌이 그대로 마음이요 행위가 그대로 마음이요 욕망이 그대로 마음이요 의식이 그대로 마음이다. 다만 우리가 생각, 느낌, 욕망, 행위, 의식의 다양한 모양을 따라가기만 하기 때문에, 그 모양들의 속에 변함 없이 깔려 있는 마음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법을 찾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이것과 저것을 분별하거나 옳고 그름을 나누는 버릇을 먼저 버려야 한다. 어떤 것을 생각하든 어떤 감정을 느끼든 어떤 욕망을 가지든 어떤 동작을 취하든 어떤 의식이 흘러가든 한 순간도 달라지지 않고 끊어지거나 이어짐이 없이, 모든 생각과 느낌과 욕망과 행위와 의식에서 함께 나타나 있는 것이 있는가 한번 찾아보라.

마음은 평상시 의식으로 나타날 때 분별심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식적으로 마음을 찾고자 하여서는 마음을 찾을 수가 없다.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보지는 못하는 것이다. 마음을 보는 길은 오직 마음 스스로를 일깨우는 길 뿐이다. 여러 가지로 차별되게 나타나는 의식을 겉으로 드러나는 표면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찾아야 할 마음은 언제나 차별이 없는 마음 그 자체이다. 차별되게 나타나는 의식이 물결이라면 차별 없는 마음은 물 그 자체이다.

물결을 선택하여 취하고 버려서 이 물결은 물이고 저 물결은 물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의식에 어떤 물결이 일든 그 물결에는 관심을 두지 말고, 오로지 마음 자체인 물을 찾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을 의식의 깊숙한 곳에 못박아 두고서 매 순간 순간 가슴앓이를 해보라. 그리하여 때가 되면 마음 스스로가 그 아픔의 부름에 답하여 나타나 아픔을 달래주고 편안하게 해 줄 것이다. 지치지 않는 관심과 애정으로 마음을 찾는 것이 공부의 첫째 조건이다. 찾아라 그러면 찾을 필요가 없는 날이 올 것이다.

김태완 · 부산대 강사, 철학

■ 김태완 선생의 법회 안내
부산 무심선원 매주 수,토요일 수원 경기불교문화원 매달 첫째 일요일 051-515-7226(무심선원),011-9520-0054(이 정 화) http //www.mindfree.net/

박영재 교수의

과학과 불교 ⑲

이공(理工)불이와 체용(體用)불이

과학 · 공학 이분법적 접근 버리고

지혜롭게 균형있는 발전 도모해야

과학은 자연 자체를 대상으로 자연의 법칙을 탐구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고, 공학은 주로 기계나 장치 또는 가공된 재료 등을 대상으로 실제로 무엇인가를 생산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다. 하지만 과학과 공학을 명확히 구별하는 것은 쉽지 않다.

순식간에 수분을 함유한 음식을 데울 수 있는 전자렌지를 살펴보자. 이것은 과학적 발견을 통해 물의 특성 가운데 극성(極性: 전기적으로 중성이지만 양전하와 음전하들이 각각 한쪽으로 치우쳐 서로 분리되어 있는 성질)이라는 것이 알려졌기 때문에 가능해진 것이다. 극성물질은 전기장 속에 놓이면 양(음)전하쪽은 전기장의 양(음)극쪽으로 회전하는데 이 성질을 이용해 공학적으로 만든 것이 전자렌지다. 그런데 사실 데워진 음식을 무심히 먹을 때가 바로 과학이니 공학이니 하는 이원적 분별심이 끊어진 '이공불이(理工不二)'의 경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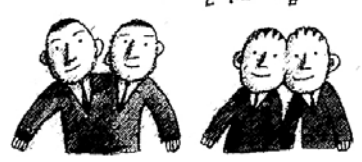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한편 과학과 공학을 불교의 체용(體用)의 원리에 비추어 이해할 수도 있다. 먼저 '체용'을 풀이하면 대체로 제법(諸法)의 체성(體性: 변하지 않는 진리 실상)과 작용(作用: 현성으로서의 구체적인 작용 또는 현상)으로 나누어 설명하나 결론을 맺을 때에는 늘 둘로 나누어 볼 수 없는 '체용불이(體用不二)'로 귀결된다.

현재 한국 이공계는 이공계 진학 기피현상에서 보듯이 그 자체로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다. 그리고 이런 것은 대학사회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교수신문의 최근호에서 밝힌 2002년 신임교수 임용 경향을 살펴보면 순수과학(이학: 상반기 6.9%, 하반기 10.5%)과 응용과학(공학, 의약학: 상반기 44.2%, 하반기 41.3%)의 심각한 불균형을 한눈에 볼 수 있다.

과학의 기초 없이 공학은 존재할 수 없으며 공학의 발전 없이 과학만으로는 첨단물질문명의 혜택을 누릴 수도 없다. 따라서 하루빨리 과학은 학문이고 공학은 학문이 아니라든가, 그래도 공학을 해야 취직도 잘되고 하지 순수과학이 당장 돈이 되는가 하는 경제논리에 의한 이분법적 접근 방식을 탈피해 '이공불이'의 정신을 살려 지혜롭게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 된다.

끝으로 〈무문관〉 제44칙에 유일하게 한국 출신인 파초(芭蕉) 선사의 체용불이에 관한 화두 '파초주장(芭蕉柱杖)'이 있어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만약 네가 주장자를 가지고 있으면 너에게 주장자를 주고, 만약 네가 주장자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너에게서 주장자를 빼앗을 것이다.' 그리고 이 공안에 대해 무문 선사는 본래면목인 주장자가 종횡천하하며 펼쳐 보이고 있는 '체용불이'의 대활약상을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 있다.

천하 종사들의 깊고 얕음은 모두 이 손안의 주장자에 달려있으며,
이 주장자로 하늘을 지탱하고 땅을 버티며 가는 곳마다 종풍을 휘날린다.
제방심여천(諸方深與淺) 도재장악중(都在掌握中)
탱천병주지(撐天幷柱地) 수처진종풍(隨處振宗風)

서강대 물리학과
yjpark@ccs.sogang.ac.kr

제6회 선우논강 안내

부처님 께서는 "법을 보는 자는 나를 보고, 나를 보는 자는 법을 본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법을 참구하려는 간절한 염원이 출가자의 기본 입지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부처님께서는 "자주 모여서 법에 대해 토론하라. 그러면 정법이 영원이 쇠퇴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선우논강은 부처님 유언에 따라 법을 토론하고 탁마하는 공부모임입니다. 문중과 본사, 비구, 비구니의 차이를 극복하고 일불제자의 모습으로 돌아가 한국불교의 수행, 교학, 포교 등 교단 발전을 위한 열린 토론과 수행의 마당입니다.

이에 1993년 이후 열리지 못했던 공부모임 선우논강을 아래와 같이 재개하오니 파사현정의 정신으로 제방의 스님들께서는 동참하시어 수행환경, 포교발전, 승풍진작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안 내

■ 일 시 : 불기 2546(2002)년 11월 1일(금) 오후 4시 - 오후 9시
■ 장 소 : 지리산 실상사
■ 주 제 : "초기불교 승가의 수행과 수행환경"
■ 기조강연 : 고우스님 (각화사 선원장)
■ 발 제 : 재연스님 (실상사 화림원)
■ 대표토론 : 흥선스님 (직지사 박물관장), 세등스님 (남양주 수동재)
■ 일 정 : 오후 4시 접수. 오후 5시30분 공양. 오후 6시30분 예불 및 논강
■ 대 상 : 조계종 비구, 비구니
■ 참 가 비 : 2만원
■ 준 비 물 : 대가사
■ 문 의 : 선우논강 사무실 (02-3676-4060), 실상사 (063-636-3031)

※선우논강 후원계좌 : 우체국 704296-02-018502 (예금주 장영기)

선우논강 대중일동
선우논강 실행선우 대표 철오 스님

위빠사나 수행법 본격 조명

근본불교 수행도량 '대념처경 수행이론과 실제' 학술대회

남방 불교의 대표적 수행법으로, 2600여 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이 직접 행해 깨달음을 얻은 수행법이라는 위빠사나를 본격 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사단법인 근본불교 수행도량(이사장 원명 스님)은 19일 오전 대한불교진흥원 3층 법당에서 '〈대념처경〉의 수행이론과 실제'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었다.

〈대념처경〉은 위빠사나 수행의 소의경전으로 현재 세계 각국에 퍼져있는 위빠사나 수행 센터에서는 이 〈대념처경〉에 근거해 수행을 지도하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는 기원전·후 1세기경의 주석가들이 〈대념처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실제 수행에 적용했는지를 밝히고, 고엔카와 마하시로 대표되는 현대의 위빠사나 수행지도자들은 어떻게 〈대념처경〉의 내용을 실제 수행에 적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자리였다.

위빠사나는 일종의 관법(觀法) 수행으로 수행자가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집중적으로 관찰함으로써 번뇌에서 벗어나는 수행방식이다. 〈대념처경〉은 몸(身), 느낌(受), 마음(心), 법(法)의 사념처(四念處)를 관찰의 기본대상으로 한다.

'〈대념처경〉의 주석서에 대한 이해'를 발표한 미산 스님(백양사 참사람수행원장)은 "〈대념처경〉의 주석서는 사념처 수행을 정해진 순서에 따라 닦아가야 한다고 보지 않았으며, 각 수행자의 근기와 성향에 맞춰 사념처 수행 중의 한 가지를 선택해서 닦아야 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신·수·심·법 중에서 어느 한 가지 염처 수행을 통해서도 수행의 최종 단계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고 말했다.

'마하시 수행법과 〈대념처경〉'을 발표한 김재성(고려대장경연구소 선임연구원)씨는 "좌선할 때는 일차적인 관찰의 대상으로 배의 움직임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과 행선이나 일상생활에서의 움직임을 중요시하고 있다는 점이 마하시 수행법의 특징이다"며 "마하시 수행법은 사념처 가운데 첫 번째인 신념처를 일차적인 관찰의 대상으로 삼는 수행법이다"고 말했다.

신념처 가운데 첫 번째 단계인 입출식염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주석서와 고엔카, 마하시 사이에 차이가 있다. 이는 실제 수행에서 들숨과 날숨을 관찰할 때 마음을 어디에 집중할 것인가의 문제와 직결된다. 고엔카 수행법에서는 윗입술과 콧구멍 아래, 즉 인중 부위에서 일어나는 감촉이나 감각에 집중한다. 반면 마하시는 수행의 처음에서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관찰해야 할 대상이 배의 움직임이라고 강조한다. 미산 스님은 이에 대해 "관찰 대상은 어떤 특정 부위가 아니라 행법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는 것이 주석서들의 일반적인 견해다"고 말했다. 선정의 성취가 목적이라면 코 주위의 느낌을 관찰하겠지만, 마음의 상태나 몸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행법을 닦고 있다면 특정 부위에 한정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학술대회 운영위원이기도 한 미산 스님은 "부처님이 직접 행한 당시의 수행법과 기원전·후 1세기, 현재 행해지고 있는 위빠사나 수행법이 얼마나 닮고, 차이가 나는지를 역사적 순서에 따라 살펴볼 수 있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는 1988년 국내에 위빠사나를 처음 알린 미얀마의 우 빤디따 스님이 참석, '〈대념처경〉과 위빠사나 수행'을 주제로 기조 법문을 했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수행자의 성향따라 '4념처' 중 선택
마하시→신념처, 고엔카→수념처 강조

고엔카와 마하시는 둘 다 "위빠사나 수행이 바로 염처 수행이고 염처 수행이 곧 위빠사나 수행"이라는 점에서 입장을 같이하면서도 강조점은 다르다. 마하시 수행법이 사념처를 골고루 닦아가는 수행법이라고 한다면 고엔카 수행법은 사념처 중에서 두 번째인 수념처를 강조한다.

'고엔카 수행법과 〈대념처경〉'을 발표한 일중 스님(인도 델리대 불교대학원)은 "고엔카 수행법은 신념처 중 호흡에 대한 마음챙김(입출식염, 入出息念)을 준비수행으로 닦은 뒤, 감각에 대한 관찰을 본 수행으로 삼는다"며 "고엔카가 가르치는 위빠사나 수행의 주 관찰 대상은 몸의 감각(受)이기 때문에 수념처가 바로 고엔카 수행법의 중심이 된다"고 밝혔다.

서산대사는 여기서 더 나아가 "선에 의해 깨달음을 얻는 것이나 염불에 의해 윤회를 벗어나는 것은 결국 일맥상통하는 것"이라며 〈선가귀감〉에서 선과 염불의 회통을 시도한다. 자신의 힘에 의해 깨달음에 이르는 선과 부처님의 위신력에 의존하는 염불이 어떻게 회통할 수 있을까? 대원 스님은 "〈선가귀감〉 안에서는 선과 염불이 모두 '진심(眞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며 "심(心)에 있어서의 진실함, 즉 진심(眞心)의 장에서 선과 염불이 만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산대사 중요한 수행체계로 인정
"眞心에 의하지 않으면 쓸모 없는 것"

서산대사는 선에서 마음을 중요시해 마음에 의해 선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음을 가르치고 있는데, 염불에 있어서도 "진심은 중요하다. 진심에 의하지 않은 염불은 쓸모 없는 것"이라며 마음의 진실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원 스님은 "〈선가귀감〉은 선과 염불이 동일한 귀결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질적으로 보이는 선과 염불이 어떠한 대립도 없이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초파일 연등회 고려중기부터

'부처님오신날'의 대표적 행사로 자리잡은 연등축제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삼국사기〉 기록을 보면 신라시대부터다. 그런데 이때는 중국의 영향을 받아 음력 정월 보름에 연등 행사를 개최했다. 이러한 상원(上元)연등회는 고려시대까지 이어져 고려시대에도 연등회는 정월 보름이나 2월 보름에 열렸다. 지금처럼 음력 4월 초파일에 연등행사를 연 것은 고려가 몽고의 침입을 피해 강화도로 도읍을 옮긴 1245년, 당시 최고 집권자 최이에 의해서였다.



◇지금처럼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에 연등회를 처음 연 것은 고려 중기 때, 정착된 것은 조선 중종 연간이다. 사진은 올해 부처님오신날 연등 축제 모습.

몽고 침입 강화 천도 후 1245년 시작
"조선 중종 연간을 기점으로 정착돼"

지난 19일 강화도 전등사 강설당에서는 삼랑성역사문화축제의 일환으로 '연등회의 전통과 전망'을 주제로 한 학술 세미나가 열려 관심을 끌었다.

이번 학술 세미나를 주최한 강화역사문화연구소 김형우 소장은 "사월 초파일 연등회가 시작된 것은 고려의 강화 도읍기 때"라고 밝혔다. 조선 정조 때 유득공이 지은 〈경도잡지〉나 1849년 홍석모가 지은 〈동국세시기〉는 '정월 보름에 연등하던 것을 최이가 4월 8일로 옮겼다'고 적고 있다.

심효섭 가천박물관 학예연구사는 "국가적 행사로서의 연등회가 개최되지 않은 것일 뿐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도 민간에서는 상원연등회와 사월 초파일 연등회가 계속 열렸다"며 "중종 연간을 기점으로 사월 초파일 연등회로 굳어지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선가귀감'에선 염불 어떻게 보나

선학회 학술대회

서산대사로 더 잘 알려진 청허 휴정스님이 쓴 〈선가귀감(禪家龜鑑)〉은 참선 수행의 중요한 지침을 모아 펴낸 책으로 지금도 우리 나라 강원에서 중요한 교재로 쓰이고 있다. 그런데 선 수행 지침서인 〈선가귀감〉에서 서산대사는 대표적 타력신앙인 염불에 대해 어떻게 가르치고 있을까.

19일 열린 한국선학회 제21회 학술대회에서 '〈선가귀감〉에 나타난 선과 염불의 조화'를 발표한 대원 스님(동국대 인도철학과 강사)은 "서산대사는 〈선가귀감〉에서 염불이 단순한 신앙 형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수행체계 중의 하나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선과 염불 모두 해탈에 이를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산대사는 〈선가귀감〉에서 "사람에게는 단박에 깨치는 이와 오래 닦아야 하는 기질이 있다"며 깨침 이후의 수행 방법에는 염불 등 여러 종류의 방법들이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염불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서산대사는 염불이 비록 타력에 의한 수행 방법이긴 하지만 어설픈 자력보다 우수함을 역설하고 있다.

조선 불화의 조형세계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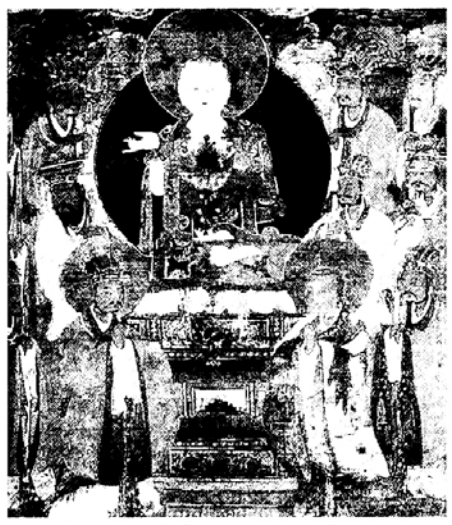
부드러운 채색의 향연

조선불화만큼 다양한 색채를 간직한 미술도 흔치않다. 고려불화는 차분하고 깊이 있는 색조로 일관된 반면, 조선시대에는 부드러운 색조, 밝은 색감, 강렬한 색채의 대비 등 시대마다 그 특색을 달리했다. 조선시대에는 색채를 화폭에서 아끼는 수묵화가 발달하였기에 불화에 펼쳐진 채색의 향연은 더욱 소중한 존재로 여겨진다.

16세기 전반 문정왕후 시절에 부드러운 색조의 불화가 등장하였다. 1562년 보우스님이 춘천 청평사에 봉안한 지장시왕도(일본 코미오지(光明寺) 소장)는 그 시기 불화 가운데 하나이다. 중종의 계비이자 명종의 어머니인 문정왕후는 유교를 숭상한 조선시대에 불교의 중흥에 뚜렷한 족적을 남긴 인물이다. 그녀는 아들인 명종이 1645년 12세의 어린 나이로 등극하면서 수렴청정을 하였는데, 이 때 보우스님을 앞세워 여러 불교관련 정책을 펼쳤다. 선종과 교종을 활성화하고, 승려가 출가할 때 국가에서 그 신분을 보장해주는 도첩제도(度牒制度)와 승과(僧科)를 부활시켰다. 이러한 정책으로 인하여 유생들과의 갈등은 점점 깊어만 갔다. 그리하여 급기야 1565년 문정왕후가 죽자마자 보우스님을 제주도로 귀향 보낸 뒤 죽이고 앞서 시행한 불교의 여러 제도들을 폐지시켰다. 유교를 표방한 조선의 왕실에서 유생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불교를 공식적으로 후원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짧은 20년간의 역사지만, 오늘날 청평사 지장시왕도를 비롯하여 10여 점의 불화가 전하여 당시의 뜨거운 열정을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문정왕후와 보우스님과 관련되어 조성된 불화들은 다른 무엇보다도 채색에서 이 시대의 고유한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차분한 색조의 바탕에

수묵 시대의 채색화, 불화만의 매력
고려불화의 차분함에 비해 밝고 강렬



◇청평사 지장시왕도(1562년, 비단에 채색, 95.2×85.4㎝, 일본 코미오지(光明寺)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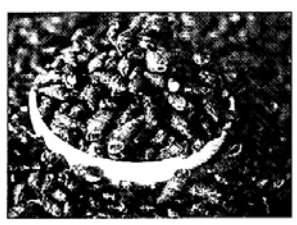
파스텔 톤의 부드러운 채색이 가미되어 있는 것이다. 청평사 지장시왕도를 보면, 시왕, 무독귀왕, 도명존자는 갈색으로 칠했지만 중심의 지장보살은 금빛을 찬란하게 발하고 있다. 금색이 여러 색채들 가운데 두드러져 보이는데, 이는 빛깔에 의하여 위계적인 질서를 부여한 것이다. 그렇지만 얼굴과 구름에 베풀어진 갈색은 화면 전체를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분명 고려불화에서 발견할 수 있는 특징으로 부드러운 색조의 기반을 이루고 있다. 그런 가운데 청록색, 자주색 등 파스텔 톤의 색채가 이 시기만의 세련된 아름다움을 자아내고 있다. 그리고 무독귀왕과 도명존자는 이마의 아랫부분과 콧잔등을 백색안료로 하이라이트 처리를 하여 입체감을 내었다. 이 음영법은 중국에서는 당나라와 송나라 때 유행한 것으로 원래 여인들의 화장법과 관계가 있다. 색채에 보이는 이러한 특징은 다분히 남성적인 명료함보다는 여성적인 감성에 가깝다. 이 불화에 나타난 부드러운 색조는 혹시 문정왕후의 취향과 관련 있지 않을는지?

▨경주대 문화재학부 교수

간(肝)이 간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 제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 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감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055) 963-9583 · 상담문의: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풍수지리(도법)

여보게
왜 어깨위에 짐을 지고 다니시는가
내가 그짐을 좀 덜어주렴?

이장에서 화장
묘터 선산 건물 집터(음, 양)

모든 감정 및 상담까지 천문지리도법으로 "산소"와 산을 형상으로 보면서 설명과 방법 및 방편법을 선택해 줌 산소 조경 및 이장 화장 분묘 등등 직접 작업함

지역별 산소터(명당자리) 다량확보
백두 풍수 연구원
www.vipsaju.net
02)3445-2959
원장 법 진

萬里四柱특강

- 변만리 선생 직강 및 약력
日刊 社會日報 주필, 月刊 陰陽과 韓方 社長
社會團體 韓國陰陽研究會長
현대 삼성 대우 롯데 선경 두산 동부 삼미 등
국내외 은행 및 400여처에서 동양철학과 건강관리 강좌

만리사주의 좋은점

시중의 중국사주는 10년을 공부해도 미완성이고, 어렵기만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주의 기본인 오행과 상생 상극을 글자대로 풀이하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사주의 오행과 상생 상극, 격국과 신살을 완전히 백지화하고, 진리와 상생 위주로 사주의 운세를 종횡 무진으로 분석 판단하였습니다.

사주 공부가 어려우십니까? 만리사주를 배워보십시오.
40년 강의 경력과 노하우를 초보자도 알기 쉽고,
흥미진진하게 배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주는 매우 논리적이고 상식적인 학문입니다.
정확하게 핵심을 배워나간다면, 결코 어려운 학문은 아닙니다.

중요 목차 및 내용

- 육신 - 인물, 인격, 환경, 운명을 판단한다
- 왕쇠강약
- 부귀빈천의 사주
- 육친관계 보는법
- 궁합 보는 법
- 택일 하는 법
- 적성 직업 보는 법
- 인생의 대항로 대운 보는 법
- 12운성과 성격 보는 법
- 일년신수를 척적 보는 법
- 운명의 격동기 보는 법
- 당면문제 감정법 - 주택문제, 진학과 고시문제, 기억문제, 재판과 형사문제, 결혼과 이혼문제 외 다수

교재(5권) + 강의 테이프(총 60개) = 85만원
스님 및 포교사 할인판매 (만세력 프로그램 50% 할인 판매 함)
문 의 : 016-460-2378 (담당자 직통)
상세한 안내서와 견본테이프 무료 우송함
판매처 : 도서출판 한국음양연구원

실기훈련 위주의
說法방법연수

단시일내에 대법사가 될 수 있는 길

부처님의 오종설법, 개차법, 대기설법
비유법등을 원론적 기준으로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성공적인 법회운영을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자료의 재구성능력이 확보되야 합니다.

과목
- 설법방법론, 실기훈련, 설득, 상담기법
- 음성, 태도, 修辭, 원고작성법, 회의진행법 등

연수안내
▶기 간 : 2개월 과정 ※수시접수
▶강 의 :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 5시
▶장 소 : 본 연수원 ▶지도교수 : 金哲會 박사
※출장 개인지도 가능합니다※

◆ 문의 및 신청 ◆
☎ 02)747-1567 / 02)737-1567
H·P 011)248-1567

韓國說法研修院
서울 종로구 종로 3가 20(영흥 B/D 4F)

책vs책

'마음꽃'
경허 지음 / 명정·정성욱 엮음
고요아침 / 1만 1천원

'이뭐꼬'
성철 지음 / 원택 엮음
김영사 / 8천5백원



'마음의 꽃' 피운 두 선사의 가르침

최근 발간된 <마음꽃>과 <이뭐꼬>는 제목이 다를 뿐 그 궁극적 지향은 같다. 영원한 마음 꽃을 활짝 피웠던 선사들의 가르침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올해는 경허스님이 열반하신 지 90년이 되는 해이다. 절묘하게도 성철스님은 9년 전에 열반하셨다. 9년과 90년. 시간적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깨달음의 본래 자리는 한치 다름이 없을 것이다.

근대 한국불교 최고 고승 가운데 한 사람인 경허 성우스님(1849~1912)의 게송을 번역한 <마음꽃>과 가야산 호랑이라 불렸던 성철스님(1912 ~1993)의 법문을 이해하기 쉽게 핵심만을 뽑아놓은 <이뭐꼬>를 함께 살펴보았다.

▶진리란?

〈마음꽃〉:뛰어난 수재여 이 게송을 보라/내가 가리키는 층층한 푸른 산/진리를 믿어 의심 없으면/연등 부처 경지 아닌데 있으랴

누구에겐들 둘이 아닌 법 없겠는가/가을 되면 기러기 떼 남쪽으로 가네/저간의 진짜 소식이여/봄이 으면 응당 북쪽으로 가네

〈이뭐꼬〉:서 있는 자리, 앉은 자리가 금방석, 옥걸상 아닌 곳이 없어서, 우리 모두가 그 자체로 아름다운 풍월, 흥겨운 장단 속에서 춤을 추고 있다. 모든 동포 자매들이여! 눈을 들어 앞을 바라보자. 끝없는 광명이 우주를 비춰서 항상 빛나고 있으니, 우주 자체가 광명이다.

▶부처는?

〈마〉:부처와 중생 내가 알 바 아니고/해마다 으레 취한 미친 중일뿐/때로는 일없이 멀리 바라보니/먼 산이 구름 밖으로 층층이 푸르네

세간 만법 무엇이 덥고 시원한가/때에 따라 둥글고 모나고 하네/너른 천지에 모든 유정들/날날이 영지가 공했으니/삼가 통하려 하지 말라

산은 은은하고 물은 잔잔히 흐르고/꽃은 피고 새는 우짖네/도인의

가슴 여니 '물은 물 산은 산'

사는 지혜가 다만 이러하니/어찌 구구하게 세속 정리에 따르겠는가

〈이〉:눈을 떠도 부처님, 눈을 감아도 부처님, 광활한 이 우주에 부처님을 피하려 해도 피할 곳이 없으니, 상하사방에 두루두루 절하며 당신네 생신을 축하합니다. 천지는 한 뿌리요, 만물은 한 몸이라. 일체가 부처님이요, 부처님이 일체니 모두가 평등하며 낱낱이 장엄합니다.

부처님의 세계는 모든 고뇌를 초월하여 지극한 행복을 누리며 곳곳이 불가사의한 해탈 도량이니 신기하고도 신기합니다. 입은 옷은 각각 달라 천차만별이지만 부처님의 모습은 한결같습니다.

▶자성이란?

〈마〉:일체 법을 스스로 배워 알게 되면 자성에는 소유가 없도다. 이와 같이 법의 성품을 알면 곧 노사나 부처를 보리라.

〈이〉:불교에서는 '영원한 생명, 무한한 능력'을 불성, 법성, 진여라고 표현한다. 이것은 누구나 똑같이 평등하게 갖고 있다. 이 능력을 계발하면 곧 부처이니 달리 부처를 구하지 말 지어다.

▶깨달음이란?

〈마〉:마음 달이 외로이 둥글어/그 빛이 만상을 삼켰네/빛과 경계를 함께 잊으면/다시 이것이 무엇인고

누가 몰이라 하며 누가 산이라 하는가/산은 구름 속에 있고 물은 돌 사이로 흐르네/대광명의 본체가 가이없는데/가슴을 열어제치고 바라보니 물과 산이더라

〈이〉:무심의 경지를 벗어나 홀연히 마음의 눈을 뜨면, 큰 지혜의 광명이 우주를 비추어 산은 산 물은 물이라는 사실을 역력히 바로 보는 동시에 일체를 바로 보고 바로 알게 된다.

이은자 기자 eljee@buddhapia.com

외국인 친구에게 선물하세요

'Tales from the Temples'
황유정 글 / 정경심 그림 / 브라이언 배리 번역
커뮤니케이션즈 와우 / 2만8천원



우리 절집 옛이야기 10편 영어로

〈Tales from the Temples〉는 불교나 사찰에 대한 안내서나 교리 해설서가 아니다. 어릴 적 할머니에게 들었을 법한 옛날이야기 같은, 언젠가 들어본 적이 있는 듯한 친숙한 우리 절집의 설화와 전설을 담았다. 그 이야기들을 통해 한국의 문화와 한국인의 정서를 외국인에게 고스란히 전달하려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다.

전등사, 수덕사, 운주사 등 10개 사찰의 설화에 사찰의 간략한 안내와 그림을 보태 영문으로 내놓은 이 책은, 불교와 사찰을 특정 종교 이상의 의미를 갖는 '문화'로서 이해하고, 한국의 대표문화로서 우리 절을 보여주고자 했다. 특히 이 책이 돋보이는 이유는 장황한 설명 대신, 그림이 바탕이자 주인이 되어 책 전편을 이끌고 있다는 것이다.

지은이 황유정씨는 아시아나항공 기내지 〈아시아나〉의 기자와 편집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커뮤니케이션즈에서 출판 기획을 맡고 있다. 번역은 미국인으로 20여년간 국내에서 번역자, 카피라이터로 활동하며 현재 인간문화재인 만봉 스님 문하에서 불화를 공부하는 브라이언 배리씨가 맡았다. 그림은 서울대 동양화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공부하면서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 중인 정경심씨가 그렸다.(관련기사 13면)

해외동포나 한국문화에 관심있는 외국인 친구에게 선물해도 좋을 만한 독특하고 재미있는 책이다.

이은자 기자

'달라이라마의 밀교란 무엇인가'
달라이라마 지음 / 석설오 편역
효림 / 7천원



밀교에 대한 바른 이해 길잡이

7세기 대승불교의 화엄사상을 기초로 인도 힌두교의 영향을 받아 성립된 불교 명상수행의 한 부파인 밀교에 관해 살펴본 책이 〈달라이라마의 밀교란 무엇인가〉이다.

'밀교인 금강승(金剛乘)이 소승 대승 불교의 바라밀다승과 교리 수행 측면에서 어떻게 다른지를 밝히고 있으며, '어떤 사람이 금강승을 수행할 수 있는지', '색신(色身)은 꼭 관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문점에 대해서도 쉽게 풀이해 놓았다.

달라이라마는 서문에서 "최근 일부 잘못된 번역과 추론으로 밀교에 대한 왜곡된 가르침이 널리 퍼지고 있다. 때문에 밀교의 가르침에 대한 진지한 설명을 하기 위해 이 책을 쓰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부처님 어떤 복을 지을까요'
강주수 외 / 현대불교 엮음
여시아문 / 1만 2천원



우리 이웃의 절절한 수행 체험기

현대불교신문사가 1995년부터 공모해온 신행수기 당선작이 책으로 묶여 나왔다.

그동안 신문 지면을 통해 소개된 46편의 수기에는 우리 이웃들의 절절한 체험에서 빚어진 수행의 발자취가 녹아들어 있다. 농아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불교 수화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내 생을 장애인과 함께', 강주수, 1회 대상), 난소암 수술 후 동국대 불교대학원에 다니며 신행활동을 하며('부처님 어떤 복을 지을까요', 이란, 2회 대상), 미국에서 겪은 개종의 유혹을 포교의 원력으로 바꾸는('아니, 미국까지 와서', 김연장, 3회 특별상) 등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며 역경을 헤쳐 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잔잔한 감동을 전해준다.

또한 감옥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며 자신이 지은 죄를 참회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내용의 수기들은 왜

신행수기 당선작 46편 단행본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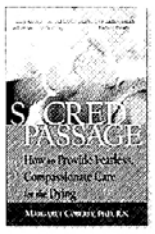
교도소 등의 교정교화에 힘써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절집 속담에 "남이 내 공부 해 준다"는 말이 있다. 이 체험담들은 독자들에게 발심의 계기와 자신을 되돌아볼 기회를 선사할 것이다.

여수령 기자

해외불서

성스러운 통과



병원 응급실 간호사인 마가렛 코벌리(Margaret Coberly)는 일상적으로 죽음을 목격한다. 그러나 그녀의 동생이 암에 걸리자 환자의 임종을 바라보는 자신의 정신적, 감성적 이해가 매우 무지함을 절감하게 됐다. 이런 부족함을 메꾸기 위해 그녀는 티베트 불교의 죽음에 관한 지혜로 눈을 돌리게 됐다.

〈성스러운 통과〉에서 저자 코벌리는 오랜 간호사 생활을 통해 티베트 불교의 가르침에서 얻은 통찰력을 적용한 사례를 들며, 죽음을 앞둔 이들에게 실제적인 충고를 해준다.

명쾌하고도 쉬운 용어로 기술된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우리가 죽었을 때 일어나는 육체적, 정신적, 영혼의 변화에 대한 상세한 순서즉, '죽음에 이르는 여덟 번의 분해과정'을 배우게 된다.

저자는 또한 '죽음에 대한 명상'으로 삶과 죽음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한다. 이 책은 죽음과 관련한 방대한 문헌목록도 싣고 있다. 미국 샴발라출판사 펴냄.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편자	출 판 사
1	화(Anger)	틱 낫 한	명진출판사
2	숫타니파타	법정스님	이 레
3	이뭐꼬	성철스님	김 영 사
4	신묘장구대다라니강해	임 근 동	솔 바 람
5	바로 이번생에	우빤디따	불광출판사
6	깨침과 깨달음	박 성 배	예문서원
7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틱 낫 한	김 영 사
8	생활속의 기도법	김 현 준	효 림
9	달라이라마와 도용의 만남	김 용 욱	통 나 무
10	산중에서 길을 물었더니	서 화 동	은행나무

도서 안내:(02)737-0695

인터넷 도서 주문
yosiamun.com
전화 : 02)737-0695 / 팩스 : 02)737-0696

참된 삶의 목적은 당신의 의식 속에 감춰져 있다!

의식의 두 얼굴

저자 밀풍 리농(密豊 理農)은 누구인가?
오랜 수행생활을 통해 의식의 본질을 체득하게 되어 20여 년 전 참된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렀으며, 깨달음이란 이론적 환상이 아니라 현실적 실체임을 세상에 입증하기 위해 불치 진단을 받은 만성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의식요법을 펼치고 있다.

'의식의 두 얼굴'에 담긴 뜻은 무엇인가?
도든 인간은 선천적인 '자연생리의식'과 후천적인 '뇌 의식'이란 두 의식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뜻을 담고 있다.

그렇다면 이 책은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가?
분명한 실체인 자연생리의식의 존재를 입증 및 설명하고 있으며, 자연생리의식과 뇌 의식의 명확한 구별을 생활화하면 누구든지 존재의 진정한 목적인 참된 깨달음에 도달하게 됨을 말하고 있다.

저자는 간화선이 필요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현재의 간화선 수행법은 자연생리의식과 뇌 의식을 동일시하고 있으므로 자연생리의식의 타파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참된 깨달음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저자가 원효 · 경허 · 성철 · 서옹 · 진제 등 한국의 대표적인 승려 5인을 언급하고 있는 까닭은?
한마디로 이 땅에 바른 불법(佛法)을 세우기 위해서이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바와 달리 이들 승려 5인이 정각(正覺)에 이른 것이 아닌 오십마(五十魔)의 마군(魔軍)이라면 큰일 아닌가!

이 책은 누가 읽어야 하는가?
삶의 참목적을 망각한 채 살고 있는 많은 이들, 수행?수련생활에 정진하고 있거나 뜻을 두고 있는 이들, 암 · 간경화 · 신장병 등 모든 성인병으로 절망에 빠진 환자 및 가족들, 한국의 불교 현실 및 바른 불법(佛法)을 알고자 하는 이들, 진정한 이상향의 실현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거나 또는 부인하고 있는 이들……



밀풍 리농(密豊 理農) 著
변형 크라운판 / 400면
값 18,000원

도서출판 의단원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 3동 400-3 동우빌딩 405호
Tel · 032-347-8118~9
Fax · 032-341-8117
✦저자 상담 : Tel · 011-559-8118, E-mail : reenong@mindbody.co.kr
✦도서 주문 : Homepage · http://www.mindbody.co.kr
우체국 계좌번호 104950-01-000455, 예금주 : 의단원

당대 불교사상과 실천을 조망하는 한국불교의 정론지!

참여불교 9·10월호 발간



인일 여면 사람이 여러분을 공격하고 삶을 위협한다면...
그와 같은 상황은 언제나 어렵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대처하든, 우리는 스스로의 동기가
다른 사람에 대한 증오로 물들지 않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관심과 연민의 마음에서 행동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 달라이 라마의 법문중에서

특집1. 대학생의 종교활동 인식조사
이번 호에서는 격월간 『참여불교』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가 공동으로 실시한 〈대학생불자들의 불교활동과 교단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특집으로 실었다. 특히 지난 2000년도에 실시한 바 있는 조사와 비교 분석한 내용이 실려있다.

특집2. 평화와 영성-2002 아셈민간포럼 국내 워크숍

생활속의 수행 가난에 대하여
참여불교의 창 남편이 속을 썩이거든랑
기획연재1. 절집건축과 생태주의 ④ - 심청정 국토청정의 사찰건축 / 이윤하
기획연재2. 동서문화의 시작과 분기, 그리고 동서미술 ④ - 인도와 서아시아의 신(神)문화 / 김현권
지상중계 도올, 달라이라마를 만난 후
초청논문 매스미디어와 불교
사찰경영칼럼 바람직한 사찰의 공간이미지
김종찬의 경제평론 부동산도 주가조작처럼 황금낙하산을 탄다
영화읽기 〈와이키키 브라더스〉의 바강스와 만행
이 책을 말한다 마하트마 간디, 비폭력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가온여울이 본 한국불교 사키야디타회의를 다녀와서
국제종교동향 미국 가톨릭 개혁단체, 교회에 직접기부 거부운동 추진
종교개혁통신 개혁적 교회정관 만든 시흥교회
오늘의 교계 이슈 진각종 비하발언, 춤가연령제한
붓다의 장 타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명세

참여불교재가연대 Buddhist Solidarity for Reform
www.buddha21.org buddha21@budgate.net 110-340 서울시 종로구 익선동 30-6 신화타워 205호 745-7799

격월간 〈참여불교〉는 전국 70여개 대형서점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참여불교와 관련된 좋은 기고문을 신고자 합니다 판매가격 7,000원 / 1년구독료 35,000원 / 구독문의 : 02-745-7799

세계 최고 … 우리문화 유산들

'유네스코가 보호하는 우리문화유산 12가지'
최준식 외
시공사 / 1만 4천원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해인사 장경판전'.

전문가가 말하는 우리 문화유산의 아름다움
고지도, 고문서, 의궤 등 풍성한 자료로 이해도와

유네스코 지정 세계 문화유산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ited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즉 유네스코가 전 인류가 함께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 귀중한 유산을 지정, 보호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 분야에 걸쳐 모두 열두 가지의 유산이 등재되어 있다.

우선 세계유산은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그리고 문화와 자연의 특성을 모두 가진 '복합유산'으로 분류되며 유적이나 자연물을 그 대상으로 한다. 우리나라에 있는 세계유산은 경주역사지구·종묘, 창덕궁, 수원 화성, 해인사 장경판전, 고창·화순·강화 고인돌 유적, 석굴암과 불국사이다.

세계 기록유산은 유네스코의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전 세계의 고문서 등 귀중한 기록물을 2년마다 지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있는 세계 기록유산은 〈승정원일기〉, 〈조선왕조실록〉, 〈백운화상초록 불조직지심체요절〉, 〈훈민정음〉이다.

세계 무형유산의 정식 명칭은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이며, 유네스코 무형유산 보호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 2년마다 지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종묘제례악이 등재되어 있다.

앞에서 나열한 유산들은 가히 세계 최고의 것들이다. 이 열두 가지 문화유산에 대한 정확한 지식만으로도 우리는 우리나라가 얼마나 문화를 소중히 여겼던 나라였는가를 알 수 있다.

자, 그럼 한번 세계 최고의 문화유산을 만나는 지적 여행을 떠나보자.

〈유네스코가 보호하는 우리 문화유산 12가지〉는 유네스코가 지정하고, 60억 인구가 보호를 자청한 열두 가지 우리 문화유산을 최초로 망라한 책이다.

이 책은 이제까지 사진과 풍광을 나열, 소개하는 데 그쳤던 기존의 문화유산 소개에서 한 발 더 나아갔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우리 유산의 깊이 있는 아름다움을 알려주고, 고지도와 고문서, 의궤 등 풍성한 그림 자료를 통해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이끌고 있다.

한국학을 대중화하는 데 앞장서 온 최준식교수(이화여대 한국학과)는 우리가 우리의 문화유산에 대해 얼마나 무지한지를 꼬집고, 그 무지 때문에 문화적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는지 의문을 던진다. 그리고 이에 뜻을 같이 하는 열두 명의 한국학 관련학자들이 모여 이 책을 만들었다. 더군다나 집필 전에 대규모 학술회의까지 열어 서로의 주장과 논리를 검증했다니 믿음이 크지 않을 수 없다.

이은자 기자 eljee@buddhapia.com

印尼 등 희귀동물 서식지 탐사기

전문가 서평

'마지막 기회'
더글러스 애덤스의
멸종위기 생물탐사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출간되기 시작한 생태·환경 관련도서의 수는 이제 4백 여 권에 이른다. 하지만 이 책들을 쉽게 접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 아직은 이런 책을 찾는 사람이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멸종 생물에 관한 책들의 운명은 책이 다루고 있는 멸종 생물의 그것과 비슷하다. 에드워드 윌슨의 〈생명의 다양성〉(까치), 데이비드 쿰멘의 〈도도의 노래〉(뿌른숲), 그리고 일본 NHK 위성방송 '생물의 목시록' 제작팀이 엮은 〈지구에서 사라진 동물들〉(도요샤)은 절판 또는 품절 상태에 있거나 재고가 별로 없는 탓에 어렵사리 구할 수 있다.

최근 출간된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에 대한 독특한 보고서인 〈마지막 기회: 더글러스 애덤스의 멸종 위기 생물 탐사〉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는 지금으로선 알 수 없다. 다만, 조심스럽게 이 책이 앞선 책들의 전철을 밟지 않으리란 전망을 해 본다. 이런 낙관적인 예측에는 다분히 그래줬으면 하는 바람이 담겨 있다. 그런데 이 책에 기대를 거는 데에는 나름의 근거가 없지 않다.

우선, 이 책은 아주 재미있다. 이는 무엇보다 영국 작가 더글러스 애덤스의 재능 덕분이다. 애덤스의 글발은 예의 여행기의 형식에서 빛을 낸다. 여행의 동반자인 마크 카워다인의 존재는 이 책의 내용을 더욱 풍부하게 했다. 카워다인은 동물에 대한 사랑과 해박한 지식, 성실성 등을 두루 갖춘 동물학자다.

애덤스와 카워다인, 두 사람의 멸종 위기 탐사는 우연한 만남에서 출발한다. 한 잡지사의 부탁으로 마다가스카르손가락원숭이 취재에 동행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취재 도중, 카워다인이 북부휜코쿨소, 마운틴고릴라, 카카포, 양쯔강돌고래, 코모도왕도마뱀, 로드리게스과일먹이박쥐 같은 "세상에서 가장 희귀하고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들, 그리고 멸종 위기에 처해 있지는 않지만 인간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곧 그러한 처지에 놓이게 될 몇몇 동물들"의 이름을 주워섬기자 애덤스는 곧바로 맞장구를 친다. 두 사람은 세계 각지로 이들을 찾아다니기로 의기투합한다.

이윽고, 1985년 만난 두 사람은 1988년과 1989년에 걸친 열 달 동안 인도네시아, 마다가스카르, 자이르, 뉴질랜드, 중국, 모리셔스 등지에 있는 희귀 동물의 서식지를 둘러보는데 이 책은 그 여정의 기록이다. 여행기의 형식을 빌렸으되 극적인 구성과 손에 잡힐 듯한 묘사는 흥미진진한 소설 뺨칠 정도다. 또한 희귀 동물을 향한 두 사람의 애정이 돋보인다.

첫 탐사지인 인도네시아의 코모도 섬에서 탐사 일행은 식사 도중 "동물을 멋대로 의인화해 인간의 감정과 인식을 자기 맘대로 투영하는 일이 얼마나 바보 같은지, 그리고 그러한 일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하지만 애덤스는 마운틴고릴라를 직접 보자 "의인화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다"는 쪽으로 입장을 바꾼다. "의인화야말로 느낀 바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까지 단언한다. 이런 시각은 뉴질랜드에서 카카포를 안은 카카포 수색자의 모습을 "성모자상(聖母子像)"이라 묘사하기에 이른다.

탐사 일행에는 방송 관계자도 포함돼 있었다. 탐사 여행이 영국 BBC 라디오의 다큐멘터리로 제작되었기 때문이다. 다큐멘터리를 잘 만드는 영국 사람들은 카메라의 힘을 빌려 자연을 지키는 일에도 열심이다. 그런데 〈지구에서 사라진 동물들〉의 머리말에서 생물의 절멸을 가져온 원흉으로 영국 사람이 지목되는 것은 자못 역설적이다. "생물들이 소멸한 최대의 원인을 단순하게 말하자면 영국인 '푹 선장' 때문이었다."

이런 아이러니가 이 책에서도 발견된다. 일종의 오지 여행기로도 읽히는 이 책은 사람들에 대한 묘사도 뛰어나다. 그렇지만 서구인의 잣대로 제3세계를 재단하는 대목은 적잖이 거슬린다. 예컨대 자이르에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얻은 통찰이 대표적이다. "무슨 대가를 치르고라도 하고 싶어 하는 일을 막는 게 직업인 사람이 한 나라에 턱없이 많다면 그 나라는 분명 예전에 식민지였을 것이다." 나는 이렇게 반문하고 싶다. 제국이 없었으면 식민지도 없었다.

그래도 나는 애덤스의 뇌리에 남아 있는 제국주의자의 무의식을 봐줄 생각이다. 희귀 생물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가 아주 맘에 들어서다. "그들이 없다면 이 세상은 좀더 비참해지고 암울해지고 쓸쓸해지기 때문이다." 인간의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이라는 기존의 통념에 비해 한결 낫지 않은가.

소설 뺨칠 정도로 흥미로운 구성
서구인 잣대로 제3세계 재단 거슬려

■최성일/ 출판칼럼니스트

〈마지막기회 : 더글러스 애덤스의 멸종 위기 생물 탐사〉는 멸종 위기에 처한, 세상에서 가장 희귀한 생물들을 찾아나선 유쾌하고 통렬한 지적 오디세이다. 동물학자 마크 카워다인의 풍부한 생물학적 지식과 더글러스 애덤스의 인문학적 지식이 유머와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어우러져 풍성한 정보와 깨달음을 안겨준다.(해나무 刊, 1만2천8백원)

'우리 옛 여인들의 멋과 지혜'
이성미 지음
대원사 / 1만 8천원


◇'독서하는 여인' 서울대박물관 소장.

옛 여인 삶, 작품·유물 통해 고찰

〈우리 옛 여인들의 멋과 지혜〉는 여인들의 삶과 그들의 예술, 문학, 학문적 세계를 그들이 남긴 작품이나 유물 등을 통해서 다각적으로 살핀 책이다.

신라시대에는 세 여왕이 있었고, 고려시대 말까지만 해도 상류층에서 여인들이 재가(再嫁)하는 것이 가능했다. 그러나 조선시대에는 유교의 도덕적 관념이 여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 억압된 사회분위기에서 살아야 했다. 우리가 기억하는 조선시대의 여인들은 신사임당과 황진이 정도다.

특히 조선시대의 여인들은 혼자서는 아무런 공적, 사회적 지위를 가질 수 없었다. 〈경국대전〉의 '이전(吏典)'에는 조선의 궁중과 조정에서 고위 관직을 가진 사람의 부인들에게 부여하는 호칭에 관한 규정이 상세히 명시되어 있다. 또 '형전(刑典)'에는 사족(士族)의 부녀들이 산간이나 물가에서 노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어기는 자는 100대의 벌을 받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책은 제한적이고 비교적 종속적인 환경에서도 지혜롭고 아름다운 삶을 이어온 옛 여인들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며,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동안 여인들의 지위 변화와 활약상을 살폈다. 우리에게 익숙한 신사임당이나 황진이 외에 허난설헌, 빙허각 이씨, 임윤지당, 죽향 등과 이름은 전해지지 않으나 뛰어난 솜씨를 보이는 수예품을 통해 여인들의 삶을 짐작할 수 있다.

삼국시대~조선시대 여인들의 지위변화·활약상 살펴

이 책은 저자인 이성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가 지난 5월 출간한 〈Fragrance, Elegance and Virtue : Korean women in Traditional Arts and Humanities〉를 우리말로 재집필한 것이다. 국내 독자들을 위해 역사적 근거나 생활상, 그와 관련된 문헌자료를 충분히 보충했다. 이 교수는 '역사에 기록되지 못한 채 사라진 많은 여인들에게 이 책을 헌정한다'고 밝혔다.

이은자 기자



입산 출가 후 줄곧 참선 수행에 정진해온
한 납자의 구수하면서도 진솔한 수행이야기!!

깨달음을 향한 치열한 수행, 가슴을 저미는 애틋한 사연, 세속을 떠난 여유,
피식 웃음을 자아내는 재미, 우리 삶을 일깨우는 작은 울림

선방 이야기
토굴土窟이야기
능인 스님 씀

맵고 짠맛에 길들여졌다가 양념 하나 안된 자연식을 맛보았을 때의 느낌이 이럴까. 복잡한 사회에서 숨돌릴 틈 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청량제가 될만한 책. 읽다보면 문득 '깨달음'에 한 걸음 다가선 듯한 느낌에 빠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대한매일신문

국판/230쪽/7,500원

티베트 밀교 무상 심요법문 【無上 心要法門】

티베트 밀교의 정수를 담고 있는 〈대수인법문〉에 대한 해설!

심요 법문이란 마음 수행의 길에서 항상 수지하면서 수행의 지남으로 삼을 수 있는 뛰어난 몇 구절의 요약된 법문을 말한다.
〈대수인법문〉은 대승의 교의를 통달하여 증과에 이르는 길을 명료하게 보여주는 심요 법문이다.
이 원문을 자주 독송하고 심요로 삼아 호지한다면 흐트러지기 쉬운 일상생활에서 흔들림 없고 굳건한 수행심과 신앙심을 지니게 될 것이다.

박건주 역해/국판양장/205쪽/8,000원

원리를 알면 漢字를 쉽게 깨우칠 수 있다!

한자는 대부분 모양을 본떠 만든 상형문자이거나 추상적인 지사문자, 그리고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부수나 글자의 어원을 이해하면 그것을 확장하여 다른 글자의 뜻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한자 이야기

이제 나도 한자 전문가!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이면 누구나 재미있게, 쉽게 익히도록 이야기식으로 꾸미고 있는데, 글자마다 그 글자가 본시 어떤 내용을 나타내기 위해서 만들어졌나 하는 어원을 먼저 이해하고, 그리고 일상생활에 쓰이는 한자말을 응용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일상에서 많이 쓰이는 1,800여 한자를 중심으로, 반복학습을 통해 자연스럽게 원리를 이해하도록 해준다.

신용태 저/신국판/554쪽/17,000원

한 권으로 끝내는 한문 문법의 해설! 알기쉬운 한문 해석법
심재동 지음/신국판/383쪽/12,000원

운주사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1가 51 다운힐 빌딩 3층
전화 02)3672-7181~5 (출판부) 926-8361

차차석 박사의

불교공부 가도



죽지 않는 길(不死之道)

〈불본행집경〉에 보면 부처님께서 중생들을 위해 법의 수레를 굴리기로 결심하고 히말라야 산을 내려오는 도중에 우파카라는 바라문을 처음으로 만나게 된다. 우파카는 부처님의 스승이 누구이며, 어떤 것을 배우는지 궁금해서 물었다. 이에 부처님께서는 '스승 없이 스스로 깨달았다' 고 말하며 '바라나시로 가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불사(不死)의 북을 울리리라' 고 대답한다.

여기서 불사의 북소리를 통해 잠자는 중생들의 의식을 깨우겠다는 선언은 부처님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를 알려주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어떤 것이 죽지 않는 혹은 사라지지 않는 불사의 북이 된단 말인가? 원래 불사란 말은 다른 말로 감로(甘露)로 번역되기도 한다. 범어로는 amrta(암리따)이며, 이것을 의역하면 죽지 않는다는 의미의 불사 혹은 하늘의 술이란 의미의 천주(天酒)가 된다. 감로란 말은 한자어를 풀이하면 단 이슬이란 의미이며, 천신들이 마시는 음료를 지칭한다. 원래는 부처님의 교법이 중생들을 잘 제도할 수 있다는 데서 연유된 말이다. 따라서 '불사의 북' 이 〈사분율〉이나 〈오분율〉, 기타 〈방광대장엄경〉 등에서는 '감로의 북' 이라 표현되고 있다.

부처님께서는 인간들이 불안하거나 불만족스러운 것은 인연으로 잠시 화합해 있는 우리 자신을 변하지 않는 나라고 집착하거나 그것을 영속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데 원인이 있다고 본다. 현실은 어떠한가? 우리들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흘러가고 있으며, 더구나 시간이 소유와 욕망, 영속성에 대한 인간들의 바램을 물거품으로 만든다.

부처님은 이러한 인간의 속성을 낱낱이 살펴보고 진정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자 한다. 〈샹윳타니카야〉 권8에 다음과 같은 문답이 나온다. "부처님, 불사라 하는데 불사란 어떠한 것이고, 거기에 이르는 길은 어떠한 것입니까?" 이러한 제자의 질문에 부처님께서는 "수행승이여, 탐욕이 소멸하고, 성냄이 소멸하고, 어리석움이 소멸하면 그것을 불사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여덟 가지의 성스러운 길이야말로 불사에 이르는 길이다"라 대답하고 있다.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영원히 죽지 않고자 하는 것은 우리들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적 요소와 심리적 요소들이 영원히 파괴되지 않고 그 형태를 유지해 가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것은 불가능하다. 아니 이제까지 죽지 않은 사람은 단 한명도 없다. 그럼에도 인간은 영

삼독심이 죽음에 이르는 요인
8정도로 정신적 不死의 길을

원히 살고 싶어 하며, 죽음 앞에 서면 위축되거나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다. 부처님은 여기서 죽지 않는다는 것을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 육신의 죽음이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 죽음이야말로 더욱 심각한 것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살아도 송장과 같은 삶, 아니면 살아도 죽음 보다 못한 삶을 일깨워 주고 싶었던 것이다. 그래서 탐욕과 성냄, 그리고 그로인해 야기되는 올바른 판단력의 상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정신적 죽음으로 내모는 요인들이라 말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이 현실이라면 이러한 요인들을 치유하여 정신적으로 죽지 않는 길을 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8정도인 것이다. 올바른 견해, 올바른 사유, 올바른 언어, 올바른 행위, 올바른 생활, 올바른 정진, 올바른 새김(정념), 올바른 집중이 그것이다. 이 8정도를 다시 분류하면 견해와 사유는 지혜에 해당하며, 언어부터 정진까지는 계율에 해당한다. 그리고 새김과 집중은 선정에 해당한다. 다시 계율은 탐욕을 조절해 주며, 선정은 성냄을 조절해주고, 지혜는 어리석움을 치유해 준다는 점에서 8정도가 정신적인 불사의 길이 되는 이유로 삼고 있는 것이다.

<본지 상임논설위원 · 불교학 박사>

서울의 대표적 달동네인 관악구 봉천 6동에 자리잡은 승덕정사. 태고종 원로의원 덕화스님(71세)이 꼬박 35년간 포교에 전념해온 곳이다. 지역특성대로 사람들이 오가는 작은 골목 길 바로 옆에 있다. 직업군인의 길을 접고 67년 판잣집들이 늘어선 황무지에 단돈 450원을 들여 조그만 움막법당을 만들면서 승덕정사는 지역주민들의 보금자리로 자리 잡았다.

시간만 나면 덕화스님은 사찰의 이 곳 저 곳을 쓸고 닦는다. 기자가 찾아간 때도 빗자루를 들고 계셨다.

"부처님 도량을 깨끗하게 해야지. 그것이 부처님을 잘 모시는 길입니다. 그래서 정성을 다하는 것이지요. 기도처가 깨끗하면 찾아오는 신도들의 마음도 맑아지지 않겠어요."

사찰에 신도와 공양주 보살도 계신데 노스님께서 이렇게 쓸고 닦으면 주위사람들이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스님은 단호하게 말을 잘랐다.

"부처님 법은 승속을 막론하고 실천해야 빛이 납니다. 나 자신부터 실천해야 신도들도 따라하지요. 그래야 생활불교가 이뤄집니다. 부처님 말씀대로만 살면 모두가 편안합니다. 부처님 말씀은 나보다 남을 생각하라는 것이지요. 기도도 정진도 남을 위해 해야 합니다. 그러면 저절로 내 자신도 편안해집니다. 사람들은 나, 내 가족에만 집착합니다. 하지만 나와 내 가족만 평안하다고 행복하다 할 수 없습니다. 주위사람들이 함께 행복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나와 내가족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스님은 35년간 신도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말한 적이 없다. 남이 보든 안보든 육바라밀을 실천해왔다. 그것을 위해 스님은 자비봉사를 위해 항상 '그늘' 을 지향해 왔다. 지역주민 중 어려운 사람이 있다는 소식만 들으면 이유를 불문하고 돕는 일부터 시작한다. 워낙 소리 소문 없이 비밀스럽게 행을 하다보니 정작 도움 받은 사람들도 누가 자신을 도왔는지 모를 정도였다고 한다. 30여년에 걸쳐 자비행을 실천하다보니 어느덧 소문이 퍼져 지역과 주민들이 국가에 상을 상신했다. 그래서 94년 스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국민복지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노태우 대통령으로부터 '국민훈장 석류장' 을 받았다.

하지만 "불자들이 어렵게 모아서 사찰에 내는 보시금은 원래 내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절에 들어온 돈은 먹고 살만큼만 남기고 다시 어려운 대중들에게 돌려줬을 뿐인 돼 공연히 알려져 상까지 받아 부끄럽다." 며 지금도 상받은 것에 대해 별로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스님의 무욕생활은 사찰운영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법당 등값은 하루100원, 돈이 많으나 적으나 사회적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기도비는 초, 향 값을 포함 월 15,000원이다. 신도들은 더도 덜도 낼 수 없다. 이 같은 원칙은 어떠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사찰의 규모가 예나 지금이나 그대로입니다. 땅 한평, 집 한칸 늘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나마 잘 지켜 후세 스님들에게 물려지면 그만이지요. 시줏돈은 내 돈이 아니예요. 사찰은 자꾸 베풀어야 합니다. 가진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베풀어야 합니다. 세상의 재화는 주인이 없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욕심의 산물이지요. 재화는 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눠 갖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갖고 어떤 사람은 너무 없어요. 나의 재화가 남의 재화를 가져 온 것을 안다면 반드시 베풀게 될텐데 그것을 몰라요. 세상에 나올 때 맨손으로 왔으니 갈 때도 빈손으로 갑니다. 그러니 재산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부자들은



61년 덕암스님 은사로 출가…사회봉사 진력

덕화스님은?

태고종 원로의원인 덕화스님은 평생 봉천동에서 포교에 전념해온 노스님이다. 1932년 경북 안동에서 태어난 스님은 직업군인으로 복무하다 61년 5·16군사 쿠테타 때 제대했다.

61년 서울 사간동 법륜사에서 덕암 스님을 은사로 출가하여 67년 봉천동에 승덕정사를 창건했다. 스님은 80년 동국대 불교대학을 수료하고, 82년 서울 경찰청 경승, 87년 민족평화통일자문위원회 자문위원, 98년 태고종 중앙사정위원을 역임했다. 현재 민족평화통일자문위원회 상임위원, 태고종 원로회의 의원이다.

사회봉사활동에 진력해온 스님은 지역 스님들과 지역주민의 신망이 두텁다. 스님의 이러한 노력은 지역주민들의 추천으로 90년 대통령 표창에 이어 94년 정부로부터 국민훈장 석류장을 받았다.

상내지 않고 베푸는 마음
세상을 맑게하는 힘



가까이서 뵌 큰스님

덕 화 스 님 (서울 승덕정사 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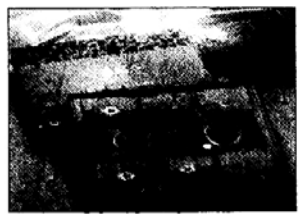


◇태고종 원로의원인 덕화스님은 승속을 막론하고 육바라밀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가진 것에 만족 못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이 욕심을 버리지 못해 오히려 병을 얻습니다. 세상을 살다보면 그 많은 재화를 써보지도 못하고 하직하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또 재화가 그리 많지 않지만 어느 정도 살만한 사람도 상대적인 비교로 괴로워하고 욕심을 냅니다. 모두 쓸데없는 욕심이지요. 욕심을 가지면 안됩니다. 최대한 베풀어야 합

"향기"로 아름을 날린다!!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 는 1997년 제15회 동경국제박람회에 출품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향요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가 또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등 세계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민의 근본적인 해결책임이 밝혀졌습니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 고민은 끝 –

이 향비를 신궐혈(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약용식물의 성분이 신궐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호능, 뜸의 호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호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 체험사례

생리통 · 기미

저는 25세의 회사원입니다. 항상 생리 때가 되면 끊어질듯 아프며 거기다 두통까지 겹친 생리통으로 고생해왔습니다. 그래서 양약이며 한약도 여러 번 지어먹어 보았지만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하던 터에 한방과 건강이라는 책을 통하여 향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향 요법을 자세히 읽어보니 매번 약을 먹는 것보다 인체에 전혀 부작용이 없는 향비팩을 배꼽(신궐혈)에 차는 것만으로 좋아진다고 하기에 반신반의하며 착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후 생리를 하게되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모든 증상이 말끔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한달 여일이 지난 후에는 눈주위의 기미 때문에 남몰래 고민해 왔었는데 그런 기미마저도 서서히 없어지는 것을 느끼며 나 자신도 몰라볼 정도로 피부와 혈색까지 좋아졌음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향비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게 되었고 그 동안 이런 제품이 왜 더 빨리 나오지 않았었나 하는 아쉬움까지 남겨질 정도로 향비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며 모든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게되어 제품을 만드신 분들에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서초구 김미선)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해당되는 증상에 ○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10. 생리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18. 당뇨나 갑상선으로 고통을 당한다

CUMIN·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

승복 법복 안내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며 항상 처음이라는 자세로 변함없이 제품 생산 · 연구에 임하는
저희 업체에서는 부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정성껏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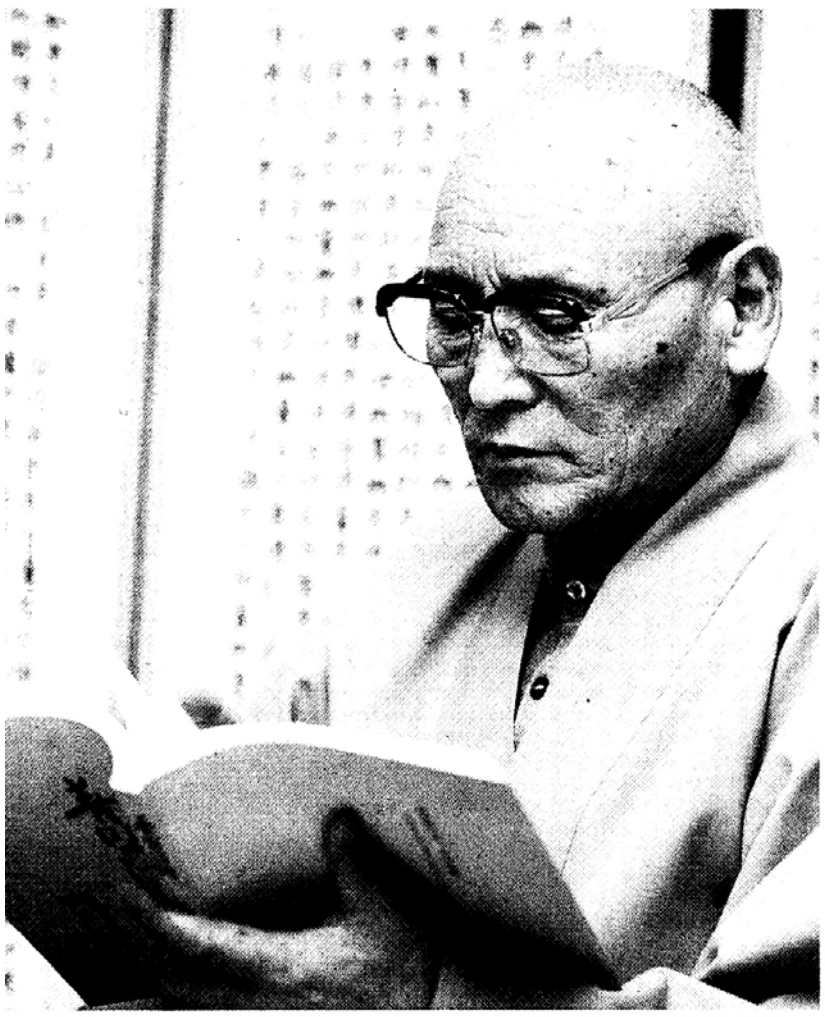
1. 모직혼방 물세탁 가능	적삼, 바지 : ₩140,000 동방, 바지 : ₩160,000 두루막 : ₩140,000
2. 면 100% 조각무늬 무직	적삼, 바지 : ₩130,000 동방, 바지 : ₩150,000 두루막 : ₩130,000
3. 누비 (면솜 100%)	적삼, 바지 : ₩220,000 동방, 바지 : ₩240,000 두루막 : ₩200,000
4. 누비 (혼방)	적삼, 바지 : ₩170,000 동방, 바지 : ₩190,000 두루막 : ₩170,000
5. 법복 (회색, 밤색)	쪼끼, 바지 : ₩60,000 ~ ₩65,000
6. 장삼 (모직)	₩200,000 ~ ₩250,000

※ 가사 주문받습니다 ※ ● 찾아오시는길: 대구 지하철 중앙로역 3번 출구 앞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 업체 원방각

아름섬유 전시장 : 053)256-0108
공 장 : 053)425-4449
휴대폰 : 016-597-4449/011-809-2398

주 소 : 대구광역시 중구 포정동 6-11 (지역대리점모집)



>나보다 남을 위한 기도를 해야만 모두가 행복해진다고 강조해온 스님은 지역스님과 지역주민들의 신망이 두텁다.

부처님법은 실천해야만 빛나
육바라밀-수행의 기초·완결

다. 그래야 삶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스님은 불교의 수행 요체인 '육바라밀'을 끝없이 조했다.

"육바라밀을 실천해야 합니다. 자신은 실천하지 않면서 남에게만 강요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됩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자신의 일에 임을 지고 분수와 순리에 맞게 생활해야 합니다.

바라밀이 뭡니까.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 등 여섯 가지 수행법입니다. '보시'는 괴로움과 망의 근원이 되는 욕심, 욕망, 편견을 버리고 일체 중을 대하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무조건 베푸는 것 말합니다. 상내지 않고 베푸는 마음이야말로 세상 맑게 하는 이치입니다. '지계'는 우리가 살아가는 꼭 필요한 계율을 지키는 것입니다. 식욕, 색욕, 재 등의 욕망은 계를 통해 다스리지 않으면 잡초처럼 성해집니다. '인욕'은 어떠한 어려운 역경이 닥쳐 참는 것입니다. 남으로 인해 자신에게 힘든 일이 기면 먼저 자기 자신의 입장에서 보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보면 이해심이 생깁니다. 그러면 오해도 풀리고, 그것으로 해서 언젠가는 그 사람에게 조복을 받게 되지요. '정진'은 진리의 길을 찾기 위해 자신을 단련하며 부지런히 행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열심히 행하면 원은 저절로 이뤄지지요. '선정'은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마음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평상심이 도'라는 말은 이를 말하는 것이지요. '지혜'는 불법을 실천하면 저절로 생깁니다. 지혜가 생기면 영원한 생명력과 맑은 생각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의 가장 기초이며 완결인 육바라밀을 실천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나부터 육바라밀을 실천하면 사회의 모든 악이 저절로 제거되고 세상이 편해집니다. 그러니 꼭들 육바라밀을 실천해보세요"

스님은 항상 신도들이나 지역주민의 어려움을 살핀다.

"도가 뭔지 압니까. 나와 남을 헤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도입니다. 오로지 남한테 잘해야겠다는 생각만 해보세요. 내 몸 아픈 것은 알면서 남의 몸 아픈 것을 모르면 안됩니다. 그리고 거짓말 하지 말고, 약속 잘 지키고, 남편과 부인 속이지 말고, 돈놀이나 청탁하지 마십시오. 분수를 모르면 자신에게 해롭습니다. 사람들은 욕망에 불타 제 스스로 화살이 되어 죽음의 과녁을 향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욕심을 버리면 세상이 맑아집니다. 이것이 부처님 법임을 명심하세요."

스님은 요즘 유행병처럼 번지는 사찰의 불사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셨다.

"요즘 어디를 가나 사찰들이 불사를 합디다. 자꾸 불사를 하면 오히려 중생들은 힘들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신도들 다 떠나고 아마 100~200년 지나면 스님들도 없어질 것입니다. 박물관에 가야 스님들을 찾을 수 있겠지요. 불교가 살려면 신도를 위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외양보다는 내실을 기해야 합니다. 몇 년 전 서울 어느 암자를 갔더니 건설회사에서 산을 깍아 절을 위태롭게 해놓았어요. 법당도 거의 무너질 듯 하고요. 그래서 건설회사에 얘기하고 해서 다시 작은 법당이 지어졌어요. 법당 개원법회에 법문하러 갔더니 100여명의 신도들이 아주 송구스러워 하면서 밖에 모여 있어요. 그래서 얘기했지요. '법당이 크고 작은 것, 사람이 많고 적은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부처님 생전에 지어진 죽림정사나 기원정사가 큰줄이 아닌데도 그곳에서 수만명이 성불했다. 외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극한 마음이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 다른 생각 말고 이곳에서 지극 정성으로 마음을 밝히는 기도를 열심히 해달라'고 말했지요."

우리 마음 깨끗하면
불교·세상·우주가 맑아
항상 마음 관하며 사세요

스님은 기도를 강조하셨다.

"무엇을 달라는 기도보다는 보시하는 마음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여 마음의 지혜가 생겨나면 그때는 사회에서 신명나는 일을 하십시오. 일념으로 열심히 기도 정진하면서 진실하게 원하면 무엇이던 얻을 수 있는 것이 부처님 법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인 게지요. 기도하는 마음이 진정 거룩한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기 때문입니다. 요즘들어 수험생 합격기도가 유행이지요. 하지만 아무런 준비 없이 나태하게 살다가 대학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부처님 법은 철저한 인과응보입니다. 기도를 통한 요행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열심히 노력한 뒤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만큼 최선을 다하게 해달라고 해야 맞습니다."

스님은 문밖까지 나와 배웅하며 "부처님 팔만사천 법문의 핵심은 일체유심조(一體唯心造)야.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려 있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면 불교가 깨끗하고, 세상이 깨끗하고, 우주가 깨끗해. 그러니 항상 마음하나만 관하면서 살아요."하고 말했다.

그렇다. 모든 것은 오직 마음에 달려 있다. 항상 마음자리를 살피는 것이 불자의 길이다.

글=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주경스님의 스님이야기

상묵스님

서산시의 서쪽 끝에 뚝 떨어져서 천수만을 바라보고 있는 도비산 동쪽 자락에 동사(東寺)가 있다. 이 동사에는 10년 가까이 수좌스님 한 분이 홀로 정진하고 계시는데 바로 상묵스님이다. 모든 것이 다 서쪽으로 향하는 서쪽 끝에 자리한 산에다 왜 동쪽을 바라보는 암자를 짓고 동절이라고 이름 붙이게 됐는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상묵스님은 이 동절에 아주 잘 어울리는 스님이다.

젊은 시절 만공스님께서 경허스님께 찾아가 지도받고 정진하시던 도비산 부석사가 동사 너머 서쪽 중턱에 자리하고, 잠시 산을 오르면 무학대사 깨달음의 인연처인 간월암이 바라다보인다. 조선초와 조선말기의 불교를 이끈 선지식들의 인연이 어린 곳이 도비산이다.

상묵스님이 계신 동사는 명색이 절이지만 인법당과 붙어있는 요사채 한 동이 있을 뿐 거의 토굴에 다름아니다. 공양주도 없이 혼자 끼니를 해결하고, 한번씩 찾아뵈면 그저 묵묵히 앉아 정



진하고 계시다가 손님을 맞아 즐거이 차를 다려 주시곤 한다.

몇 년전 본사의 소임을 살 때 말사 감사가 있어 처음으로 동사로 스님을 찾아갔다. 비포장 길로 한참을 털털거리며 가서 차에서 내려 가파른 산길을 걸어 10여분을 더 올라가야 했다. 미리 전화로 연락을 드렸지만 법당참배를 마치고 몇 번을 불러도 대답이 없어 혹 스님이 외출하셨나 싶어 방문을 여니 스님은 가만히 앉아 선정에 들어 있었다. 당황스럽기도 하고 따로 별 말이 떠오르지 않아 "스님, 감사하러 왔습니다" 하고 기다리니 스님께서 눈을 뜨고 일어나시며 부시시 웃으셨다. 인사를 드리고 몇 가지 필요한 일을 챙기고는 "스님, 저희 오는 것 모르셨습니까?" 물으니 "알았지"하시기에 "그럼 왜 대답도 없이 가만히 계셨습니까?" 하니 "아, 수좌가 정진하고 있으면 그게 최고의 감사지, 별스러울 것 있나?"하시는 것이다. 잠시 대화 중에 "스님, 겨울에는 어떻게 지내십니까?"물으니 "참, 자네 여비 가져온 것 있나? 있으면 여기 좀 놓고 가게, 겨울에 기름값이라도 하게"하시는 것이었다.

상묵스님은 출가 전에 수선회라는 참선모임을 결성하여 열심히 정진하면서 출가의 인연을 익혀서, 수덕사에서 방장스님께 계를 받은 뒤 한시도 쉬지 않고 정진에 몰두해온 만년 수좌다. 실력이 수준급에 있다는 검도수행으로 지금도 짬짬이 건강과 심신을 단련하곤 하시는 스님의 자세는 작은 체구임에도 늘 늠름하고 당당하다. 광대뼈가 드러나도록 마른 얼굴은 피부가 어린아이처럼 해맑고 눈빛은 늘 깊이가 있으면서 빛이 난다. 잡담과 세간의 잡사에는 관심이 없지만 수행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배가 부르도록 차를 따르고 따르며 공부의 바른 길과 잘못된 방법, 옛 스님들의 수행담이 끊임없이 이어져 나온다. 서로 공부를 드러내어 묻고 답해야 비로소 탁마가 되어 모나고 뾰족한 것들이 없어지고 수행의 바른 길을 찾게 된다더니, 상묵스님은 누구보다 치밀하고 자상한 탁마의 도반이 되어주시곤 한다.

"직업수좌로 걸망메고 철철이 선방을 돌면서 세월만 보내면서 제대로 수행을 못해 정진력을 얻지 못하고, 이력만 내세우는 사람은 시주밥을 축내고 업만 지어서 그 과보가 한없이 무거운 거야. 정진을 못하면 기도와 포교를 열심히 하고 봉사라도 하면서 시주 인연에 보답해야지, 머리 깎

함께 공부하기 원하면 늘 환영
수행력·당당함 후학들 의지처

은 것 하나만 자랑으로 삼아서 잘난 체만 하면 신도들도 그렇고 모두 스님들을 존경하지 않게 돼요."

스님은 당신 공부하는 동안에도 누가 찾아와 수행에 대해 묻거나, 함께 머무르며 공부하기를 원하면 늘 흔쾌히 받아주신다. 그래서 가끔 참선수행하는 처사들이 머물기도 하고 때로는 도저히 공간이 안 될 것 같은데도 10여명이 넘는 사람들이 며칠 수련을 하고 가기도 한다. 옛 스님들이 자리가 없어 부뚜막에 웅크리고 자면서 수행했다는 말을 듣기는 했지만, 과연 상묵스님의 동사가 그에 버금가는 형편이 아니가 싶다.

몇 해 전엔 수덕사에서 서울에 개설한 무불선원 선원장을 맡아 매주 두번씩 산길을 걸어 시내로 나와 시외버스를 타고 서울로 오셔서 참선지도를 맡아 주셨다. 처음 완강하게 사양하실 때와는 달리 3년 가까운 세월을 지치지 않고 그 일을 계속하셨다. 스님 계시는 곳은 그곳이 설사 도심의 건물속이라도 바로 선방으로 변하고, 스님과 함께하는 자리는 자장면을 먹고 난 뒤라도 법담이 이어지는 법석이 되곤 한다.

스님의 늘 변함없는 자신감은 흐트러지지 않게 쌓아온 스님의 수행력에서 비롯되는 것이라 실로 당당할 수 있고 그 당당함이 후학의 의지처가 되는 것이다. ▩서산 부석사 주지

당 뇨
씨트리 키토산

- 당뇨, 고혈압, 만성피로 등
각종 성인병 개선에 효과 '놀라워'-

그것은 씨트리 키토산에는 사람의 체질을 의알칼리성 체질로 바꾸어 주는 힘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체질을 바꾸기 전에는 당뇨병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인슐린 양이 부족하여 높게 상승된 혈당치가 씨트리 키토산의 당머시듈 겨선시켜주는 강력한 작용으로 현저하게 떨어지며 물질 영양대사 기능을 활성화시켜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을 개선 예방할 뿐만 아니라 당뇨로 인해 결핍된 영양소를 체내에 균형있게 공급하여 무너진 영양바란스를 조정해 줍니다.

▶ 씨트리 키토산의 당뇨에 대한 효과
20일~30일만 드셔도 효과가 나타나며 1~2개월만 드시면 병원약(신약)을 먹지 않아도 됩니다.



씨트리 키토산 5g×90포(450g)
1개월분 130,000원



결과에 자신있습니다
지연식 동우회 회장
개발의사(한의사) 박돌원

당뇨병 외 기타질환에 대한 씨트리 키토산의 효과
· 위궤양, 비만증, 무좀, 체력증강
· 감기에 걸리지 않는 체질로 개선
· 피로물 없애고 뇌를 맑게 해줌
· 피부를 아름답게 부드럽게 해줌
· 갱년기 장애 등
· 자율신경실조증
· 정력증강, 숲, 담배해독
· 암, 관절염, 고혈압

조원케미컬라이프 Co.
(주)한도제약특수사업부
주문 및 상담 (02)598-9832
무료 전화 080-598-9832

3천배 철야정진
차량운행 안내

❀ 일 시 :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 저녁7시~일요일 아침7시
❀ 호흡에 맞춰 절하는법 교육 (저녁7시~9시)
숨차지 않고 헐덕거리지 않으며 맥박이 빨라지지 않고 몸살나고 힘들고 졸립고 다리,무릎,허리가 아프지 않게 하려면 절하는 동작에 흡흡호 호흡법을 대입하는 교육을 2시간 받으시면 누구나 완벽하게 절할 수 있습니다.
❀ 3천배정진 : 500만배 성만한 스님과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죽비소리에 맞춰 300배씩 10회로 매 시간 시작전에 마음다스리는 소참 법문을 듣고 끝내며 부처님전 감사 수행으로 마음 밝히고 축원 기도를 올리며 간절한 큰 마음으로 소원을 성취 하며 인생에 걸림돌이 되는 큰 업장이 녹아 내림을 체험한다.
❀ 차량운행 :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 오후 4시
조계사앞 출발 → 지하철 2호선 삼성역 7번출구 한국전력 앞(5시) 경유하여 법왕정사 도착
❀ 차량 예약 문의 : 양 현 숙 011)222-3329

백만불자 108배 만일결사
수 행 중 심 도 량 법왕정사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석산리 소리산 참선캠프
전화 031)771-7745 · 7038 · 6736 (Fax 겸용)
· 오시는길 : 양평 → 용문터널 → 단월 → 대명비발리파크 스키장 입구 청평방향 7Km
· 버스 (서울 상봉터미널) → 모곡행 → 모곡종점하차 전화요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연구원

- 연 인 -
어느새
가을입니다

한가로히 걸어가는
연인들의 어깨위로

나뭇잎 하나 둘
떨어져 내리고
바스락 거리는
낙엽소리

조용히 밟으며
행복한 미소로

멀어져 가고
바람소리도 함께...

이영숙

▷ 위 치 안 내 ◁
1호선 부천역 하차 북부역 광장 우측 서울 방향 첫번째 골목으로 150m정도 직진 희원오피스텔 202호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 大후, 초 · 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서신과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방문전 전화 약속

※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현 대 결 혼 연 구 원

원 장 이영숙 (법명 : 無生子)
사무실 : 032)654-5411
휴대폰 : 011) 288-2944

희소식 梵 鍾

범종이 스스로 운다(自鳴梵鍾)!!
아직도 잠자는 범종은 없습니까?
아직도 울리지 못하는 범종은 없습니까?
범종은 있으나
칠 사람이 없는 범종은 없습니까?
걱정은 이제 그만 던지십시오.
울어라! 한번만 命 하시면
봄 · 여름 · 가을 · 겨울,
원 하시는 시간에!
원 하시는 횟수대로!
영원히 크고 크게
울려 메아리 칠 것입니다.
離苦得樂을 이루고!
破邪顯正으로 맑고 밝은 氣運이!
부처님 眞理를 宣揚할 것입니다.
*年內로 하시는 寺刹은 염가로 해 드립니다.
시스템 시설은 선착순 입니다.
합장하고 소식을 기다리며
佛日增輝 法輪常轉을 千拜萬拜!!!

부영공업사 특수기계제작부
대표 신 현 직 부처님 품에서 發願祈禱!!!

☎ : 033-562-1535
H · P : 011-369-2732

南無阿彌陀佛



cinema

'제16회 대한민국 종교예술제'의 일환으로 처음 실시된 '제1회 단편영화제'에서 박관호씨의 '나무아미타불 Christmas'가 영예의 대상(문화부장관상)을 수상했다. 불교와 기독교간의 화합을 그린 이 영화는 동자승이 자신의 여자친구 마리로부터 크리스마스날 교회에 초대받는 것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된다.

◇동자승과 그의 여자친구 마리를 통해 불교와 기독교의 화합된 모습을 이끌어 내는 영화 '나무아미타불…'의 한 장면.

두 종교간 화합 · 상생주제

'나무아미타불 christmas' 대상영예

제1회 단편영화제…총 60작품 응모

최우수상 '공간' 우수상 '꽃씨 뿌리는…' 등 2편

'동안거를 마치고 길을 나서다' 장려상

목사님은 교회를 찾은 동자승을 보고 특별한 손님이 왔다고 환영하며 동자승에게 X-마스 트리를 선물하고 절대 돌아가서도 계속 불교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격려까지 해준다. 선물까지 받아 기분좋은 마음으로 법당에 돌아와 보니 동자승의 마음을 벌써 헤아린 주지 스님이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를 절 마당에 만들어 동자승을 환영한다는 게 줄거리다.

이기원 영화제 집행위원장은 "나무아미타불 Christmas는 '사랑과 평화'를 주제로 한 이번 영화제의 취지에 가장 잘 맞는 영화"라며 "특히 실제 스님과 목사를 출연시켜 사실적인 메시지를 더욱 생생하게 전달한 수작"이라고 심사평을 밝혔다.

이외에도 총 60편이 응모한 이번 영화제에서는 최우수상에 로고스 필름의 '공간', 우수상에는 박민우외 고등학생들이 제작한 '꽃씨를 뿌리는 마음'과 조흥식씨의 '가톨릭 중국사제서품', 장려상에는 김문흡 연출의 '집배', 이민경씨의 '동안거를 마치고 길을 나서다', 김경진씨의 '서머 스토리', 임병훈씨의 '설리의 저금통', 윤준호씨의 'MIX', 박수영씨의 '나의 사랑스런 아파트'가 각각 차지했다. 이중에서 불교 영화인 '동안거를 마치고 길을 나서다'는 수행의 길에 막 접어든 수행승이 출가 후 겪게 되는 고난을 극복하는 내용으로 지리산 천은사를 배경으로 촬영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15일 단편영화제 시상식과 함께 진행된 '제6회 대한민국 종교예술제 영화제' 개막식에는 양산 조계종 사회부장 스님을 비롯해 김기수 한국기독교총연합회장, 배기선 국회문광위원회 위원장, 윤청하 문화관광부 종무실장, 홍장화 천도교 종무원장 등 2백여명이 참석했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a.com

"종교화합 다룬 영화 꼭 만들고 싶었어요"

대상수상 박관호씨



"가끔씩 종교간의 불협화음 기사를 매스컴에서 접할 때마다 종교간의 화합을 주제로 한 영화를 꼭 한 번 만들어야 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가 주최한 '제1회 단편영화제'에서 '나무아미타불 Christmas'로 대상을 차지한 박관호군(단국대 연극영화과 4년)은 자신의 종교가 중요하듯 타인의 종교도 배려해 주어 함께 상생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게 이번 작품의 기획의도라고 밝혔다.

강원도 고성 반야사와 오봉교회를 무대로 촬영했다는 박 군은 "현실 배타적인 두 종교(불교와 기독교)간의 화합을 두 어린이들의 연기를 통해 전달함으로 써 참종교의 의미를 되짚어 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한편 박군은 이번 영화의 원작인 '동자승의 크리스마스'를 12월 10일 출간할 예정이다.

현대한국불교미술 세계에 알려

KOBA, 美산타모니카展 세계시장 개척 계기



◇미국 산타모니카 시빅 오디토리움에 설치된 KOBA전시 부스

현대불교신문사가 결성한 한국불교예술인연합(KOBA)의 미국 산타모니카 전시가 성황리에 끝났다.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의 작품을 소개하는 기획전 'The Los-Angeles Arts of Asia and Oseania Show'에 '한국불교예술'을 주제로 독립부스를 운영한 KOBA는 한국불교문화를 현존 작가의 작품을 통해 세계인에게 알린 점에서 의미심장한 전시였다. 하지만 장르가 다양하지 못해 볼거리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다. 개막리셉션부터 전시 기간내내 홍보를 한 진각 스님(LA사암연합회 부회장, 조계종 국제포교사)은 "국제문화시장은 우리 불교문화를 위해 결코 스스로 자리를 만들어 주지 않는다"며 "수작들을 많이 발굴해 우리 불교문화를 세계에 알리려는 개척정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 전통 한지로 만든 고바야시의 '조선통신사절단의 행렬'

'조선통신사절단 행렬' 등 이색 종이접기 전시회

종이접기의 달인 고바야시 일본 작가를 비롯한 30여명의 작품이 중앙승가대 부설 보육교사 교육원 초청으로 23일까지 중앙승가대학 3층 대강당에서 선보인다. 4대째 140여년에 걸쳐 종이접기를 하고 있는 고바야시의 작품을 필두로 동물, 반지, 꽃 등 다양한 작품이 종이의 표현 영역에 한계가 없음을 보여준다. 특히 2002 한일 월드컵 공동 주최를 기념해 일본 전통 한지 인형으로 제작한 '조선통신사절단의 행렬'은 화려함과 정교함의 극치로 평가받고 있다.

김주일 기자

부산불교교육대 20주년 범주스님 선화전 열어



◇범주 스님의 '포대화상도'

선화를 수행의 방편으로 삼아 온 범주스님(속리산 달마선원장)이 26일까지 부산시청 제1전시실에서 부산불교교육대학 개교 20주년 기념 '선화전'을 갖는다.

1966년에 전강선사 문하에 입산한 범주스님은 홍익대 미대를 졸업하고, 그동안 국내에서 수차례 개인전을 가져왔다.

이번 전시에는 보기만 해도 웃음이 절로 나는 다양한 모습의 달마도, 친근하고 편안함이 느껴지는 포대화상도, 경명주사로 그린 관음도, 한산습득도 등 150여점의 달마선묵화가 벽에 걸린다. 전시기간에는 박찬수(목아박물관장), 강만홍(기춤명인), 이명미(우바이무용단 안무가), 강경화(판소리보존회 부산지부장) 등을 초청, 축하 퍼포먼스도 펼친다.

범주 스님은 "선화는 수행의 한 방법이자 정진 후 맑아진 마음과 기도의 힘으로 보는 이의 마음을 함께 맑혀주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051)867-9944



◇성타 스님의 '범어사 금강암 가는길'

만행 현장 화폭에 담은 성타스님 산사 그림전

산사의 사계를 화폭에 담은 성타 스님(서울 노유동 용문선원)의 네번째 '산사 그림전'이 11월 20일까지 합천 해인사 구광루 특설 미술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금강암 가는길', '금정사의 가을', '지리산 천은사', '관악산 연주암', '연꽃', '달마도' '동자승' 등 50여점이 선보인다. 특히 6개월간 머물면서 수행하며 그린 '백련암', '국일암', '약수암' 등 해인사 산내암자들의 그림이 인상적이다. 관념산수화가 아닌 사물의 실제 모습에 근접한 실경산수화를 즐겨 그리는 스님은 이번 작품들을 위해 20여곳 이상의 산사를 만행하며 현장에서 대부분 작업을 했다. 그래서 스님의 그림에는 사실적이고도 담백한 서정미가 느껴진다. (018)609-8011



◇박정자씨의 '삼존불 탱화'

전통불화, 그 아름다움展 박정자씨 23일까지 개최

불화가 박정자씨의 '제3회 전통불화 그 아름다움 展'이 23일까지 세종문화회관 2층 신관 전시실에서 열린다. 후불탱화 아미타래영도, 본존아미타불도, 금니삼존도, 신중탱화 부분도, 문수보살도 등 절집에 볼 수 있는 다양한 불화 2백여점이 전시된다. 이번에 전시되는 작품들중에는 사찰 봉안용 탱화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모실 수 있는 만다라화 소품을 비롯해 단청문양의 독존도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불화는 역시 사찰에 모셔진 것을 감상해야 제 맛이라고 생각한다면 평택 명법사, 장흥 보림사, 대구 대성사 등에 가도 박정자씨의 불화를 만날 수 있다.

가을방생 및 삼사순례 안내

삼보전에 귀의 합니다.
각 사암 대덕 큰 스님께 인사 올립니다.

본 성모암은 **진묵대사**님께서 효행을 실현한 사찰로서 성모님 묘소와 더불어 조사님의 영정을 봉안한 도량으로 가까이에는 진묵대사께서 육신 방생의 유래가 있는 100만평의 능제 저수지가 자리한 해동의 최고 방생지이며 방생과 더불어 금산사, 선운사, 내소사, 개암사를 연결하는 삼사순례의 적격지입니다.

조사님의 혼이 머무는 본 도량에 왕림 하시어 일체 서원을 이루시길 사부대중과 더불어 발원합니다.



오시는 길

호남고속도로 전주IC에서 군산방면 - 대야검문소에서 김제방면으로 10분 - 성모암 서해안 고속도로 동군산IC, 서김제IC에서 5분거리

점심공양을 무료로 해드립니다.
종무소 ☎ (063)544-0416 (사전에 필히 전화 접수바랍니다.)
Fax 063)542-6991 Homepage : www.sungmoam.net

전북 김제시 만경읍 화포리 불거촌 388번지

성모암 대중일동

"승가건강비법 신비의효능"

[마·가·목]



산승이 전신 화상으로 인하여 혈액 순환의 장애가 있어 수족이 차고 냉하여 온몸의 마비와 건강의 악화로 고통을 받고 있던 중, 오대산에서 백일기도를 드리고 있던 차, 금강산에서 출가 수도하시던 노스님을 오대산에서 뵙게 되었는데 옛부터 금강산 승가에서 내려오는 마가목의 비법을 노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건강을 되찾게 되었던 바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산승이 출연 KBS-2TV 건강하게 삽시다.** 프로에서 불가건강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 방영이후 전국의 많은 불자님들의 방문과 요청이 있었으나 워낙 희귀목인지라 많은 양을 구할 수 없어 10년이 지난 지금에야 두재분량을 탕제로 하여(한박스 60봉) 한달분을 보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효능은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로,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에 좋다.
셋째, 중풍에 특효하며 동맥경화,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당뇨와 관절염, 고지혈증에 특효하다.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에도 좋다.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으며 숙취를 해소한다.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류,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상담문의 원주대고 보우국사 열반사지 소설산 왕방 수구암
전화번호 : (031) 585-1502
석지수 합장

※ 마가목만 복용하면 위장에 부담이 있으므로 승가의 비법이 있습니다.
시주금은 불사기금에 쓰입니다.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KBS 1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방영

기도처 지리산에 보금자리 자광원

행복하고 편안한 노후를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보살 염불원의 특징

> 남한산성 자락에 위치하여 쾌적한 환경 속에 날마다 부처님을 모시고 염불과 기도정진으로 마음을 닦으며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즐기며 보내시도록 새로운 기도처를 마련하였습니다.
> 20년간의 무료 노인요양원인 사회복지법인 부처님 마을 자광원에서의 경험을 통하여 얻어진 전문지식에 의하여 설계된 노인을 위한 기도처 입니다.
> 외롭고 우울하게 혼자사는 노인 또는 부부노인중 한분의 거동불편으로 의·식·주 해결에 고민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낙원입니다.
> 자손들에게는 효도의 기회를 노인들에게는 안락한 여생을 제공하며 임종 시까지 정성껏 모셔드리겠습니다.
> 고부간의 갈등으로 고민하시는 분
> 홀로계신 시아버님, 모시기가 어려우신 분 자광원에서 해결하여 드립니다.

위치 및 시설개요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116
◆대 상 : 만 65세 이상, 노환스님 또는 부부, 개인 등 거처하고자 하는 모든 불자
◆정 원 : 24명~30명 내외
◆시설개요 : 본 건 물 → 방규모(약 7평) 24실(각실 인토폰 설치)
법당, 팔각정자
부대시설 → 제2물리치료실, 목욕탕, 이·미용실, 식당, 오락실
◆입방비부담 : 정생회원과 일반회원으로 구분 자비부담
◆연 락 처 : 전화 031)759-5320
팩스 031)759-42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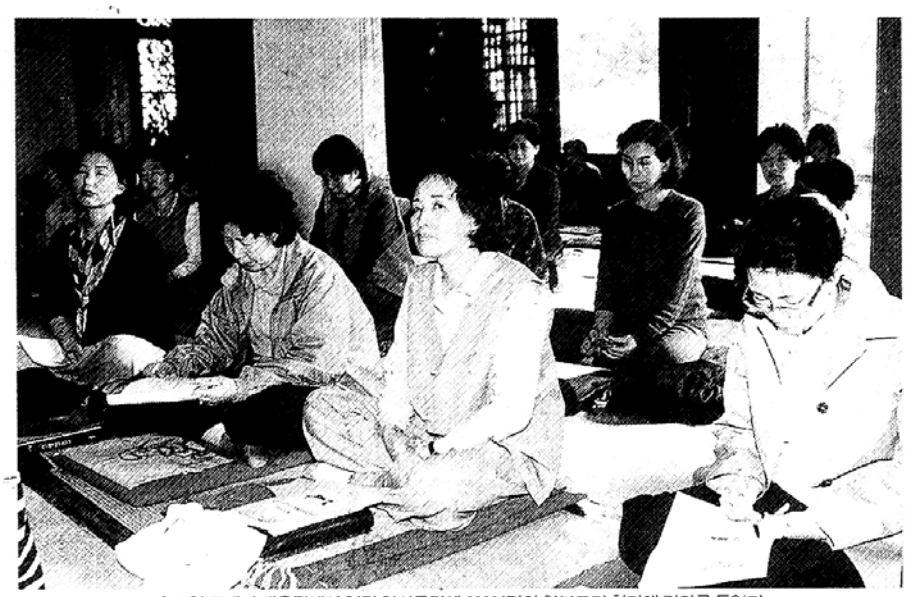


2002년 5월 15일 개원 대한불교 조계종 자광원

매일 15~20분간 명상 집중력·기억력 강화

"입시기도는 '내 아이 시험 잘 보게 해 달라'고 비는 것이 아니라 부모 자신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자녀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입니다."

2003학년도 대입 수능시험을 앞두고 조계사가 수험생 부모를 위한 입시특강을 마련했다. 시험을 25일 앞둔 11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린 특강에서 박영동 전국 교법사단 단장은 '현대 입시문화와 부처님의 가르침'을 주제로 강의했다.



◇11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린 입시특강에 2000여명의 학부모가 참가해 강의를 들었다.

"입시 기도는 마음의 안정 위한 것"
부모는 수험생의 친절한 조력자돼야

박영동 교법사는 "시험 전날 연비의식을 하고 부적을 붙이는 등 갖가지 방법을 다 써서라도 '자기 자녀만은 시험을 잘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많다"며 현 입시세태를 꼬집은 후 "하지만 수시모집 요강이나 영역별 가중치 같은 입시제도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부모는 드물다"고 지적했다. 또한 "8학군으로 이사를 가고 고액 과외를 시켜주는 것으로 부모의 역할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며 "현대의 입시체제에서는 진로를 일찍 결정해 지망대학이나 학과가 요구하는 바를 정확히 알고 대비하는 '맞춤식 공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부처님이 최고의 상담자로서 많은 중생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었듯이, 부모는 입시를 앞둔 자녀의 친절한 상담자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부모로서 자녀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고 남과 비교하거나 무조건 '공부하라'고 윽박지르지 말라고 말한다. 대신 자녀와 대화 시간을 자주 가져 시험 결과에 집착하기보다 노력하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시험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도록 배려하는 것이 좋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수험생들의 고충을 상담해주는 교법사로서 시험 준비 노하우도 들려준다.

"수험생들은 새로운 문제를 풀기보다 틀린 문제들을 교과서를 통해 꼭 확인하고 익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험 치기 1주일 전부터는 시험 시간에 맞는 생활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또한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명상을 하는 것입니다. 15~20분 정도 명상을 하면 집중력이 강화되고 기억력도 100% 발휘될 뿐 아니라 조급한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첫 아이의 입시를 앞두고 100일 기도를 신청했다는 서윤진(44)씨는 "사실, 공부하는 아이보다 제가 더 불안하고 조급했는데 오늘 특강을 듣고 나니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알 것 같아 마음이 후련하다"며 특강 시간에 빼곡히 적은 메모지를 들어 보인다. 재수하는 딸과 고등학교 3학년 아들이 함께 시험을 본다는 정현자(48)씨는 "지난해에도 입시특강을 들었는데 다른 학부모들과 유익한 정보를 나누면 서로 힘이 된다"며 "남은 기간동안 정성껏 기도를 드려 내년에는 특강을 다시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활짝 웃었다.

한편 27일 오후 3시에는 김남성 교수(성균관대 교육학과)가 '자녀의 진로선택에 있어서 부모의 역할'을 주제로 강의한다.

여수령 기자 sneopy@buddhapia.com

건강단신

수험생 정신건강 클리닉 11월까지 홈페이지 운영

대한신경정신과개원의협의회(회장 이택중)는 수능시험에 대한 불안 등 각종 정신장애를 온라인으로 상담할 수 있는 '수험생 정신건강 클리닉'을 홈페이지(www.mindcare.co.kr)에 개설, 11월까지 운영한다. 수능시험을 앞두고 극도의 긴장으로 가슴 두근거림 현상이나 강박증, 우울증, 수면장애 등을 겪고 있는 수험생이면 누구나 방문, 회원 전문의들과 상담할 수 있다.(02)3443-9226

건강마을 만들기 일환 민들레 보건학교 개교

대전의료생활협동조합은 건강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11월 7일까지 매주 목요일 민들레 보건학교를 연다. 오전 10시 30분부터 1시간씩 진행되는 민들레 보건학교는 민들레 의원(대전시 대덕구 법동) 3층 사랑방에서 열리며 강의 주제는 △성격유형검사 및 여성건강관리 △고혈압 당뇨병의 이해와 측정법 △환경을 지키는 식생활 △귀(耳)침 배우기 등이다. (042)638-9042

건강 노년생활 준비모임 가족관계·여가활용 강의

이화여대 종합 사회복지관이 '건강한 노년생활을 준비하는 모임'을 마련했다. 50~65세를 대상으로 노년기에 대한 이해, 법률상식, 정신건강과 노년기의 성, 건강관리, 봉사활동, 가족관계와 대화법, 여가활용 등을 강의한다. 11월 19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진행된다.(02)3277-3288

'아침식사' 학습능력 높여

막바지 수험생 건강관리

대입 수능시험(11월 6일)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지금부터는 무리한 공부보다 수험 당일 최상의 실력발휘를 위해 건강관리에 힘쓸 때다. 수험생과 부모가 알아야 할 건강관리 요령을 짚어본다.

◎ 수면은 충분히

수면시간이 5시간 이하면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지므로 가능하면 8시간 이상 숙면을 취하는 것이 좋다. 가급적 숙면을 방해하는 커피나 홍차, 청량음료 등 카페인이 많이 함유된 음료는 피한다. 잠들기 전에 따뜻한 우유를 한 잔 마시면 전신 근육이 이완되면서 숙면을 취할 수 있다. 기상 직전이나 직후 편안히 앉아서 10분 정도 명상을 하면 긴장으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에 좋다.

가급적 하루 8시간 이상 숙면을
적당한 운동 스트레스 해소 도움

시험 1주일 전부터는 오전 6시 반~7시에 일어나는 습관을 들인다. 시험 당일 8시 이전 입실을 완료해야 하는데 기상 후 2시간은 지나야 두뇌가 가장 효율적인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 아침식사는 꼭 해야

아침식사는 뇌 세포의 활동을 활성화해 학습능력이나 사고력, 집중력을 향상시킨다. 시험이 다가올수록 심리적으로 긴장상태에 놓여 소화기능이 저하되고 스트레스로 식욕도 떨어지기 쉽다. 따라서 가능한 한 소화되기 쉬운 음식이 좋다.

입맛이 없다고 열량이 높은 라면이나 인스턴트식품 등의 간식을 많이 먹으면 피로나 졸음, 체중 증가의 원인이 된다. 또한 수험생에게 가장 필요한 단백질과 비타민 결핍을 부를 수 있다. 단백질과 비타민이 부족하면 감기 등 감염성 질환에 걸리기 쉽고, 스트레스에도 약해진다.

◎ 올바른 자세 유지

장시간 책상에 앉아 있는 수험생에게는 바른 자세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부정하거나 불안정한 자세는 두통과 함께 뼈, 근육, 소화기 계통에 무리를 주고 척추측만증(허리구부림증)도 발생하기 쉽다.

책상에 자연스럽게 팔꿈치를 올려놓고 의자는 발바닥이 완전히 바닥에 닿는 것이 좋다. 책 받침대를 이용해 책을 내려다보는 각도를 20~30도 정도로 유지하고 허리와 발에 받침대를 사용해 긴장을 덜어주는 것이 좋다.

◎ 가벼운 운동으로 스트레스 해소

적당한 운동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굳어진 몸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다. 특히 스트레칭은 신체적인 피로나 근육의 긴장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된다. 최소 1시간에 한번씩 10~30초 정도 목을 돌리거나 양팔을 뒤로 크게 벌려 여러 번 돌려주는 동작을 반복한다.

식사 후 바로 책상 앞에 앉기보다는 5~10분 정도 가볍게 주변을 산책하는 것이 좋다. 산책을 할 때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을 반복하면서 팔 다리를 가볍게 흔들어 주는 것도 한 방법이다.

◎ 질병예방

수험생에게 잦은 두통은 대부분 긴장성 두통으로 오전보다는 오후에 심하고 목덜미가 뻣뻣하며 뒷머리가 아픈 것이 특징이다. 뜨거운 물수건으로 찜질을 하거나 목욕을 하면 도움이 된다. 또 양쪽 눈 사이를 누르거나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근육을 푸는 것이 좋다.

감기예방을 위해서는 외출 후에 반드시 양치를 하고 손발을 깨끗이 씻는다. 비타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다. 만일 감기에 걸렸다면 의사와 상의해 처방약을 쓰되, 졸음을 유발하는 일부 약품은 가능한 한 삐달라고 한다.

집에서 만드는 사찰음식

마 두부찜



마 1/2개, 두부1/3모, 표고버섯 2장, 당근 30g, 은행 8알, 대추 4개, 잣 1큰술, 마 가루 1/4컵, 소금, 후춧가루, 식용류

1. 마는 껍질을 벗기고 강판에 간다. 마의 껍질을 벗길 때 무쇠칼을 쓰면 색이 변하므로 스테인리스 스틸 칼을 써야 한다. 두부는 물기를 닦고 칼을 눕혀서 으깬 다음 체에 내린다.

2. 불린 표고버섯과 당근을 채썰어 각각 기름 두른 팬에 소금간을 해 살짝 볶는다. 은행은 마른 팬에 볶아 속껍질을 벗기고, 대추는 돌려 깎아 씨를 빼서 채 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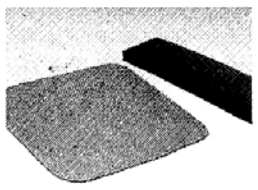
3. 그릇에 마 간 것, 으깬 두부, 볶은 표고버섯과 당근, 은행, 대추, 잣을 넣고 섞은 후 마 가루를 넣고 소금, 후춧가루로 간한다.

4. 반죽으로 반대기를 만든 후 김이 오른 찜통에 넣고 쪄서 적당한 크기로 잘라 낸다.

자료제공: 선재사찰음식문화연구원

세포 활성화… 노폐물 배출 효과 탁월

희담석 방석



희담석(稀潭石)은 화산 폭발로 분출된 후 응고된 화산석의 일종으로, 원적외선을 방출하고 세포를 활성화시켜 노폐물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작용을 한다.

희담석 방석은 오랜 시간 앉아 서 생활하는 직장인이나 수험생 또는 스님에게 알맞은 제품으로, 신진대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도와준다. 값 19만 8천원.

클릭! 불교문화상품
www.mahamall.co.kr

▶ 불교 사관학교 (제1기 모집, 6개월 단기 출가)
- 머리를 깎지 않고, 절에서 수행.
  -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 자유시간(외박가능)
-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중 군복무 필한 자.
- 나이 30세 미만 - 남자
- 숙식 무료 제공 - 졸업 후 특전.
  - 직원 채용시 우선 채용. 불교대학 졸업장 수여. 분원에서 생활 가능
- 참선 및 불교수행, 경전공부(반야심경, 금강경, 법화경 등)

▶ 외국인 불교대학 (제1기 모집)
- 12월 7일(토). 첫 강의, 모든 외국인 영어 강좌

▶ 출가자 모집(남행자)
- 민주적 교육 - 개인방 지급.
- 40세 미만, 고졸 이상
- 가장 엘리트 스님 배출 목표 - 현재 20면 배출, 수행 중.
- 수계 후, 공부·수행 모든 뒷바라지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길손여행」의 저자
'우학스님(본사찰의 회주)' 직접지도

대한불교 조계종 영남불교대학·관음사 053-474-8228 TVbuddha.co.kr

태아낙태원혼영가천도법회

귀의 삼보하옵고
지장기도 복지도량 지장선원에서는 낙태유산된 태아원혼영가천도법회를 봉행합니다.
우리 주위에 맴돌고 있는 태아의 생명들 이 생명의 목소리에 마음의 문을 열어 현재 우리 자식처럼 사랑하시어 지장보살님의 원력, 위신력, 공덕력으로 부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줍시다.
이번 좋은 인연으로 악연은 풀고 나쁜업은 소멸하여 두루 소원성취 하시길 지장보살님께 기도발원 올립니다.
나무지장보살마하살

◆입 재 : 불기 2546년 11월 8일(음 10월 4일) 금요일 오전 10시
◆회 향 : 불기 2546년 11월 14일(음 10월 10일) 목요일 오전 10시
◆동 참 금 : 7일기도 동참금 3만원
◆태아위패비 : 태아영가 1위당 1만원
◆준 비 물 : 우유, 분유, 사탕(과자류)
◆입 금 계 좌 : 대구은행, 055-05-422870-001 지장선우

불기2546년 10월 좋은날 범어사 대구포교당
지장선원장 지공 손모음

☎ 053)744-0150, 0151

밝은미소 · 건강한 마음 · 보람찬 인생
편안한 노후생활, 자연과 함께 여유로운 삶을 보낼수있는 곳
성라실버타운 (유료양로원)
▶ 경기도 가평소재

▶ 시설안내 ◀
•숙 실 수 : 96실(2인 기준) •동 · 층수 : A동, B동 - 지하 2층, 지상 4층
•숙실평형 : 9.5평
•부대시설 : 행사시설, 의료시설, 생활시설, 운동시설, 온천탕(시공중) 등.

[입주비용]

	구 분	입주보증금	월생활유지비	비 고
평생입주 및 휴양입주	1실 1인	50,000,000	500,000	
	1실 2인	50,000,000	900,000	1인 25,000,000

	구 분	입주보증금	평생생활유지비	비 고
평생입주	1실 1인	50,000,000	46,000,000	96,000,000
	1실 2인	50,000,000	70,000,000	120,000,000

	구 분	입주헌납금	월생활유지비	비 고
입주금 헌납입주	1실 1인	70,000,000	없음	
	1실 2인	100,000,000	없음	

[입주상담 및 문의] 강선구 총무이사 011-9971-3743

"노후생활을 보람있게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성라원 이사장 석 정 화

※ 공양주, 행지스님 모십니다.

사회복지법인 성라원 · 성라실버타운
본부사무소 : 서울시 성북구 성북 2동 285번지
☎02)743-0294 / 743-4026
가평사무소 : 경기도 가평군 상면 봉수리 49-4번지
☎031)585-3323~5



◇완벽한 댄싱커플 탄생! 12일 열린 연꽃미팅 페스티발 참가자들이 춤 솜씨를 선보이고 있다.

"내 짝은 누구일까?"

대불청·듀오, 2002사랑의 연꽃미팅 페스티발

서먹서먹 분위기 노래·춤으로 날리고…

천생연분 찾기에 가슴 두근두근

대한불교청년회(회장 김규범)와 결혼정보회사 듀오(대표 김혜정)가 개최한 '2002 사랑의 연꽃미팅 페스티발'이 12일 서울 인터콘티넨털 호텔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행사에 참가한 불교계 선남선녀 100여 명은 '불교 상식 열전퀴즈', '사랑의 연꽃 촛불 전달식', '커플매칭' 등 불교를 소재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인연을 맺는 기회를 가졌다.

"자, 그럼 불교계와 듀오가 함께 하는 공개미팅을 시작합니다."

팡파르 음악이 요란하게 울려 퍼진다. '연꽃미팅 페스티발'이 시작된 것이다. 하지만 얌전하기만 한 선남선녀들은 서로 눈치 보기가 바쁘다. 처음 만난 사이니 당연한 일이다.

어색한 분위기를 띄우는 데는 역시 노래. 사회자와 함께 노래를 부르다 보니 테이블마다 분위기가 달아오른다. 각 테이블 조장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노래를 부르고 율동과 박수가 터져 나온다.

분위기가 무르익자 이번에는 '혼성 댄싱 경연'을 하겠다고 사회자가 선언한다.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끼리 춤을 추라니, 일순간 좌중이 술렁댄다.

"세상에 처음 만난 사람끼리 무대에 올라 춤을 추라고?" 여기저기서 수군거린다.

하지만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데는 절호의 기회. 한 커플이 손을 잡고 무대로 뛰어 나가고 여기 저기에서 따라 뛰어올라가면서 춤 경연이 시작됐다. 수줍은 듯 땅바닥만 보기만 하던 배 유정 씨(27, 방송작가). 파트너인 노형식 씨(34, IT업체 근무)가 격렬한 디스코를 추자 그녀 또한 소매를 걷어붙였다. 두 사람의 춤을 구경하던 사람들의 입에서 '이 사람들 정말 프로'란 말이 절로 나온다. 하지만 곧 테이블마다 자기 팀에서 나간 사람들을 응원하기 위한 목소리를 높였다.

저녁 식사 후 열린 '불교 상식 열전 퀴즈' 코너. 남녀 파트너가 함께 나와 불교에 대한 지식수준을 경쟁하는 순서다. 이병진 씨(29, L건설 근무)와 박정윤 씨(26, 대학원 재학)가 커플을 이루고 나왔다.

정윤 씨가 문제를 낸다. "부처님 아들 이름은?" "아난이던가" 답답하다는 듯 정윤 씨가 거든다. "좀 이름이 이상한 이름인데…" "이상하다…, 목련존자?" "통과!" 평소 잘 알던 내용도 나와서 풀다보면 기억이 나지 않는 듯하다.

막 자리로 돌아온 처녀가 총각에게 말한다. "라훌라잖아요." 퀴즈를 풀며 둘은 귓속말을 할 정도로 친해진 모양이다. 라훌라가 왜 그리 기억이 안 나는 것인지 알 길이 없다. 그들은 어느새 다른 팀의 게임을 지켜보기에 바쁘다.

어느새 네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린다. 이제 마지막 순서다. 자신의 마음에 드는 상대방을 찾아 쪽지에 이름과 번호를 적어 넣으면 된다. 상대의 눈치를 탐색하는데 여념이 없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내 인연인가 알기가 어렵다. 전생과 현생에 지은 업대로 천생연분을 맺을 수 있기를 빌어본다.

대불청과 듀오는 이번 행사 이후에도 월정사 탑돌이, 해인사관광, 무안 연꽃축제 참가 등 다양한 불교관련 문화행사를 불자 미혼남녀들과 함께 할 계획이다.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행복한 창출

◆가을나들이=서울 성북노인종합복지관은 23일 계룡산 동학사와 유성온천으로 가을나들이를 떠난다. 출발은 오전 7시 30분 복지관 앞. (02)929-7650

◆기획강좌=서울시립노인복지센터는 22, 29일 오전 10시 본관 3층 강당에서 기획강좌를 마련한다. 22일은 '근대서울의 공간과 경관 변천' 주제의 강좌가, 29일은 '한양의 탄생' 주제의 강좌가 개최된다. 11월4일에는 서울역사박물관 탐방을 한다. (02)739-9501

◆무료법률상담=서초노인종합복지관은 29일 오후 3시 복지관에서 김삼화 변호사를 초청해 무료법률상담 행사를 연다. 예약 및 문의는 (02)578-1515

◆무료이용서비스=서울 마포 보사노인복지관은 29일 블루클럽 김춘화 사장의 협조를 얻어 무료이용서비스를 실시한다. (02)3273-6692

◆무료이용서비스=서울 송파노인종합복지관은 27일 오전 11시 복지관 지하 2층에서 무료이용서비스를 실시한다. (02)2203-9400

◆무료특강=한국인성개발연구원은 11월 4일 오전 10시 서울 원남동 연구원 대강당에서 '중년의 위기 관리' 주제의 강좌를 연다. 강사는 총신대 최혜숙 교수. (02)766-3455

지친 그대에게 뜨거운 포옹을…

행복쪽지

포옹.

이것도 의사소통의 한 방식으로 본다면 우리에게는 어색한 표현법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꼭 그것만은 아닌 것 같다. 우리에게도 포옹은 익숙한 감정 표현법이다. 악수가 자연스런 인사법이 된 것처럼.

지난 월드컵 경기 때 골을 넣은 우리 선수들은 거의 어김없이 감독이나 코치에게 달려가 포옹을 했다.

며칠 전 아시안 게임의 마라톤 우승자 이봉주 선수도 결승선을 통과하자 마자 감독과 포옹을 했다.

말이 필요 없는, 아니 말을 해서는 안될 순간의 포옹은 가장 높은 수준의 교감임이 분명하다.

고단한 직장 생활에 지친 아내나 남편에게, 시험 성적이 안 좋아 풀죽은 아이에게, 감당하기 힘든 일에 마음앓이를 하는 동료에게 뜨거운 포옹 한번 쯤 어떨까.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 아무 말도 않는 거다. 괜한 얘기, 뻔한 얘기, 입에 발린 얘기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때의 말은 어색함의 표출이다. 그러한 심리 상태로는 진정한 포옹이 불가능하다.

소설가 남지심의 化緣에서 찾은 **내 안의 너 안의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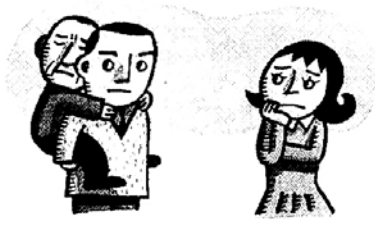
나의 아버지

오늘은 결혼을 앞둔 한 청년의 고민을 소개하겠습니다.

체육대학을 나와서 조그마한 스포츠용품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32살의 예비신랑이라고 자신을 밝힌 청년은, 3년 전에 어머니와 사별하고 외롭게 생활하고 계신 아버님을 모시고 있다 했습니다. 손위의 누나는 어머니가 살아 계실 때 이미 결혼을 했기 때문에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자신이 자연스럽게 아버님을 모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버님을 모신다곤 하지만 실제로는 아버님이 자신을 데리고 산다 해야 말이 맞을 것 같다고 하면서 청년은 씩 웃었습니다. 그건 아버님이 식사는 물론 빨래 청소까지 도맡아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67살인 아버님은 어머니가 병석에 누워계실 때부터 해오던 살림을 지금도 그대로 맡아서 하고 계신다 했습니다.

병마와 싸우던 어머니가 집안에 계시지 않은 것만 달라졌을 뿐, 외형적으로 별로 변화된 것이 없는 그들 가정은 그런대로 평온을 유지하면서 일상생활을 해 왔다고 합니다. 아버님의 말수가 점점 줄어들고 그와 비례해 담배를 피우는 횟수가 눈에 띄게 늘어난 것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가 쏟아지는 밤중에 고열로 앓고 있는 저를 업고 이병원 저병원 문을 두드리면서 애타께 의사 선생님을 부르시던 아버님의 음성도요. 저를 목욕탕에 데려가실 때마다 저울 위에 올려놓으시고는 올라간 수치를 바라보면서 흐뭇한 표정을 지으시던 아버님의 눈길도 저는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지하게 고민을 털어 놓고 있는 청년의 오른쪽 손목엔 알이 굵은 단주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청년이 끼고 있는 단주를 바라보다가 아버님도 종교를 가지고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청년은 자신의 집안은 대대로 불교를 믿고 있는 불교집안이라고 하면서, 어머니가 병석에 누워 계실 때 해 드렸던 것처럼 아버님은 지금도 천수경, 금강경 같은 테이프를 틀어 놓고 혼자 경을 외우신다고 했습니다.

청년의 말을 미루어보면 아버님은 퍽 자상하고 따뜻한 분 같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온 공무원이면서 가장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 분이 노경에 이르러 자식한테 무거운 짐이 되고 있다 하니, 산다는 것이 참으로 서글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년의 고민을 말고는요. 청년은 그런 아버님을 뵐 때마다 아버님이 겪고 계시는 외로움이 가슴깊이 다가와서 혼자 몹시 힘들었다고 자신의 심경을 고백했습니다.

늙은 아버지 두고 결혼할 수도 없고…

그런 그의 가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은 자신의 결혼 날짜를 잡고난후부터였다고 합니다. 교제를 할 때는 아버님을 모시고 살겠다던 신부가 막상 결혼 날짜를 잡고나자 아버님을 모실 수 없다고 완강히 버틴다는 것입니다. 당황한 청년은 달래도 보고 사정도 해봤지만 신부는 막무가내로 자신의 주장만을 내세우고 있다했습니다.

돌변한 신부의 태도에 의아함을 느낀 청년은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그것이 신부 어머니와 언니들의 설득 때문임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청년은 어머니와 언니 입장에서 그런 설득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심정은 이해하지만, 자신으로서는 아버님을 모시지 않는 결혼 생활은 생각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구청의 말단 공무원이셨던 아버님은 제가 좋아하는 축구공 하나를 사기가 몹시 힘드셨던 것 같습니다. 어렵게 장만한 축구공을 저에게 건네주시면서 환하게 웃으시던 아버님의 얼굴을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청년은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가

"선생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두 번째 방법은 저도 생각해 봤습니다만 세 번째 방법은 아직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말씀을 듣고 나니 그 방법을 아버님이 가장 좋아 하실 것 같은데요."라고 말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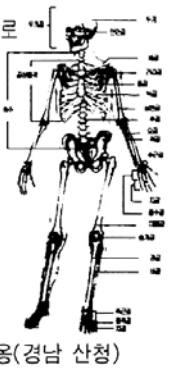
그러면서 세 가지 방법을 놓고 아버님과 진지하게 의논을 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들 부자가 어떤 방법을 택할지는 모르지만, 가능하다면 세 번째 방법을 택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았습니다. 저라면 그 방법을 택할 것 같아서죠.

化緣 (02)704-3577

서북토종오가피농장
저희는 높은 이윤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높은 이윤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서북토종오가피농장에서는 오직 유기농법으로만
오가피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생산자의 양심을걸고 정직한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직접판매하고 있습니다.

전화문의 및 농장방문을 환영합니다
● 제 품 : 오가피추출액, 묘목
●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운정 3리 9-5
서북오가피농장
전화 : 031-682-5033
팩스 : 031-682-5034

관 절 염
자생환(自生丸)
관 절 염
류마티스
초기 퇴행성관절염
혈액순환장애
디 스 크
악간의 활동이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쑤시고 저리는 경우 자생환(自生丸)을 복용후 1개월부터는 확실한 효과가 나타남
선천성 냉체
산후바람
낭 습 진
· 자생환(自生丸)을 2~3주만 복용해도 효과가 나타남
참고 - 심각할 정도로 나쁜 상태는 빌도로 상담바랍니다
"자생환(自生丸)의 뛰어난 효과 때문에 입에서 입으로 소개되어 많은 고객으로부터 주문 및 문의가 쇄도"
▸ 주의사항 심장질환자, 폐질환자, 임산부, 음주전후에 복용금지

※ 발명자 : 민속의학자 권재우 옹(경남 산청)
주문 및 상담전화 (055)972-4054
한방을 선도하는 기업 骨仁製藥(株)

법인사찰등록증 재교부신청
공 고
본종단은 민법 제32조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소관 비영리 법인에
등록하였으므로
이에 법인사찰 등록증 일체를
재교부코저 공고합니다
1. 사찰등록증, 주지임명장, 승려증, 주지신분증
2. 사진(반명함판) : 5장
3. 교부기간 : 2002년 11월 1일 ~ 12월 25일까지
(중도님께서는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 전국 미등록 사,암 등록 받습니다
● 문의처 : 061)433-2233, 433-3233
● 사무국 : 062)224-1080
2002년 10월 20일
사단법인 대한불교 선 각 종
주 소 : 전남 강진군 옴천면 개산리 391(옴천사)
총 무 원 장 석 정 암

현대불교신문사 창간8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 조동종 지장도량
옥불금룡사
회주 김법공(德龍) 011-781-0218
주지 최수임(行天) 018-337-1244
회 장 최영륜(性 大)
지 장 회 이동현(性 法)
해외성지 홍경교(大願行)
방 생 회 정옥련(大衆華)
산 악 회 김미금(自性華)
자 비 회 정재숙(慈悲行)
후 원 회 최옥림(天錦華)
홍 보 부 김경렬(性 淨)
행 자 진 오(永 辰)
상 조 회 권석조(性 圓)
관 음 회 김태숙(普明華)
보 현 회 이강남(圓明心)
문 수 회 구순자(淸淨華)
연 화 회 민병승(修德華)
달 마 회 정하희(功德華)
총 무 홍춘교(普提心)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외동 261-28호
02)383-3346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마음의 발전 있어야 삶도 발전

아침저녁 자고 깨는 것도 실감나지만 우리가 흩어졌다 모이는 것도 실감이 나죠. 허허허! 이렇게 흩어졌다가 모이는 것도 일종의, 우주 자체도 그렇게 흩어졌다가 모이고 모여졌다 흩어지는 작용을 쉴 사이 없이 하거든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살면서 내 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회 또는 내가 살고 있는 그 자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것도 생각해볼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나가는 수가 많습니다. 먹고살기 위해서, 자기 죽을 날도 생각하지 못하면서, 죽는다는 것은 기정 사실로 받아들이면서도 죽을 날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요새 난 상당히 그 무엇인가, 여러분이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고 억압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를 생각할 때 너무나 딱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참,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창살이 없으면서도 창살 속에서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하면서 억압을 받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나 하고 말입니다. 폭넓게 생각을 해보십시다. 사람들이, 사람뿐만 아니라 천차만별의 사생(四生)들이 살고 있는 그 모습과 행동하는 것과 그 모두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말입니다. 모든 천차만별의 사생들은 자기가 살아온 습대로 벗어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거를 왜 이기지 못할까요?

표현을 한번 한 가지로 해봅시다. 연어가 자기가 태어난 자리를 떠나서 세상 천지를 돌아다니다가 알을 낳을 때는 그 자리에 다시 와서 자기 모습을 형성해 놓고 자기의 모습은 없어지는 그러한 생을 쉴 사이 없이 왜 벗어나지 못할까요. 사람이라고 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들이 사는 그 가운데에 바로 나도 더불어 함께 한마음으로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고 그런데, 나를 형성시킨 놈이 어떤 놈인가? 내가 나를 형성시켜서 지금 끌고 다니는데, 물론 혼자는 할 수 없어서 부모를 등장시켜서 정자 난자를 빌고 몸을 빌어서 우리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벌레가 나무를 의지해서 자기 몸을 비틀어 매서 진화를 시키듯이 말입니다. 우리는 기대지 않고는 못 살아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한테다 해드리는 말이 공생(共生)·공심(共心)·공용(共用)·공체(共體)·공식화(共食化)하고 돌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먼 데로 가서 공부를 해야겠다, 어디 산으로 올라가서 공부를 하겠다, 혼자 앉아서 공부를 하겠다는 이런 생각은 아주 어긋나는 일이죠.

어떤 제자가 스승님께 이런 말을 했답니다. "여기가 너무 시끄럽고 분주하고 대중들이 많아서 도저히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산으로 올라가서 토굴을 짓고 공부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니까 그 스승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너는 지금 곧바로 가되 땅을 딛지 말고, 남이 짜준 옷도 입지말고, 남이 농사지은 밥을 먹지도 말고, 남이 떠다 놓은 물도 마시지 말고, 남의 땅에다가 오줌도 누지 말라. 그러고 남이 농사짓고 나서 나온 걸로 지붕을 만든 건데 그 지붕 밑에서 어떻게 자느냐? 남들이 다 해놓은 데서 너도 더불어 같이 살면서, 더불어 같이 사는 너의 모습과 너의 생명과 너의 아픔을 다 버리고 무슨 공부를 한다고 하느냐." 하시더랍니다. 그런 거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허! 이게 모두가 한도량이구나!' 하는 그 뜻을 그때서야 알고 가는 바도 없고 오는 바도 없이 공부를 했더랍니다.

그런 도리를 우리가 꼬집어서 어떻게 말로 다하리까? 말로 해서 마음이 승화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삼천 년 전에 부처님께서 그 뜻을 일러주시고 지금까지도 일러주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수많은 사람이 그 도리를 깨달았다 해서 각각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얘기를 자세히 들어야 해요. 마음은 체가 없어서 수많은 사람, 깨달은 사람들의 마음이 아무리 마음을 통해서 들어와도 두드러지지 않고, 그 여러 부처님의 마음이 마음을 통해서 바닷물 내놓듯이 다 내놔도 줄지 않는 다는 것을요. 이렇게 광대무변하고 묘한 도리가 우리들에게 다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그 관습에 매달리고 그 습에 매달려서, 인연줄에 매달려서 꼼짝을 못 하고 그냥 있는 거예요. 부부지간이라 할지라도, 부모자식지간이라 할지라도 그 자식들의 몸을 붙잡고, 남편이나 아내의 몸을 붙들고 매달리지 말고 그 마음을 둘 아니게 놓고 슬기롭게 굴린다면, 몸은 저절로 붙들어지고, 사랑은 저절로 화(化)해서 자비가 되고 자비의 정이 되고, 떨래야 뗄 수 없이 이어져 가는 그런, 더불어 하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묘법이 여러분한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어떡하면, 어떡하면 요것을 요리를 잘해서 맛있게 먹여서 그 요리 맛을 알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도무지 … 땀이 부쩍부쩍 나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지구에 붙어서 사는 우리 사람 벌레가, 우리는 화(化)해서 한 발을 떼어 놓아야만이 우리는 공기 주머니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야만이 자유자재할 수가 있고, 그래야만이 내 마음을 마음대로 쓸 수가 있는 그런 자리의, 즉 평등봉(平等峰)의 같은 자리를 할 수 있어서 여래 자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벗었다고 해서, 이 생에 살면서 입었던 옷을 벗었다고 해서 죽어서 그 옷을 입지 않는 게 아닙니다. 옷을 벗으면 자기가 살던 차원대로, 참 TV를 보니까요, 배를 갖다가 놓고, 같은 배인데도 크고 작은 것을 가리려고 갖다 놓고선 굴러 떨어뜨립디다. 적은 것은 적은 대로 굴러 떨어지고 큰 거는 큰 것대로 굴러 떨어지게 해요. 그러니 같은 배건만 크고 작은 걸 가려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작은 건 작은 것대로 놓고 팔고, 큰 것은 큰 것대로 놓고 팔고, 중간치는 중간치대로 놓고 파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모습이 다른, 그 자체 천차만별의 모습들을 죄들 각각 놓고 경쟁을 하고 있는 거죠. 그 경쟁에서 벗어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살아온 습, 그 습으로 인해서 오는 인연에 따라서 인과가 되는 거니까 그것이 업이 되는 거죠. 그게 악업이 되느냐 선업이 되느냐, 또 사랑도 하다가 어떠한 문제 때문에 헤어지면 악업이 되죠. 선업이 그냥 악업으로 순간에 변해 버리고 말게 되는 거죠.

그러니 악업 선업이라는 자체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은 짐작도 못하실 겁니다, 아마. 여러분 몸 속에 다 들어있어요. 갖은 각색의 모습을 해 가지고 의식을 가지고, 그거는 하나도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업식이 굴레에서 그냥 고대로, 컴퓨터에 넣으면 고대로 나오듯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업식이 고대로, 딱 아주 기정 사실로 들어있거든요. 그런 거를 지금 내가 말해드리는 건, 그렇게 뺄래야 뺄 수 없고, 끼울래야 끼울 수 없이 입력이 돼서 나오는데, 그렇게 나오는 것을 팔자 운명이라고 하죠. 그리고 영계성 세균성 윤회성 업보성 인과성 모두가 거기에 속해서 나오는 것이 전부 몸 안에 들어있어요. 누구도 부인 못 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나로부터 이 세상이 벌어졌고 나로부터 상대가 생겼고, 나로부터 업식이 생긴 거니까 모든 것을 전부 내 탓으로 돌리라고 하는 겁니다.

묘한 거는 과거에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과거에도 이렇게 살았어요. 살면서 그 인과라든가 유전성이라든가, 세균성 업보성 또는 영계성까지도 종합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인과가 되는 거죠. 인과가 돼서 자동적으로 입력이 된 겁니다.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가 없이 말입니다. 입력이 돼서 여러분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한 치도 벗어날 수 없이 녹음이 돼서, 입력이 돼서 나오는 것처럼 됐는데, 사실 입력이 돼서 나와요.

그런데 입력된 것을 어떡하면은 없앨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입력이 된 데다가 되입력을 하면 앞서 입력한 것은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깐 그렇게 빨리 인식이 되고 동감이 될 수 있도록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그냥 자동적으로 입력이 돼서 나오는데 거기에 말려서 그대로 습성으로 돼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모두 살아나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자리에다가 믿고 되놓아라, 제 나무는 제 나무 뿌리를 믿어야 되느니라.' 고 했습니다. 제 나무는 제 뿌리를 믿어야 수분과 에너지를 모두 흡수해서 올려보낼 수 있어서 나무가 푸르르게 살 수 있는 것이지, 남의 나무의 뿌리를 믿고, 아이고! 좋게 살게 해달라고 아무리 빌어도 그건 기복이며 이익이 하나도 가지 않는 것이며, 공덕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공덕이란 말은 뭘 뜻하느냐 하면, 천체가 시공을 초월해서 돌아가는 진리를 하나로 묶어서 더불어 같이 돌아가고, 같이 살고 말과 마음이 이어지고 돌아가는 것을 바로 여래라고 하죠. 그러고 공덕이라고 하고요. 어떤 일을 할 때에 나 한 사람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크게 문제가 생기면 모두 거기에 관여가 된 모든 사람들은 전부 모여야 그 일이 성립이 되죠. 전부 모이지 않고는 혼자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불어 같이 모여서 공동 분담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그 자체가 바로 주인공입니다. 우리가 공(空)해서 전체가 다 이어져서 돌아가니까, 내 주인을 먼저로 치고 그 내 마음 주인으로 하여금 모두 보풀어져서 더불어 같이 돌아가는 그 자체를 주인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이 몸 속의 모든 중생들이 의식들을 꼭 고렇게 가지고 있으니까, 변화를 시키려면 내 마음의 선장이 그 자생중생들을 다, 내 몸이 배라면 다 태워 가지고 지금 다니는 거거든요. 배에 탄 중생들은 다 그 선장의 말을 듣게끔 돼있거든요 즉 말하자면 질서 있게 그 행동을 마음의 선장에 의해서 따르게 돼있어요. 그러니까 악의적으로 "어휴! 저놈은 죽었으면 좋겠다."하면은 안에서도 "저놈 죽었으면 좋겠다."하니까, 그쪽으로 음파가 그냥 가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쪽에서도 아예 더 마음이 부풀어지면서 "두고 보자." 하게 또 만들거든요. 그러니깐 몸 안에서 의식들이 내 마음의 채찍의 다스림에 따라서 나가서 마음도 조절하고, 나쁘게 조절하느냐 아주 평화스럽고 좋게 해결사로서 조절을 하느냐에 달린 것도 바로 자기 생각에 달려 있다는 거죠. 이건 기정 사실입니다.

그 셀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의식을 가지고 있고 천차만별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악업 선업의 천차만별의 업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서 하나하나 나오는 대로에 맡겨 놓으면은 다 통신이 돼서 결정이 되지만, 그렇지 않고 자꾸 바깥으로 끄달리고 자꾸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생각에 의해서 작용을 하게 되거든요. 오늘은 요런 자세한 말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시라도 마음을 넓게 가지면서 거기다가, 만약에 꿈을 꾸었다든가 상대의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나에게 잘못되는 일이 돌아올 기미가 보인다던가, 또 나를 그냥 꼭두각시로 만든다던가, 또는 나를 적대시 한다하더라도, 이런 문제들이 허다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될 거를 벌써 내가 그 기미를 알게 되면은, "너만이 그렇지 않게 할 수가 있잖아! 그 마음과 둘이 아니게 내 마음으로 쓸 수 있게끔 너만이 할 수 있잖아!"하고 모든 신호를 거기다 맡겨놓을 때에, 이건 의학적이기도 해요. 맡겨놓을 때에 대뇌를 통해요. 그러고 고 다음에 소뇌를 통하고 중뇌에서 결정을 짓게 되면 하달이 되는 거죠. 사대(四大)로 통신이 되고요. 통신이 돼서 제각기 소임을 맡아 가지고 그때는 뛰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안과 밖으로 다

☞ 26면으로 계속

입력이 된 데다가 되입력하면 앞서 입력한 것은 없어지는 것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은 길게 살아오면서 우리가 모습들로 하여금 먹히고 먹고 이러면서 살아온 그 습의 결과입니다. 그 습이 쉴 사이 없이 반복되는 반면에 누적이 되고 누적이 되고 하면서, 하여튼 그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려고 한 번도 생각해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왜 그대로만 따라갈까요? 그대로 따라가면서도 우리 마음은 발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마음의 발전이 있어야만이 우리의 삶도 발전이 되고, 또는 발전이 되는 반면에 우리는 창조력이 생기고, 창조력이 생기면 그때는 물리가 터지고, 물리가 터지면 지혜로워지는 겁니다, 마음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우주 천지를 곳곳마다 심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자유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게 넓게 본다면, 어떻게 넓게 봐야 하나? 첫째, 우리가 공기 주머니 안에서 벗어나지 못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 사실만 해도 그것은 아주 폭넓은 생각에 속하죠. 그런데 그렇게 알고만 있어서도 안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항상 얘기하죠. 마음은 체가 없으니까 과거·현재·미래를 한찰나에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행동할 수도 있고, 삼천 년 전을 지금 현재에 일 초로 갖다 놓을 수도 있습니다. 미래를 일 초로 갖다 놓을 수도 있다는 말이죠. 이것은 못을 박아서 미래의 어느 때에 갖다 놓을 수 있다고 하는 게 아니고 시공을 초월해서 멀고 가까움이 없이 또 가고 옴이 없이 자유롭게 가고 옴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의 힘이 어디서 생기냐는 거죠, 마음이 폭넓어지고, 폭넓은 무리들이 삶은 고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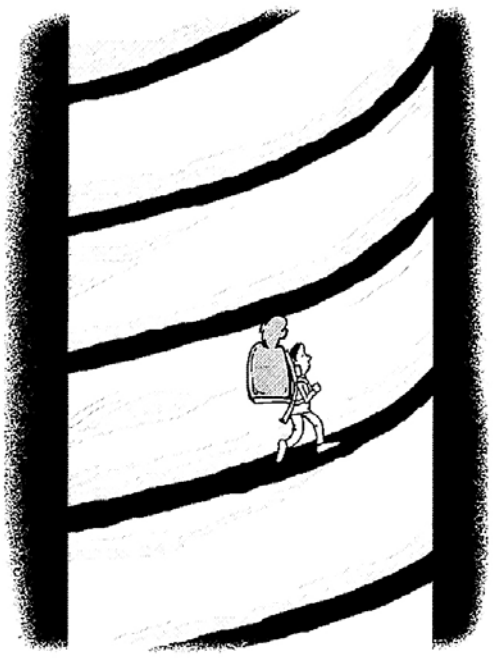


그림 · 최주헌

이론으로만 알려고 하면 아는 것이 오히려 걸림돌

죽었다 살았다 할 것 없이 우리의 삶은 영원한 것

기쿠는 언덕을 넘듯 고달픈 현실에 힘겨워하는 사람들 순간순간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현대인들에게 대행 스님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 삶은 고(苦)가 아니다



A5신 288쪽
값 6,000원
여시아문

대행 스님과 신행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현대불교신문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팩스:031-470-3116)앞이나 한마음 선원 홈페이지(http://www.hanmaum.org)로 연락 바랍니다.

영원한 근본 못 보는 것
무명 굴레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



그림 · 최주현

☞ 25면에서 계속

됩니다. 그래서 내면의 절차가 다 잘되어 있어야 외부의 절차가 다 잘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안에서 깨진 바가지가 바깥에 나가면 새지 않느냐는 속담의 말도 있죠? 그러니 내 안에 들은 모든 생명체들의 의식이 바로 내 주인이자 내 하인이자, 그리고 내 육체가 또 그네들의 주인이자 바로 심부름꾼이며 관리인이자 집합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불어 같이 사는 거지 개별적인 혼자가 없어요. 모두들 살아나가는데 내가 했고, 내가 살고, 이거는 내거라고 하는 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 것이 없다면 바로 욕심이 다 떨어지는 겁니다. 보세요. 내가 벌어놨다 하면은 그게 조금만 없어져도 그냥 안타깝고 속상하지만 더불어 내 것이다, 더불어 한마음이다 한다면 가지고 다녀도 무겁지도 않고요, 도둑맞을 일도 없지 않습니까? 하하하. 또 생짜배기로 돈이 나가지도 않을 거구요. 전부 자기 돈이라고 그러는데, 더불어 같이 모두의 돈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짜배기로 나갑니까? 그러나 내 것이라고 한다면 무슨 핑계를 대고라도 그 돈이 다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오늘은 여러분이 허심탄회하게 질문들 하시길 바랍니다. 질문하는 동시에 세세한 것도 그 속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세계적으로 볼 때도 그렇고 모두 상대를 놓고 기도를 하게 만들어 놨고, 전부 상대를 놓고 참, 그것도 기적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상대를 놓고 빌고 기도하게끔 만들어 놓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에요. 자기가 혼자 왔다 혼자 가는 그 사실을 안다면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다는 것을 알텐데 말입니다. 정말 집 안에 들어가서도 말을 못할 일이 생기고, 말을 그렇게 할 수가 없이 자기 혼자만이 알고 있어야 하는 일들이 한두 건이 아닐 겁니다. 남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는 모든 일이 전부 혼자서 먼 산 보고 울어야만 하고, 자기 혼자서 새겨야 하고, 참아야 하는 일들이 살다보면 건건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올 때도 혼자 왔기 때문에 갈 때도 혼자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르쳐 주는 건, 혼자 온 것이 없기 때문에 혼자 갈 것도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영원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 연어가 알을 낳을 때는 다시 자기가 태어난 자리로 와서 낳고 자기 몸을 벗는다고 얘기를 했듯이, 자기가 태어난 그 자리에 다시 와서 자기를 다시 형성시켜 놓고 자기는 그냥 옷을 벗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거지, 우리가 뭐 죽었다 살았다 할 것이 없는 것이 바로 우리가 저녁이면 잠자고 아침이면 깨는 거와 같기 때문입니다.

▲질문자1: 스님,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견성에 대해서 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달마조사 혈맥론(血脈論)에 의하면은, 부처를 찾고자 하면은 반드시 우리가 견성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염불을 하거나 또 경을 외우거나 계율을 지켜도 마음의 발전이 없으면 별로 이익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뭐 경을 외우면은 총명을 얻고, 계율을 지키면은 천상에 태어나는 과보를 받고, 보시를 하면 우리가 복된 과보를 받되 부처는 될 수가 없다는 말씀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수행하는 불자들이 반드시 견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본래 마음이라는 것은 체가 없고 모양도 없고 빛깔도 없어서 우리가 볼 수는 없는데, 단순히 그 작용하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보고 듣고 하는 걸로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제 주인이 마음이고, 또 저를 지금까지 형성시켜온 것이 그 마음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알고 수행하는 자체가 견성인지 아니면 저희들이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그 어떠한 다른 경계가 있어서 말씀을 하신 건지 그 점이 상당히 궁금해서 스님께 가르침을 구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님: 여러분이 그렇게 이론으로 잘 알려고 하면은 오히려 공부를 못 하죠. 잘 아는 것이 앞을 막아서요. 그렇다고 몰라도 된다는 건 아닙니다.

▲질문자1: 글쎄, 아리송해서요.

▲스님: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고, 내가 있기 때문에 마음 공부도 하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천차만별의 작용을 하면서 살고 있구나, 그러면 그렇게 작용하는 나를 누가 형성시켰나 하는 건데, 바로 자기란 놈이 형성시켜 놨잖아요. 그렇죠?

▲질문자1: 예.

스님: 자기란 놈이 형성시켰으니까, 나를 형성시킨 고 놈이 바로 부가 되는 겁니다. 참자기가 되고, 그런 거니까 형성된 자(子)의 마음은 바로 부의 마음과 둘이 아닌 까닭에, 나무는 반드시 제 뿌리를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무는 제 뿌리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는데 미쳐 자기 뿌리를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걸 무명이라고 합니다. 흙이 덮여서 나무가 제 뿌리를 못 보는 것을 무명이 덮였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도 영원한 근본 자기 뿌리를 못 보는 것은, 바로 무명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뿌리를 자기가 못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알고 모르고 그걸 떠나서 진실하게 물러서지 않는 마음으로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그러고 그 나온 자리에다가, 지금 현실의 모든 일체 작용이 나오는 자리에다가 모든 걸 되맡겨 놓으면, 입력이 된 데다가 다시 입력을 해서 맡겨놓으면은 앞서 입력한 내용은 없어지고 새 내용으로 다시 대치를 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일체를 모두 그 자리를 믿고 맡겨서 재 입력을 하라는 겁니다.

▲질문자1: 스님, 그러면은 제가 선원에 나오기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 느낀 점과 체험한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선원에 나오기 시작한 지가 약 5년이 되거든요. 스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주인공을 믿고 오로지 그 자리에다 맡기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아까 스님 법문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과거의 나쁜 습관으로 인해서 처음에는 참 공부가 안 되는 거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욕심도 나고, 미워하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고, 질투도 나고, 음란한 생각도 들어가고, 어리석은 마음도 나오고 이래서 처음에는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제 생각에는 이 공부는 내가 사람 몸 받았을 때 반드시 하고 가야 된다는 그 생각에 의해서 한번 꾸준히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그러한 생각에서 벗어나고 그 생각이 점점 적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이 상당히, 말하자면 편안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 년여 동안 선원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치료를 위해서 치과에 몇 번을 갔지만 몸이 아프거나 그래가지고 병원이나 약국을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는데 제가 그 중간에 선원에 나오기 시작해서 한 7개월 정도 됐을 때 제 엉덩이에 종기가 밤알 만한 게 아마 10개 이상 났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를 공부시키는 기회구나 하고서 밀어붙였어요. '주인공! 당신 몸이니까 당신이 낫게 해야지.' 하고 병원에도 안 가고, 그전 같았으면 아마 병원에 가서 마이신을 맞는다, 뭐 한다 난리를 쳤을 텐데, 그 자리에다 맡겨놓고 그냥 밀어붙였어요. 그랬더니 이상하게 종기가 그렇게 크면서도 아픔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 십여 일을 지나더니 그냥 스스로 나아지는 겁니다. 그래 그 뒤로는 몸이 어디 좀 아프거나 하면은 그냥 주인공 자리에다가 맡기면은 스스로 낫기 때문에 병원에 갈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마음공부가 얼마나 굳건한 신심으로 진실히 믿고 맡기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저는 누구보다 절실히 그 사실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습이 너무 많아 가지고 지금도 가끔 삼독심(三毒心)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욕심내는 마음이 저도 모르게 제 마음자리를 비집고 들어와요. 그럴 때는 사실 참 저 혼자 저 자신을 들아보면서, '5년 동안 네가 뭘 공부했느냐?' 이런 자책감도 드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주인공 자리에 이렇게 관합니다. '오 년 전하고 지금하고 한번 비교를 해봐! 그때의 너하고 지금의 너하고 얼마나 다르냐? 그러면 내가 공부가 된 게 아니냐?' 제가 제 자신에게 말하면서 제 몸을 밝게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가는데 스님께서 가르쳐주신 대로, 누구의 말대로 소 고삐를 올바로 잡고 끌고 가는 것인지 한번 스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스님: 올바르게 이끌어가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발광을 하고 습성이 나올 때에 왜 가슬립니까? 그냥 한번 비죽이 웃어보세요. 어떠한 생각이 나오든지 거기서 나오는 줄 알면은 그냥 웃어버릴 수가 있고 또 그렇게 해도 속지 않고 그것도 주인공자리에서, 화해서 모습을 바꿔가지고 자꾸 진드기를 놓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자꾸 견이 생기죠. 그런 거를 가지고 거기에 끄달리면 어떡합니까? 끄달리면 속는 거죠.

동짓날 팥죽 쑤는 얘기를 가끔 예를 들어 말하는데, 팥죽 솥에서 팥죽이 끓는데 방울방울이 따로따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한솥의 죽방울인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의 죽방울이 한 죽 솥에서 나오는 거니까, 뭐 다른 데서 들어오는 것도 없고 나갈 것도 없다는 생각을 하면 비죽이 웃음이 날 것 아닙니까? 그러니 걱정될 게 하나도 없죠, 뭐!

▲질문자1: 아직 공부가 덜 돼서 그런 거 같습니다.

※위 법문은 1993년 11월 7일 법형제 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생각이든 거기서 나오는 줄 알면 그냥 웃어버릴 수 있고 속지 않아

현대불교 1천원 법보시운동에 동참합시다

군부대 · 교도소 · 복지시설에 자비의 법등을 밝힙시다

'현대불교'는 우리의 소중한 이웃인 군부대, 경찰서, 교도소, 병원, 복지시설 등에 '현대불교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법보시는 부처님 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심는 것으로 선근을 자라게 하여 개인에게도 무량한 공덕이 됨은 물론 우리 사회를 한층 밝고 따뜻하게 하는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육취윤회경〉에서 "보시의 공덕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경전의 가르침을 보시하면 큰 지혜를 얻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 동참방법
매월 1,000원 이상 자동이체 또는 수시 온라인 입금(문의시 상세히 안내)
또한 보시하는 불자님이 직접 법보시 대상자나 단체를 정하셔도 됩니다.

■ 참여방법
예금주 성명, 은행명(우체국/수협은 제외), 계좌번호, 예금주 주민번호, 이체 희망일자, 연락처를 전화로 알려주시면 자동이체로 후원금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 신청 및 문의
고객부 (02)737-0090(直) (02)737-8881(代)

현대불교신문사

만세력이 필요없는 책

육임래정비법혁신판

출생년월일시를 물을 필요 없는 책

찾아 온 시간, 전화 온 시간, 가서 만난 그 시간만으로 상대의 용건과 정황과 비밀한 사정을 미리 알아 먼저 말하고 그 방책을 판단해주는 비기서!

육임은 사람일을 밝히는데는 최고의 학문입니다. 그래서「五術之中帝王」이요,「神示」라고도 합니다. 오행(五行)을 몰라도, 이 책 그 날치 한장만 떼 놓고 그 시간만 보면 아래 내용을 미리 알고 먼저 말할 수 있습니다. 같은 시간에 여러사람이 차례대로 오거나 같은 시간에 여러사람이 한꺼번에 몰려 오더라도 각기 다르게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 무슨 일 때문에 왔는지 전화 했는지
-. 그 일이 잘 될것인지 안될 것인지
-. 가정이 부유한지 빈한한지 지금 가정에서 무슨 고민, 어떤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 현재 사는 집이 길상(吉相)인지 흉상(凶相)인지 어디로 언제 이사해야 개운될 것인지, 이사하면 언제 발복하게 될 것인지
-. 상대가 이익 줄 사람인지 피해 줄 사람인지 무능인 인지
-. 선한 사람인지 악성인 인지
-. 이미 일이 벌어졌는지 벌어질 것인지 언제 벌어지게 될 것인지
-. 옛날 일인지 최근사 인지
-. 남녀불문하고, 어떤 색정사가 벌어져 있는지 아니면 언제 벌어질 것인지
—男二女 관계인지 二男一女 관계인지
-. 지금 무슨 귀신의 침해를 받고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뗄 수 있는 것인지
-. 현재 누구 산소의 탈을 받고 있는지 어떻게 해소시킬수 있을 것인지
-. 무슨 병인지 고칠수 있을지 없을지 언제 낫게 될 것인지
-. 귀신 병인지 아닌지
-. 수법(천도 시식 굿 부적)을 행해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언제 다시 판단해야 효과가 있을지
-. 집(토지)이 팔릴지 안팔릴지 언제 팔리게 될지
-. 시험에 붙을지 떨어질지
-. 선거에 당선 될지 낙선 될지 -. 승진이 될지 말지
-. 돈이 구해질지 어려울지 언제 돈이 될지
-. 임신한 아이가 남아인지 여아인지 몇날 몇시에 태어날지
-. 경기 승부에 이길지 질지
-. 결혼이 성사 될지 말지 언제 결혼하게 될 것인지
-. 집나간 사람이 올지 말지 언제 오게 될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 도둑이 잡힐지 못잡을지 잃은 물건을 찾을지 못찾을지
-. 이 사람을 채용해야 좋을지 안좋을지
-. 투자를 해서 이익 될지 손해 날지
-. 이 가격이 높은지 낮은지 언제 사고 팔아야 할지
-. 이 산소가 좋은지 나쁜지 후손은 어떻게 살아 같것인지
-. 무엇을 심어 어떤 결실이 얻어 질 수 있을 것인지
-. 비가 올 것인지 개일지 눈 비 바람이 몇날 몇시부터 오고 불 것인지
등 등 인간사의 모든 길흉성부를 즉시 말해 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육임 신수비결(身數泌訣)

찾아온 시간이나 띠만 알면 해당국수가 나타나 그 날 그 국수를 펼치면, 1년의 운세와 월별 길흉과 식구들의 특징사항들이 밝혀져 있습니다. 신수도 육임만큼 정확한 것이 없습니다. 값 : 250,000원

사주나, 기문이나, 주역이나, 하락이수나 어떤 명리법술도 인사의 구체적 길흉성부 판단에 있어서는 육임을 따를 수 없습니다. 사주 10년을 해도 이 책 그날치 한장의 시간별 내용을 밝혀 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도(道)를 말 하나, 구체적인 물음에 구체적으로 즉답하지 못하면 진정한 활인천역(活人天役)이 못됩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문제와 당장의 의문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육임은, 마주치는 그 시간, 전화 온 그 시간으로 상대방의 비밀한 사정과 정황을 즉시 알고 그 문제점과 고민을 바로 해소시켜 줄 수 있게 됩니다. 한두가지의 예를 들자면, 마주친 그 순간에 어떤 귀신의 침해를 받고 있는지, 누구의 산소에서 탈을 부리고 있는지, 무슨 귀신병인지, 고칠 수 있을지 없을지를 미리 알고 그것들을 해소시킬 방법을 제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외 입시 선거 구제 취직 승진 매매 입신 가출 등등 인간사의 세부적인 것들까지 속시원하게 밝혀 줄 수 있어 진정한 활인천역을 수행 할 수 있게 됩니다. 육임은 딱딱 부러지는 묘미(妙味)가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내심(內心)의 갈등이 없습니다. 이책은 한마디로 염천행로(炎天行路)의 냉천수(冷泉水)같은 것입니다.

바인더차트 每一式
■ 활인전문천역자용 (부록 · 설명비디오 포함)
● 육임래정비법 혁신판 W1,500,000 (휴대용)
● 육임래정비법 혁신판 W1,300,000 (좌정용)
● 효사 육임강의록 W300,000
● 효사 육임비디오 강의수강(총 28개) W900,0000
● 강의신청「육임학당효사숙」02-998-8683
■ 각종 카드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 주문전화 02-993-8680 ▶ 부산지사 051-851-2349 ▶ 서울강남지사 02-2203-4805 ▶ 입금계좌 : 우리은행 813-041583-13-101 김영란 도서출판 卜問

"우리 부부 신행 함께하는 도반"

PC통신 대화방 통해 만난 커플들



◇아이와 함께 동호회에 접속한 박찬주 · 김승일(왼쪽) 부부.

동호회 일 어려움 이야기 나누다 친해져
참선방 도우미 자청 초심자들 안내역도

〈짠쥐〉님이 입장하셨습니다.
짠쥐 : 합장
bud : 합장 투. 누나 아님 형?
짠쥐 : 누나다. 27일 서경법회 알지?
bud : 응. 누나도 형이랑 같이 올꺼지?
〈중략〉

'짠쥐'라는 아이디는 전 생명나눔실천회 박찬주(32) 홍보차장과 인하대 공대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한 김승일(32) 부부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통신상의 이름. 처음에는 각자 다른 아이디를 사용했으나 결혼후 하나의 아이디로 통일했다.

박찬주 · 김승일 부부는 이곳 부처님마을 대화방에서 97년 여름 '짠쥐'와 '새벽노래'라는 아이디로 처음만나 1년여의 연애끝에 98년 백년가약을 맺었다.

박찬주씨는 "제가 서울경기지역모임 시삽으로 활동하던 97년 남편과 주로 새벽에 동호회 운영의 어려움과 활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친해졌고 지금은 게시판, 대화방 등을 통한 온라인 활동뿐만 아니라 번개모임, 정기법회, 수련회와 같은 오프라인모임에도 적극 동참해 신행생활을 함께 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신상에서 신행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 법우들은 주말이면 도반들과 가까운 사찰에서 성지순례 번개모임도 갖고, 정기법회에 아들 도윤이를 데리고 오는 등 온 · 오프라인상에서 함께 활동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부럽기까지 하다고 입을 모은다.

김수일(42) 박선미(31) 부부도 유니텔 불교동호회 부처님나라에서 '무추재'와 'karma53'이라는 아이디로 만나 2000년 12월 결혼한 커플. 이들 부부들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부부'라고 부르는 것보다 '도반'이라고 불러주길 원한다. 온라인 활동은 물론 오프라인 정기법회, 성지순례, 참선수행 등 신행과 수행을 함께하는 벗이기 때문이다.

전법시삽과 재무시삽으로 동호회 운영진 활동을 통해 처음 만난 두사람. 6년동안 부처님나라 참선방을 지켜온 남편 김수일씨는 지금도 시간이 허락하는 한 매주 수요일 서울 강남포교원에서 열리는 참선방 모임에 빠지지 않는다. 얼마전부터는 참선방 게시판에서 온라인 도우미를 자청, 초심자들에게 훌륭한 참선 안내자 역할도 하고 있다. 부인 박선미씨도 매주 1회 서강대 물리학과 박영재 교수가 지도하는 선도회에서 참선을 배우고 있고, 저녁에는 남편과 함께 참선을 하며 서로의 수행을 점검, 경책해주고 있다.

나우누리 부처님마을 정재평 대표시삽은 "처음에는 동호회내의 이성관계에 대해 편견을 가졌지만 지금은 그 반대"라며 "도반으로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이 다른 회원들에게 자극이 되고 있고 동호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두식 기자 doob@buddhapia.com

IT단신

SW결함은 제작사 책임
권대우 홍익대 교수 주장

11일 코엑스에서 열린 '지식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디지털 법제의 정비방안' 학술 세미나에서 소프트웨어의 결함에 따른 손해발생시 지난 7월 발효된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배상책임을 소프트웨어 제작사가 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익대 권대우 법대 교수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 원장 윤창번)이 한국디지털재산법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소프트웨어의 공급과 관련해 제작회사가 직접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경우가 많다"며 "따라서 결함에 대한 책임도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으로 규율하기보다는 제조자의 책임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초고속인터넷 부문 1위
능률협, '하나포스' 선정

하나로통신(대표 신윤식)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하나포스(Hana FOS)가 한국능률협회에서 실시한 2002 한국산업의 고객만족도(KCSI) 조사에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부문 1위에 선정됐다.

한국능률협회의 조사 결과, 하나로통신의 하나포스가 KCSI 지수 42.7점을 얻어, 각각 37.3점과 37.2점을 받은 두루넷과 KT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제치고 1위에 선정됐다.

우리절 digital · cyber 불사

도선사

청담스님 코너 개설… 기념사업 등 소개
홈페이지 7월 개편, 디자인 · 콘텐츠 확충

도선사가 15일 문을 연 '청담기념관'에는 스님이 생전에 사용한 주장자, 서화, 벼루, 붓, 손가방, 바느질 주머니, 낙관, 동종 등 유품 100여점이 80평의 전시관에 상설 전시된다. 스님이 직접 서각한 현판도 선보인다. 스님의 행적이 일기형식으로 자세히 기록된 56년부터 59년까지의 수첩도 직접 볼 수 있다.

이 가을 도선사는 청담스님 탄신 100주년 행사로 분주하다. 인터넷 도선사에도 그 분주함이 엿보인다. 2000년 9월 오픈한 도선사 홈페이지에는 청담스님 코너가 개설돼 네티즌들의 스님에 대한 궁금증 해소에 일조를 하고 있다. 청담스님 100주년 기념사업의 전모도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스님의 행장부터 불교정화사, 우리 스님은, 마음법문, 기사 모음, 기념 사업 등의 코너로 나눠 서비스하고 있는 것이 특징.

'우리 스님은' 코너는 스님의 일화를 중심으로 꾸준히 업데이트 되는 시봉일기 같은 내용이다. 잔잔한 감동과 스님의 일상적인 여러 면모를 보여주고 있어 신도들은 마치 생전의 청담스님을 뵙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스님의 행장 코너 역시 이와 유사한 포맷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외에 홈페이지는 사찰안내, 종무소, 사찰 둘러보기, 여성불교, 유물진, 청담스님, 생활불교, 게시판, 방명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 7월 개편되어 새로 오픈한 홈페이지는 이전 홈보다 디자인과 콘텐츠가 더 확충되어 볼거리가 많아졌다는 평을 듣고 있다.

지역적으로 높이 위치한 도선사의 인터넷망은 지역 케이블에서 담당하고 있다. 사찰 종무 관련해서는 종무원들이 각각 컴퓨터를 운용하는 단계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전체적인 관리는 컴퓨터로 이루어지고 있다. 가람지기를 들여와 일부분 응용해서 현재 사용 중이다. 도선사의 기존 처리 방식과 좀 다른 측면이 있어 전체적으로 전산화되는 시점은 몇년 후로 보고 있다.

사내 전산관련을 담당하고 있는 서은화 과장은 "현재 수기로 작성하고 있는 신도카드도 DB화해 조직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라며 "앞으로 외부에 개설되어있는 산하 어린이집 원장 카페를 도선사 홈페이지로 옮겨올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강지연 기자 lygang@buddhapia.com

게시판 엿보기

: 어머닌 제가 교회에 나가는 것보다는 불법에 귀의, 마음 다스리는 공부를 하며 사는 것을 더 원하셨던 같았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도반으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우리 부부는 누구에게나 당당하게 불교대학에 나가라고 전교합니다.

한미경, 능인선원 영험담

: 솔직히 버스에서 내려서 주차장에 들어섰을 때 입구에서부터 들리는 불경소리와 절에 들어섰을 때의 향 냄새, 그리고 불상들이 낯설고 무섭게 느껴졌어요. 수련회 끝나고 절을 나설때의 처음엔 너무 좋은 곳에 있다가 와서 그런지 조금은 서글픈 마음도 들었는데, '천당과 지옥은 자기 마음속에 있다'는 어느 스님의 말씀처럼 행 · 불행은 제가 마음먹기에 달린것 같아요.

이주희, 월정사 이야기 나눔방

청담스님 인류구세 사상 인터넷 포교 원동력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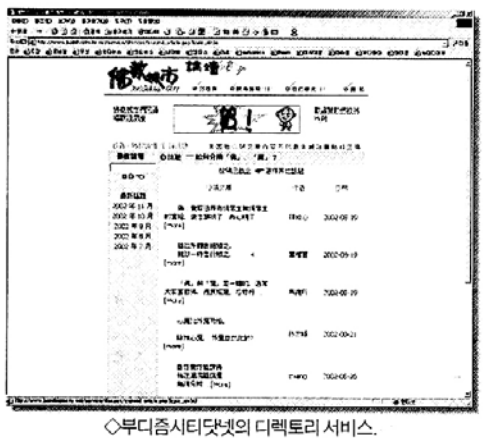
주지 혜자스님

노인의 날을 맞아 정부로부터 대한민국 국민포장을 받는 등 보시행을 인정받아온 혜자스님은 청담스님 탄신 100주년을 인터넷으로도 널리 알리느라 분주하다.

"인터넷은 새로운 포교 환경이기에 전세계 네티즌을 대상으로 불교를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청담스님의 선사상에 바탕한 인류 구세사상이 조계종 발전의 원동력이 된 것처럼 스님의 사상을 널리 알려 인터넷 포교의 원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이 스님의 포부다.

앞으로 도선사 내부 업무는 종단에서 추천하는 '가람지기'로 해결하도록 전환작업에도 박차를 가할 생각이다.

해외불교사이트 순례 ■ 부디즘시티닷넷



◇부디즘시티닷넷의 디렉토리 서비스.

대만의 재단법인 보타문교기금회에서 운영하는 부디즘시티닷넷(www.Buddhismcity.net).

다양한 대만 불교계 뉴스 매일 제공

보타문교기금회는 "21세기 e세대로 향해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불교 홍법의 방식 역시 인터넷화의 길을 걷고 있기에 사이트를 개설했다"고 밝힌다.

부디즘시티닷넷에서 가장 눈여겨 볼만한 부분은 바로 매일 매일 전하는 일간 불교 뉴스 서비스이다. 각계 각층의 다양한 불교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 또한 오늘의 활동, 최신 화제, 핫이슈 등을 전하는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부디즘시티닷넷의 서비스는 조직단체, 사원, 불교문물, 개인망, 경전서적, 의료자선기구, 전파매체신문출판, 소식, 교육, 문화예술, 기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외에도 불교신문, 불교논단, 각국활동, 인물특사, 선상불경, 선상불서 등으로 분류된 링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강지연 기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발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경전의 이 말씀을, 당신께서 투자하는 단, 9일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 02)396-2736 · HP 016)228-2358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bokbat@kornet.net

나-노 파동명상 요법을 알면 당신도 영혼의 안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슬픔과 고통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당신의 전생에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 물음에 대한 진정한 답을 '명상-전생'을 통하여 찾아보십시오.

점(占)과 철학으로 사람의 운명을 상담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명상-전생 요법으로 당신의 전생과 미래의 삶의 모습을 마음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이생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 영혼의 완성을 위한 배움터 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각각의 전생의 카르마(業)에 의해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그 예정되어져 있는 영혼의 프로그램을 명상-전생을 통하여 확인하십시오.

명상전생 특강 내용

(1) 영상으로 하는 제령 천도(薦度) - 자신의 몸속에 있는 영가(靈駕)나 빙의령(憑依靈)이 영계로 떠나가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하는 기법
(2) 전생퇴행 명상 - 무의식속에 기억되어져 있는 전생의 사건과 경험들을 재생시켜서 보게하는 기법
(3) 원격 제령 명상
제 3자가 명상에 들어 원하는 사람의 몸속에 있는 영가를 천도 하는 기법. 명상 당사자가 그 사실을 확인하고 볼수 있음.
(4) 명상 파동요법
사람이나 영가는 저마다 고유한 주파수(영파(靈波))를 가지고 있는데 영혼파동기법으로 그사이클에 초점을 맞추어 영가(靈魂)를 불러내어 제령 천도하는 기법. 영가가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떠나 가는 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기법.

강의 안내

◎ 개강 : 수시접수 ◎ 시간 : 매주 토요일 3시간, 3개월 과정 ◎ 특강 : 지역별 그룹특강 가능 (일주일 과정)

※ 저서 '우리는 태어나기 이전부터 존재했었다.'

법윤 선생님 약력
2001년 SBS '호기심 천국' -'최면술의 놀라운 진실' 출연
2002년 KBS 'VJ특공대' - '최면의 세계' 출연
동래고등학교 졸업
한양대학교 졸업
세계 아미포 기공협회 회장
동방 최면전생 연구소 소장
현 '삼경그룹' 고문으로 재직

동 방 명 상 전 생 연 구 소
♦ 문 의 처 : 017-587-0777, 051) 806-8500, 817-6156
♦ 홈페이지 : www.dongbang21.co.kr



◇붉은색 옷으로 갈아입은 설악산은 지금 단풍으로 아단법석이다. 사진은 오세암 전경.

붉은 물결따라 산사로…

설악·오대산 시작 27일 내장산까지

단풍 즐기며 '나'를 찾는다

단풍이 잰 걸음으로 남하하고 있다. 내달 초부터 중순까지 우리나라 전역은 말 그대로 '만산홍엽'이 될 것이다. 13일 절정을 맞은 설악산과 오대산을 시작으로 월악산과 소백산, 치악산이 현재 붉은 색으로 옷을 갈아 입었다. 27일부터는 속리산, 계룡산, 가야산, 북한산, 월출산, 주왕산, 내장산까지 붉게 물들일 것이다.

속세의 번잡한 일상을 훌훌 털고 일어나 어디론가 떠나기 좋은 계절이다. 이러한 때 산사에 들러 앞으로만 달려온 지난 삶을 돌이켜보고 앞으로의 삶을 설계하는 시간을 가져봄은 어떨지. '나를 찾는 짧은 여행'을 떠나보자. 가을 단풍이 아름다운 사찰로.

◐백암산 백양사=내장사의 단풍보다 분위기가 있고, 덜 붐비어 사람들에게 떠밀리지 않는 곳이 바로 내장사 남쪽 백양사로 향하는 길목에 있는 애기단풍이다.(061)392-7502

◐능가산 내소사=600m 전나무숲이 유명한 곳으로 가을에는 단풍이 절정이다. 능가산을 배경으로 들어선 대웅전의 꽃창살과 할아버지, 할머니 당산나무가 절의 깊은 내력을 말해준다.(063)583-7281

◐설악산 오세암=자장 율사가 644년(신라 선덕여왕 13)에 창건한 오세암(五歲庵)은 백담사의 산내 암자이다. 뒤로는 관음봉이 병풍처럼 외호하고 오른쪽에는 만경대가 굽어보고 있다. 앞으로는 용아장성릉이 삿된 기운을 막는 듯 오세암을 안고 있다.(033)462-8135

◐내장산 내장사=내장산 단풍은 웅대한 스케일의 활엽수림에서 절정을 이룬다. 27일부터 11월 5일까지가 올해의 단풍 절정시기다. 내장사 일주문 앞에 펼쳐지는 단풍터널은 한폭의 그림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든다. 이 터널은 1892년 내장사 스님들이 내장산에 있는 108그루의 아기단풍나무들을 캐다 심어 인위적으로 꾸민 것이다.

백팔번뇌를 단풍나무 밑을 거닐며 벗어나라는 깊은 배려에서 였다고 한다.(063)538-8745

◐용문산 용문사=천연기념물 30호인 은행나무는 수령 1천1백년의 암나무로 높이 41m, 둘레 14m에 달한다. 1천년 수령의 황금빛 은행나무(천연기념물 30호)가 주변의 단풍과 어울려 장관을 연출한다.(031)773-3797

◐봉황산 부석사=매표소에서 일주문을지나 우리나라 최고의 목조건물인 무량수전까지 이어지는 비탈길은 온통 은행나무 천지다. 노란 은행나무 잎에 단풍이 곱게 물들면 아름다운 단풍길로 변한다.(054)633-3464

◐계룡산 갑사=갑사 진입로인 5리 숲길은 봄에는 황매화가 피고 가을이면 단풍이 들어 장관을 이룬다. '추(秋)갑사'라는 명성이 무색하지 않게 단풍잎이 아름답다.(041)857-8981

◐월악산 신륵사=신라 아도가 창건했다는 전설이 내려오는 신륵사는 용하계곡과 960봉을 잇는 단풍길이 한폭의 수채화 그 자체다.(043)642-3803

◐가지산 석남사=신라 헌덕왕 16년(824년) 도의국사가 창건한 선찰로 1957년 인홍비구니가 주지로 부임하면서 비구니 수도처로 자리를 굳혔다. 푸른 노송 사이로 빨갛게 물든 단풍이 사찰 주위에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다.(052)264-8900

◐도솔산 선운사=유달리 붉고 흐드러지게 피는 동백꽃 탓일까, 선운사의 단풍 또한 불타는 듯 화려하다. 고찰 선운사의 기운이 서린 듯 붉게 물든 단풍 잎 하나하나 정기를 머금은 듯 그 모습이 단아하다. 특히 선운사에서 도솔암 가는 길에 펼쳐진 단풍길이 아주 좋다.(063)561-1422

◐중조산 쌍봉사=쌍봉사의 단풍은 은은하기만 하다. 타는 듯이 붉지 않아도 어느새 발갛게 물들이고 마는 그런 촉촉함을 지녔다. 그래서인지 더욱 발길을 붙잡고 만다.(061)372-3766 김주일 기자



한국관광공사 추천

'단풍 나들이 베스트 5'

단풍터널, 다양한 식생보존

◆명지산(경기 가평)=형형색색의 단풍나무 터널을 따라 산행을 즐길 수 있다. 생태보존지역과 군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식생이 다양하고 양호한 보존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가평버스터미널(031-582-2308)에서 적목행 · 백둔리행 버스가 다닌다. 승용차는 46번 국도(춘천방향)~청평~가평~75번 국도(목동방향)~목동(북면)에서 좌회전~사창리, 김화 · 화천 방면 75번 국도~가뜰기~익근리 입구. 가평군청(031)582-0088

물줄기 따라 여유로운 트레킹

◆가리산 · 용소계곡(강원 홍천)=단아한 단풍감상과 함께 용소계곡 물줄기를 따라 여유로운 트레킹도 즐길 수 있다. 홍천터미널(033-432-7893)에서 두촌행 농촌버스를 타고 역내리에서 내린다. 이곳에서 가리산휴양림 입구까지 5㎞ 정도는 대중교통편이 없다. 승용차는 44번 국도~홍천~인제 방향 약 20여㎞~가리산 휴양림 표지판~두촌면 소재지~용소계곡. 홍천군청(033)430-2544

거울처럼 맑은 담양호도 함께

◆추월산(전남 담양)=울긋불긋한 가을단풍으로 화사하게 단장한 모습이 매력적이다. 산 아래에는 거울처럼 맑은 담양호가 잔잔하게 펼쳐진다.

담양터미널(061-381-3233)에서 추월산행 시외버스를 탄다. 승용차는 호남고속도로 백양사IC에서 내려 1번 국도, 15번 지방도를 이용한다. 88고속도로 담양IC나 광주에서 29번 국도를 타고 담양까지 갈 수 있다. 담양읍~추월산 터널. 추월산 관리사무소(061)380-3568.

빨간치마 입은듯 해 붙여진 이름

◆적상산(전북 무주)=가을철이면 마치 온산이 빨간 치마를 입은 듯하다고 해서 적상산(赤裳山)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무주IC에서 무주읍~당산리~북창리쪽으로 간다. 정상에 있는 안국사까지 도로포장이 돼 있어 노약자들도 단풍 구경을 즐길 수 있다. 무주관광안내소(063)322-2905

수안보온천 등 지척에 명소

◆문경새재(경북 문경)=수안보온천을 옆에 차고 속리산, 월악산, 소백산 등 유수의 국립공원을 지척에 거느린 단풍관광명소. 길가에 심어진 단풍나무 터널이 환상적이다. 문경읍에서 새재까지 시내버스로 10분 소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054)571-0709



단풍구경 이것만은 알고가자

단풍:기온이 떨어지면서 나뭇잎의 색깔이 바뀌는 현상

노란 단풍과 붉은 단풍: 기온이 떨어지면 나뭇잎 속에 있던 엽록소가 합성을 중지한다. 이때 카로틴(노란 색소)과 크산토필(엽록소와 함께 존재하는 황색의 색소)이 드러나면 노란 단풍, 안토시안(붉은 색소)이 생기면 붉은 단풍으로 나타난다.

단풍드는 시기:보통 9월 초순의 기온이 단풍시기를 결정하는데, 일반적으로 기온이 낮을수록 단풍시기는 빨라진다. 그러나 진행상황은 9월 중순이후의 기온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단풍이 산 전체의 2할 가량 물들었을 때를 첫단풍, 8할이상 물들었을 때를 절정기로 분류한다.

단풍이 잘 드는 곳:평지보다 산, 음지보다 양지 바른 곳, 강수량이 적고 기온의 일교차가 큰 곳이 아름답게 든다.

단풍여행 상품

답사회	일 정	장 소	참가비	연락처
옛돌여행	25일(1박2일)	보길도, 미황사	6만8천원	(02)2266-1233
롯데닷컴	26일	내설악 단풍 트레킹	2만9천원	(02)3668-8777
한화투어몰	27일	계룡산 갑사, 논산 곶감마을	3만8천원	(02)774-3200
지구촌항공	매일(무박2일)	지리산 피아골 단풍, 섬진강	7만9천원	(02)3391-3035
터사랑	27일	적상산, 안국사	3만8천원	(02)725-1284
승우여행사	27 · 29 · 11월 3일	장성 백양사	3만8천원	(02)720-8311

